

넘어넘어:진실을 말하는 용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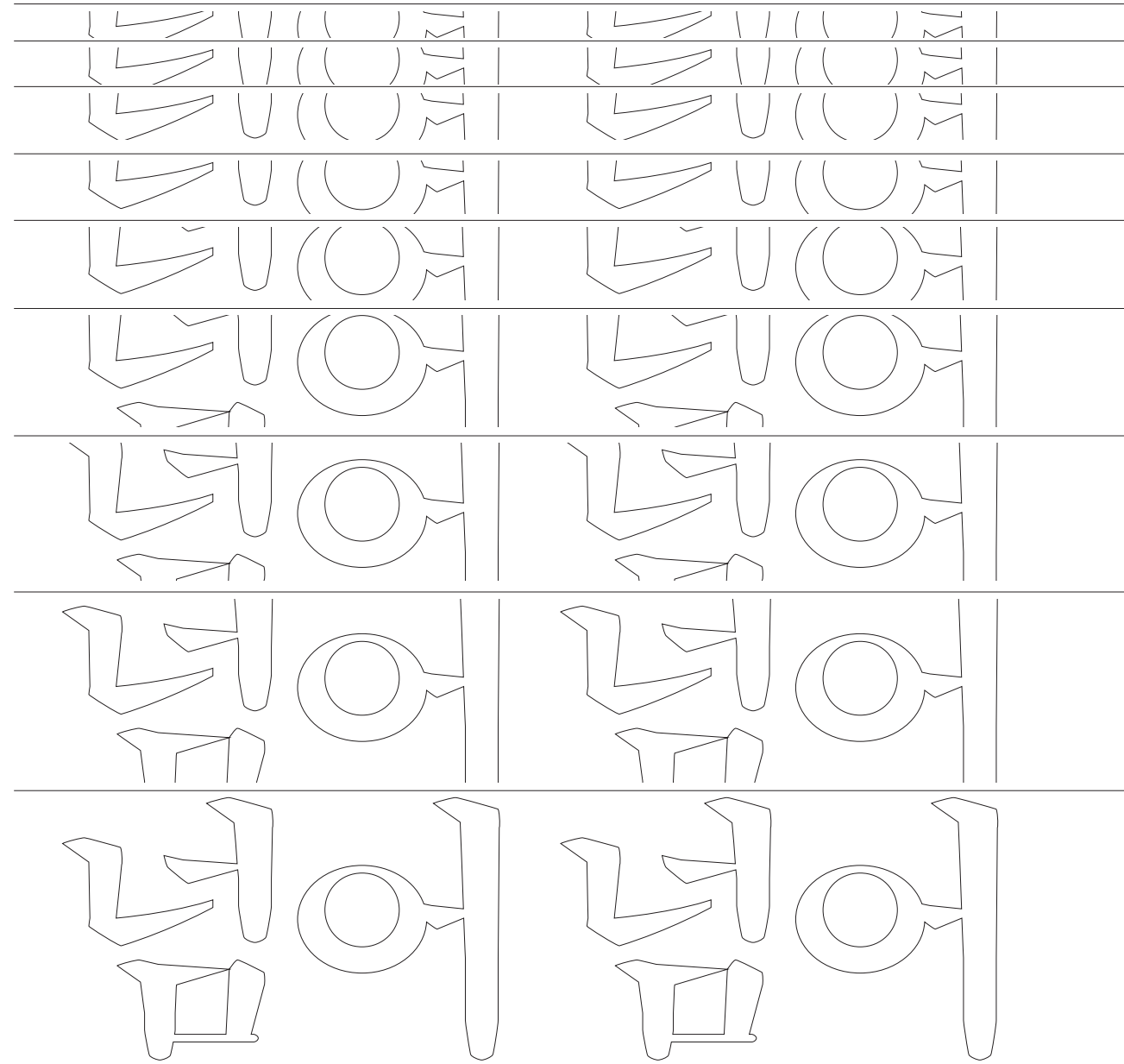
Special Exhibiti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Telling the Truth: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2020.5.18. – 2021.3.28.

일러두기

1. 이 책은 서울기록원이 2020년 5월 18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도록이다.
2. 전시 및 도록에서 사용한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넘어 넘어』로 표기한다.
3. 문서와 신문 기사는 「 」, 단행본과 정기 간행물은 『 』, 작품 및 프로젝트는 < >, 전시는 《 》 등의 기호로 표시한다.
4. 자료의 영문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5. '광주'는 'Gwangju'로 번역 표기하되, 자료 원문에 'Kwangju'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6. 광주항쟁, 광주의거, 광주사태, 광주민주화운동, 5·18 등 '5·18민주화운동'을 의미하는 용어는 'Gwangju Uprising'으로 번역 표기한다.
7. '시민군'은 'Citizens' Army'로 번역 표기한다.
8. 외국어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목차		Contents	
기억 기관에서 만나는 5·18민주화운동	8	Encountering the Gwangju Uprising in a Memory Institution	10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15	Telling the Truth: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16
프롤로그: 말하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48	Prologue: Untold Story of the Day	48
1.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56	1. Do Not Forget Us	56
— 1980.5.26. 20:00 죽어야 할 이유와 살아야 할 이유	58	— May 26, 1980 8:00 pm The Reason to Die, The Reason to Live	58
— 1980.5.27. 01:30 인생 끝나부렀다!	60	— May 27, 1980 1:30 am My Life Is Over!	60
— 1980.5.27. 02:30 전남도청 마지막 방송	64	— May 27, 1980 2:30 am The Last Announcement at the Provincial Office	64
2. 광주를 넘어, 국경을 넘어	68	2. Beyond Gwangju, Beyond Borders	68
— 유언비어와 진실 사이에서	70	— Between Truth and Groundless Rumors	70
— 푸른 눈의 목격자들: 위르겐 힌츠페터, 아놀드 피터슨, 헨틀리 부부	76	— Witnesses with Blue Eyes: Jürgen Hinzpeter, Arnold Peterson, Martha Huntley & Charles Betts Huntley	76
—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	92	— Transnational Connection	92
3. 진실을 향한 오디세이: 『넘어 넘어』	96	3. An Odyssey to Truth: <i>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i>	96
— ‘불온’한 자료들	98	— ‘Seditious’ Materials	98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00	— Belling the Cat	100
— 진실을 향한 오디세이, 첫걸음을 내딛다: 『넘어 넘어』가 나오기까지	104	— An Odyssey to Truth, The Beginning: The Publication of <i>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i>	104
— 광주항쟁의 유산: 1987년 6월항쟁	120	— The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The June Uprising of 1987	120
4. 경합하는 진실들	124	4. Challenged Truths	124
— 과거 청산을 위한 노력과 광주항쟁	126	— Justice for the Past and the Gwangju Uprising	126
—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	128	— Five Demands on the Resolution of Issues Surrounding Gwangju	128
— ‘광주청문회’와 5·18 재판	134	— Gwangju Hearings and Trials	134
— 『넘어 넘어』 개정판 작업	148	— Revision of <i>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i>	148
에필로그: 기록은 말한다. 그리고 기억한다.	156	Epilogue: Records Speak and Remember	156
‘넘어 넘어’를 다시, 새롭게 읽는다	188	Re-reading <i>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i> from a Fresh Perspective	192
5·18을 기억하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	198	Future Generations Speak of the Gwangju Uprising	198
인권 증진을 위한 기록관의 비전	208	Archives’ Vision to Promote Human Rights	210

기억 기관에서 만나는 5·18민주화운동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0년을 주기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우리 현대사를 보자면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기록원은 이 중 5·18민주화운동에 주목한다.

‘1980년 광주’ 이후 침묵과 망각에 대항해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기억을 다시 불러냈다. 이것은 ‘기억 투쟁’이었다. 과정은 지난했고 1995년에야 비로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폭도에 의한 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인 이름을 얻었다. 이 법에 의해 국가는 희생과 피해를 보상했고, 묘역을 성역화했다. 5·18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계속 투쟁했다. 2년 뒤인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폭도’라는 명에 씌우기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여전하다. 당시 신군부의 실세였던 전직 대통령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화운동 보상자 명단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 깊은 진실을 규명하고 더 많은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게 하자는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선임 문제로 공전하다 지난 연말에야 겨우 구성되었다. 40년이 지났지만 5·18민주화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기록원은 현재 진행형인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특별전시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준비했다. 보존 기록을 활용하기 위해 기록의 생산자와 맥락, 생산 배경을 찾아내고 전시로 풀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신생 기관에게는 어려운 숙제이다. 그러나 아카이브가 전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전시는 기록의 이용자와 만나는 가장 유력한 기록정보서비스 방법이자 도구이기 때문이다.

서울기록원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며 전시회를 여는 것은 아카이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아카이브는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같이 ‘인류를 위한 집단적 기억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기억 기관이다. 기억 기관은 과거의 일을 지금 드러내고, 지금을 기억하도록 미래로 보내는 일을 한다. 이번 특별전시는 40년 전의 5·18민주화운동을 오늘로 불러내고 사람들이 미래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꾸몄다.

진실의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기록원은 기록의 힘을 빌렸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치열하고 꼼꼼하게 기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로 풀어냈다. 1980년 광주를 풍문으로만 듣던 시절, 흐릿한 영상의 비디오와 함께 광주의 진실을 담아 읽었던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전시의 중심에 선다. 이재의, 조양훈, 전용호 등 실제 기록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당시의 광주가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꺼내 놓았다. 이것은 아카이브의 기억 투쟁이다.

한 시대의 역사는 단일하지 않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은 충돌하고 서로 스며들어 복수(複數)의 역사를 향한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찰 또는 기념이라고 부른다. 기록의 출처도 다양해서 공공 기록과 시민 기록이 섞여 역사를 이룬다. 1980년의 광주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세계기록유산에는 국방부의 기록, 광주시의 기록, 재판 기록 등의 공공 기록과 함께 시민들이 남긴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당사자가 남긴 기록이 있어야 사회적 기억이 온전히 구성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가장 적절한 예시이다. 시민의 기록이 차곡차곡 남고 쌓여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기록원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1980년 광주라는 시간과 공간의 확장이다. 40년 전의 시간을 지금에 풀어놓았고, 시민의 기록이 모이는 공간을 서울로 옮겨 놓았다. 산 자들은 기억과 기록의 힘을 빌려 앞서간 이들을 따른다. 오늘 쓰는 이 기록도 살아남아 역사가 될 것이다. 아카이브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2020년 5월
서울기록원 아키비스트 조영삼

Encountering the Gwangju Uprising in a Memory Institution

We can remember historic events in several ways. We can acknowledge their significance every ten years, for example. Looking back o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is year commemorate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n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pril 19 Revolution. It is also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and Seoul Metropolitan Archives is focusing on this.

Since the Gwangju Uprising in 1980, many people have fought against silence and forgetting and revived memories of Gwangju. They have continued to struggle for the sake of those memories. The whole process was extremely tough, and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was only enacted in 1995. Based on this Act, the event was redefined a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stead of an ‘incident by a mob of rioters,’ and the government made reparations to victims for their sacrifice and losses and established a national cemetery enshrining them. Those who remember the Gwangju Uprising continued their fight to tell the truth and maintain their memories. May 18th, the day the Gwangju Uprising took place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commemoration day in 1997, and documentary heritage related to this event was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in 2011.

However, some people still brand the victims as ‘rioters’ and even argue that those victims were spies dispatched by North Korea. Former president Chun Doo-hwan who was a powerful figure in the new military regime at that time, is being tried for defaming the late Catholic priest Cho Pius. Also, recently there was a political battle over the list of the recipients of the compensation related to the Uprising. Although a law was enacted pertaining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igation committee which aimed to uncover more underlying truths of Gwangju and restore the victims’ honor, it took more than six months to constitute the committee which only happened at the end of 2019.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still ongoing though 40 years have passed.

Seoul Metropolitan Archives presents a special exhibition entitled 《Telling the Truth: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focusing on the ongoing struggles and fights surrounding the Gwangju Uprising. The archives identified the producers, contexts and backgrounds of records to make good use of preserved records in the exhibition. It was hard work for a new institution that had just taken its first step. However, we did not want

to give up an exhibition which could b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of providing records and information as well as engaging with the users of the arch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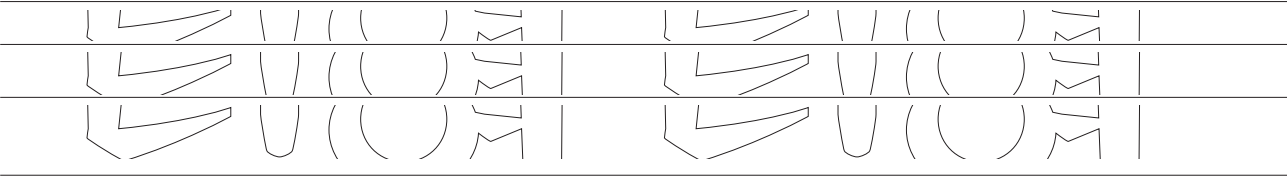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would like to discharge its duty by holding this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Just like museums and libraries, archives are memory institutions that have a role to play as ‘custodians of collective memory for humanity.’ A memory institution aims to reveal past matters to today and send today’s matters to the future so that they are remembered. This temporary exhibition is intended to recall once again the Gwangju Uprising that took place 40 years ago and to help people to remember it today and in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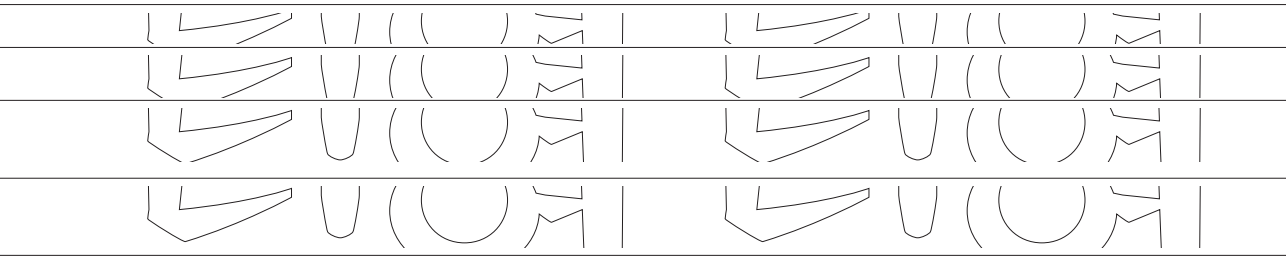
In order to convey truthful memory, Seoul Metropolitan Archives depended on the power of archives. The exhibition tells the stories of those who desperately and in detail documented what had happened during the uprising. At the center of the exhibition, is a book entitled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The book delivered the truth along with blurry video footage of that time when most people learned about the Uprising by word of mouth. The exhibition unfolds the stories that bring the Gwangju of that time back to life and presents the real authors whose names were previously kept secret such as Lee Jae-eui, Cho Yanghoon, and Jun Yongho. It is a fight for memory by Seoul Metropolitan Archives.

The history of a period of time is not uniform. Archives collide with and permeate one another, giving rise to various histories. We call this process reflection or commemoration. Archives originate from diverse sources such as state and private collections and all together shape a history. The same applies in the case of the Gwangju Uprising. The 2011 UNESCO Memory of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includes not only public record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city of Gwangju, and the courts, but also records made by citizens. If it is agreed that records made by the parties concerned can complete a social memo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is a perfect example. We know that the records made by ordinary people gradually accumulate to become a history.

Mark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Seoul Metropolitan Archives attempts to extend the time and space of the democratic uprising, which took place in Gwangju in 1980, through this exhibition 《Telling the Truth: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That time 40 years ago is brought into the present, and the space for collecting citizens’ records has been moved to Seoul. With the help of memories and records, survivors can follow those who went before. This piece I wrote today will also survive to be part of history. This is what we do.

May 2020
Zoh Youngsam, Archivist at Seoul Metropolitan Archives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1980년 광주의 기억은, 독재 정권에 맞서 마침내 폭발한 1987년 6월 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광주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아마 더 늦게 찾아왔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시민들 스스로 1980년 5월 광주항쟁의 진실을 찾아가는 오디세이였다고도 할 수 있다. 광주의 피해자들이 먼저 일어났고, 이내 전국의 수많은 양심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자와 연대해 ‘당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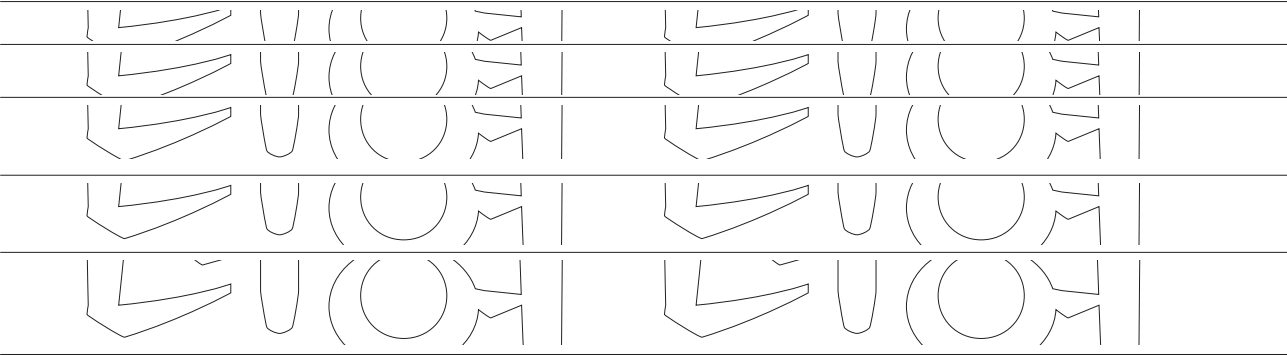
5·18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여 증언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985년에 출판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그러한 노력의 첫 번째 성과로서 특별한 위상을 가진다. 마치 흩어진 그림 조각을 맞춰 퍼즐을 완성해 나가듯이, 이름 없는 시민들은 각자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그날의 일을 함께 나누었고, 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모여 마침내 『넘어 넘어』가 세상에 나왔다. 이는 국가가 규정한 진실에 맞서 시민들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대안적 ‘객관성’을 확보해 나간 과정이자, 진실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을 시민들 자신의 알 권리로 만들어 낸 용기의 나눔이기도 했다.

Telling the Truth: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Memories of 1980 Gwangju acted as the catalyst for protests against military rule that erupted across Korea in June 1987. Without Gwangju, this country would have waited much longer to bring about democracy. One can say that a series of democratic struggles in the 1980s was an odyssey of the citizens themselves to discover the truth behind the Gwangju Uprising in May 1980. The victims led the way and then a huge number of conscientious and righteous people expressed support for and solidarity with them, professing to be victims too.

There have been relentless efforts to inform the public of the truth about Gwangju. Survivors provided testimony to their painful past and they not only collected but also produced evidence. The significant book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published in 1985, is granted a special status as the first fruit of those efforts. As though solving a puzzle with scattered pieces, unnamed citizens shared what they had seen and heard on that day. And these fragments of truth have eventually been gathered in a book. This has been a long process of disclosing the real truth as against the ‘truth’ controlled by the authorities, thereby securing an alternative ‘objectivity’. It was also a courageous sharing by citizens who effectively exercised their right to know the truth.



다시, 넘어 넘어 (2020)
Reading Out the Truth (2020)

지하에서 쓰이고 읽혔던 1980년 광주의 기록이, 2020년 사람들의 모습과 목소리에 담겨 되살아난다. 광주 및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자신의 글, 타인의 기억, 또는 처음 접하는 역사를 소리 내어 읽는 여러 사람들을 담은 이 영상은, 고립되었던 광주의 상처를 우리에게 현존하는 진실로 불러들여 보듬으려는 시도이다.

— 감독: 설수안
— 상영 시간: 14분



전국 37개 대학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를 정면으로 내걸고 봇물이 터지듯이 한꺼번에 거리로 거리로 물결쳐 나왔다.

16일 서울 시내의 각 대학들은 가두시위를 일단 중지하고 24개 대학 학생 대표들은 ‘우리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시국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의했다. 잇달아 부산, 대구, 전주 등도 일단 서울 지역의 결정에 따라 가두시위를 중지했다.

전국적으로 일종의 소강상태가 이루어졌으나 광주만은 예외였다. 오히려 광주에서는 전날보다 훨씬 많은 3만여 명이 도청 앞에 집결하여 햇불 시위를 벌이게 된다.

Demanding democracy, a mass of students from thirty-seven universities surged in waves into the streets.

May 16th, the representatives of twenty-four universities in Seoul concluded that “their demands had been fully delivered.” They agreed with a temporary halt of street demonstrations to wait and see how the situation develops. Other cities and towns joined this action for a time including Busan, Daegu, and Jeonju.

Throughout the whole nation there was a lull except in one city. Around thirty thousand people, more than the previous day, rallied in front of the Provincial Office in Gwangju with torches in their hands.



도청 앞에 집결하여 햇불 시위를 벌이게 된다

거의 같은 무렵에 전남대 정문 앞에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차츰 불어난 학생들은 200~300명쯤이었는데 그들은 과감하게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계엄 해제' '○○○ 물러가라' '계엄군 물러가라' '휴교령 철회하라'는 구호들이 튀어나왔다.

갑자기 “돌격 앞으로” 하는 명령과 함께 공수대원들이 으악 소리를 내지르며 학생들 사이로
파고들면서 곤봉으로 후려치기 시작했다.

At 9:00 a.m. on May 18, students gathered in fro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Nearly 300 students began to shout, “End martial law!” “Chun Doo Hwan, you must be gone!”
“Martial law troops go away!” and “End the shutdown!”

Suddenly, the soldiers raised a battle cry of their own and charged the students. They waded into
the crowd, swinging their batons.



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휴교령 철회하라'는 구호들이 튀어나왔다

이날 오후부터 시내 변두리 산수동, 계림동 부근에는 유인물들이 뿌러지기 시작했다. 이 유인물들은 오전 중에 일어났던 공수 부대의 학살과 만행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을 고발하는 내용들이었다.



Leaflets appeared on the streets that afternoon, May 18. The leaflets spread news of the military's brutality. News of the crackdown was spread to the outskirts of the city, along with reassurances that some of the student leaders remained defiant and ready to lead the struggle for democracy.



오전 10시가 되자 금남로에 뿔뿔이 모여든 군중은 3,000~4,000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대 가운데 섞여 있던 학생, 청년층들은 「애국가」 「정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를 불렀고 시위는 차츰 전투적으로 발전해 갔다.

By 10:00 a.m., nearly 4,000 people were crowded around the avenue, and their numbers were still increasing.

Some students began singing the “National Anthem,” “Justice,” and “Our Wish Is National Reunification,” hoping to rally the people. Resistance became more militant.



「애국가」, 「정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를 불렀고

시위 군중은 금남로 양쪽을 차단한 경찰을 향하여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계속 밀어붙였다. 오전에는 시위 대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40대 이상의 중년층과 부녀자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군과 경찰도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었으며 돌과 화염병, 가스 연기와 경찰의 계속되는 해산 명령의 방송 소리가 저지선 앞에서 어지럽게 교차했다.

The demonstrators, with stones and Molotov cocktails, pushed up against the police on both ends of the avenue. Among the crowd were middle-aged men and women who had not been found in the morning's demonstration. The soldiers held their ground. Stones, firebombs, and tear-gas canisters were raining down on the police barricade. A cop with a loudspeaker commanded the crowd to disperse.



시민들 사이에는 투쟁감을 고양시키는 수천 매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이제 광주 시내에는 왜곡된 보도나마 신문도 들어오지 않았다. 관제 언론과 적의 선무 방송 및 뼈라를 이겨내기 위한 유인물 작업팀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시민들은 「투사회보」를 읽어 보고 소중하게 접어서 간직하곤 했다.

Smoldering anger was beginning to transform into fighting spirit. Thousands of copies of the *Militants' Bulletin* were distributed to the crowd. Although the official newspapers were filled with nothing but censored reports, they were nonetheless unavailable in Kwangju. On May 20, the reporters from the local paper boycotted publication to protest martial law censorship. Yun Sangwon's underground propaganda group struggled to overcome the machinations of the media and the martial law command. People read the *Militants' Bulletin* carefully and treasured it.



유인물 작업 팀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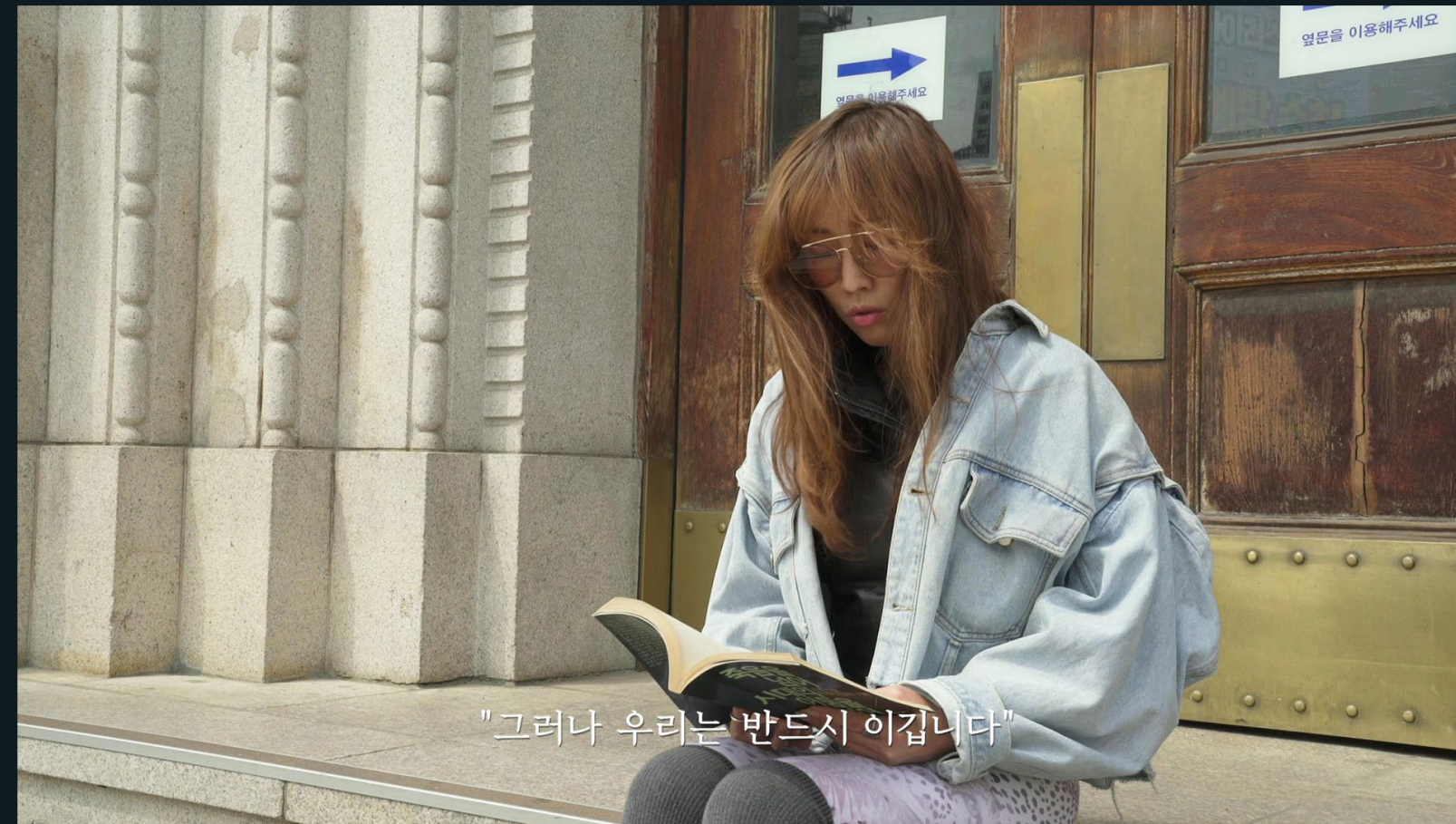
7시가 다 되어, 갑자기 유동 쪽에서부터 수많은 차량이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돌진해 오고 있었다. 맨 선두에는 짐을 가득 실은 대한통운 소속 12톤 대형 트럭과 고속버스, 시외버스 11대가 잇달았고, 그 뒤로는 2백여 대의 영업용 택시가 금남로를 가득 메운 채 뒤를 따랐다.

It was nearly 7:00 p.m. when hundreds of honking vehicles drove out information from Mudung Stadium. Eleven giant trucks, express buses, and intercity buses led the convoy. Two hundred taxicabs followed.



“전투 경찰 아저씨, 우리에게 최루탄을 쏘지 마세요.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광주
시민을 몰살하려는 ○○○을 몰아냅시다”
“우리는 맨주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광주시를 수호합시다”
“공수 부대가 우리 형제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도청으로! 도청으로”

“Riot police, don't fire tear gas at us, join us! Let's oust Chun Doo Hwan together. He's out to
annihilate all the men and women of Kwangju. We are barehanded but we will win. Do not
retreat! Let us defend our city. The paratroopers are killing our brothers and sisters. Let's go to
Province Hall!”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때까지 뉴스에는 단 한마디도 보도가 되질 않았고 가끔씩 계엄 당국의 강경 일변도의 발표만이 보도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유행가, 팝송, 상품 선전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철면피하게 방송되자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분노는 직접적 가해자인 공수 부대에 대한 것 못지않게 타올랐다. 8시 뉴스 시간에는 시민 피해 상황 및 죽은 사람들의 신원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방송은 여전히 몰염치하게 춤이나 추고 있었다.

People were infuriated that MBC did not cover the massacre that happened only a few blocks from its headquarters. It just aired an official statement from the martial law command. They became more furious when MBC aired its regular nightly programs instead of news coverage of the uprising. Demonstrators demanded precise announcements of casualties and a list of those killed to be aired during the 8 o'clock news.



그 때까지 뉴스에는 단 한마디도 보도가 되질 않았고

이미 광주시는 계엄군의 통제력에서 벗어나고 있었으며 시민들이 밤새워 싸워 흘렸던 피의 대가로 시민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모든 시민들은 누구나 형제자매요 혈연이 되어 버렸고, 서로를 걱정해 주었다. 이날 아침 새벽부터 시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시위 군중과 청년들을 위해 먹을 것들이 길가에 준비되어 있었다.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면 어디에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길목을 지키다가 지나가는 시위 차량을 멈추게 하고는 주먹밥을 한 함 지씩 실어주는 것이었다.

The city was no longer under government control. The people of Kwangju were building a commune, but the price for the new system was their blood. The morning of May 21 saw a new sight on the street corners. Meals had been prepared for demonstrators and were being distributed on every street, at all the busy intersections. Women stopped the appropriated vehicles to offer food to their occupants.



모든 시민들은 누구나 형제자매요

전날에 이어 오후 2시 30분에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가 도청 앞에서 십여만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회 도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자 군중들이 어수선했었다.

사회자가 “이 비는 원통하게 죽은 민주 영령들이 눈을 감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입니다”라고 말하자 잠시 혼란스럽던 군중들은 모두 우산을 접고 다시 숙연한 분위기로 모여들었다.

Their grievances against the committee burst out at the second citywide rally that afternoon [May 24]. At 2:30 p.m., more than 100,000 people gathered at Province Hall Square.

A sudden downpour struck in the middle of the rally, scattering the crowd for a moment.

The organizer said, “This rain is the grievous tears of the souls who died for democracy.” This statement ended the frantic moment of chaos. The rebels closed their umbrellas, gathering again in a solemn mood. Despite the pouring rain, the rally continued.



계엄군의 장갑차 위에서 서치라이트가 도청을 비추는 가운데 계엄군은 항복 권유의 최후통첩을 방송했다.

“폭도들에게 경고한다. 너희들은 현재 완전히 포위되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도청 안은 아무 반응도 없이 고요했다. 순간 총성이 울렸다. 시민군 측에서 발사한 총탄이 계엄군의 서치라이트를 박살냈다. 다시 캄캄한 어둠이었다. 계엄군의 일제 사격이 개시되었다.

As a searchlight on an armored vehicle lit up Province Hall, the government issued its ultimatum: “This will be your only warning. Your mob is completely surrounded. Give up your weapons and surrender.”

There was no response from Province Hall. The silence was broken by a single gunshot. A rebel’s bullet shattered the searchlight. Province Hall was cloaked in darkness for a moment, then government troops fired, M-16s flashing with f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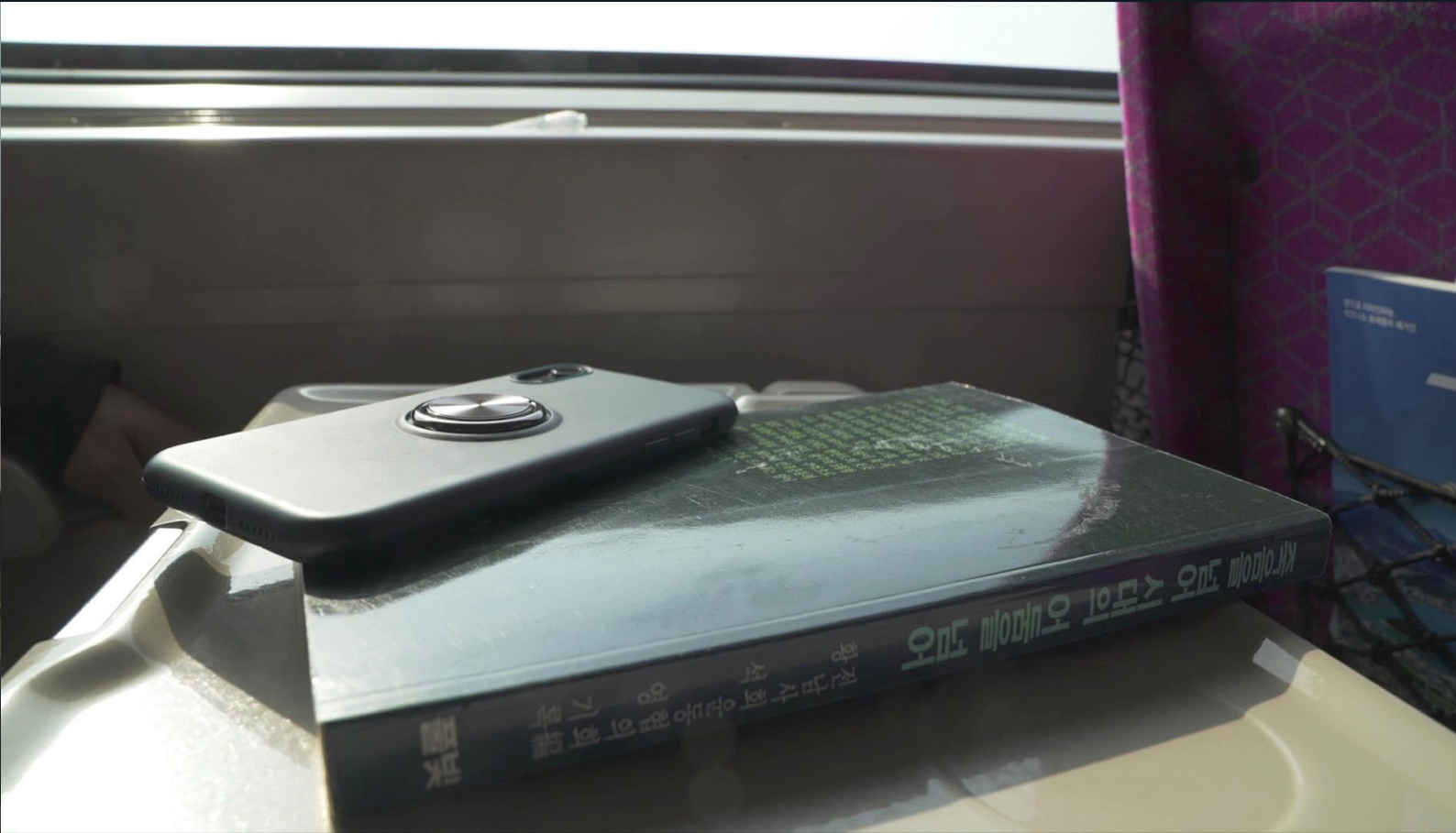
다시 캄캄한 어둠이었다

항쟁의 피로 물든 아침이 밝아 왔다. 마침내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서 마지막 시민군들이 두 손을 쳐들고 나왔으며, 150여 구의 시체와 부상자가 두 트럭에 나뉘어 실려 나왔다. 생존자는 도청 방황자, 총기 소지자, 특수 폭도로 분류되어 군부대로 이송되었다.

시민군 생존자들은 묶인 채 트럭에 실려 가면서 어둠 속에서 쓰러져 가던 동료들의 최후를 머리에 떠올렸다.

The morning was streaked with the blood of the uprising. Finally, the last rebel surrendered and walked over his dead comrades’ bodies. The injured and more than a hundred and fifty bodies were taken away from Kwangju in two transports. Survivors were to be farmed out to military prisons after classification: “loiterer around Province Hall,” “weapon possessor,” and “special member of the mob.”

As the survivors were bound and loaded into the trucks, the images of their fallen comrades, those who had died in the darkness, burned in their minds, haunting their memories forever.



우리는 항쟁이 끝나고 나서 여섯 달 지난 뒤부터 재난의 폐허 속에서 눈물을 씻으며 살림 도구를 찾아 채기는 심정으로 각종 자료와 체험담,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그러모으기 시작했다.

사실은 그대로 옮겨놓되, 사망자와 부상자 또는 실형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만 구체적 활동상과 인적 사항을 밝히기로 했고, 그 외에는 군중 속의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사망자의 정확한 숫자, 피해의 진상, 계엄 당국의 작전 내용 등등의 많은 부분은 그쪽 자료의 입수가 여의치 않아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원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 영어판 『광주 일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99)

Quotes from the first edi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1985)
and the English edition of *K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1999)

After the uprising it took six months for us to start to gather up documents and eyewitness statements; we felt like survivors of a disaster, in tears as they search among the ruins of their homes for the necessities of life.

In telling the truth of what happened, we determined to reveal personal data and activities only in the case of those deceased, injured and convicted and maintain anonymity for the rest. There were limitations on access to many documents: for instance, accurate records related to the death toll, the aftermath, and the military government’s tactics.



프롤로그:
말하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Prologue:
Untold Story of the Day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났던 열흘간의 항쟁이 진압된 후,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입에 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물론 5월 광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나왔고 이는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유족들을 비롯한 이른바 ‘피해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피해자’들 못지않게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김의기, 김종태, 홍기일, 김태훈, 송광영, 장이기, 표정두, 황보영국, 박래전, 김병구 등이 ‘광주학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이나 투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할 진실이 있음을 가리키는, 그 자체로 증언 행위였다.

그러나 분신과 투신은 진실이 침묵과 미지의 영역에 있음을 ‘음성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 진실을 ‘말하는’ 데에 이르지는 못했다. 누군가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바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야 했지만, 이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The ten-day uprising that took place in Gwangju between May 18 and 27, 1980 was completely suppressed. Still, no one was able to bring up the subject of the events. Nonetheless, the story about Gwangju was slowly released, mostly by the bereaved families and survivors before anyone else.

There were also righteous people endeavoring to disclose the truth of Gwangju: Kim Uigi, Kim Jongtae, Hong Gil, Kim Taehun, Song Gwangyeong, Jang Igi, Pyo Jeongdu, Hwangbo Yeongguk, Park Raejeon, and Kim Byeonggu are among them. They demanded a new inquiry into the massacre and the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deaths and injuries. Some set fire to themselves or jumped to their deaths. These extreme actions were testimonies to the truth they had to tell even at the expense of their own lives.

However, these self-sacrifices were regarded as an ‘unofficial’ way to argue that a truth was still concealed within silence and secrecy. They did not succeed in ‘telling’ the truth. It would have been helpful to convince other people if there was someone to speak out about what they had seen and heard. But it is not easy even now.

“침묵은 광주를 탄압하고 방조한 사람들만의 몫은 아니다. 군사정부의 탄압은 차치하고 5·18 당사자나 목격자 치고 언어의 좌절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습에 ‘이게 꿈이나 생시냐’며 서로 껴안고 치를 떨며 울부짖었다.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엄청난데 말하려 하면 가슴의 응어리에 숨이 막히고, 담배 몇 대를 피워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을 것이다.

어렵사리 꺼내고 나면 그 말은 너무나 싱거워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증언했지만 그들이 겪은 현실에 비해 언어는 너무나 싱겁고 왜소했으리라... 아직도 광주와 5·18은 고독과 침묵에 싸여 있다.”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2012)

“Oppressors and abettors were not only people who had been silent. Besides the military government’s crackdown, many survivors and witnesses would have experienced the bitter taste of the inadequacy of language. What happened right before the eyes of Gwangju citizens was a complete outrage. They wailed and trembled, holding onto each other. They had to endure the overwhelming event. Speaking about it, they would have a tightening feeling in their chest and be at a loss for where to start even after smoking several cigarettes. There were many people who showed great courage by providing their testimonies. However, some might have determined never to speak about it again after finding words too trivial, inadequate to express the true facts of what happened. [...] Gwangju and the Uprising are still shrouded in solitude and silence.”

— Choi Jung-woon, *Social Science of May* (2012)



“잊그제만 하더라도 인산인해를 이루어 민주화를 외치던 도청 앞 광장은
계엄군의 발걸음만이 부산할 뿐이다.
도로의 핏자국도, 학살의 흔적도,
그 피비린내를 지우기 위해 소독차가 동원되고 있다.”

— 출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의거자료집2: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1987)

1980.5.26. 20:00 죽어야 할 이유와 살아야 할 이유

1980년 5월 26일 저녁 8시 즈음, 오후에 열린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가 끝난 후 ‘끝까지 도청을 지키자’며 남은 사람들은 이백여 명이였다. 대개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노동자들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들이 막강한 화력을 갖춘 계엄군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윤상원 민주투쟁위원회 대변인은 고등학생과 여학생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했다.

“여러분들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어른들이 해야 합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격한 이 장면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다 죽었는지 역사의 증인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May 26, 1980 8:00 pm The Reason to Die, The Reason to Live

The fifth Citizen’s Rally for democracy ended around 8 pm on May 26, 1980. Over two hundred people stayed. Mostly students and young workers, they resolved to defend the Provincial Office to the end. It seemed obvious that this group of people could not defeat the heavily armed troops. Yoon Sangwon, a spokesperson for the Struggle Committee strongly advised high school students and young women to return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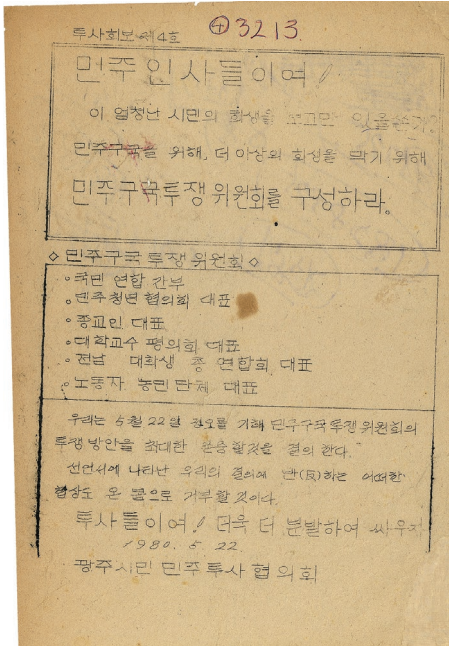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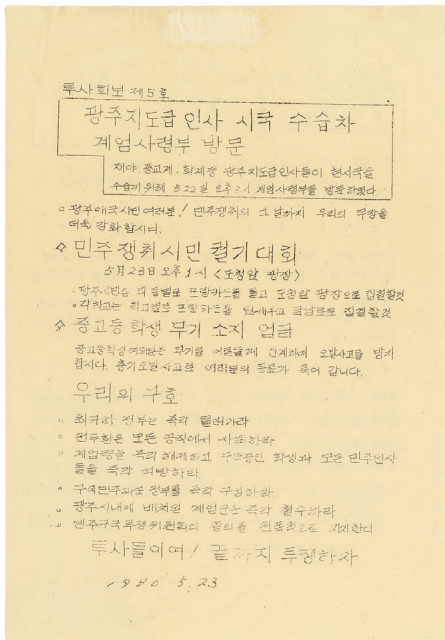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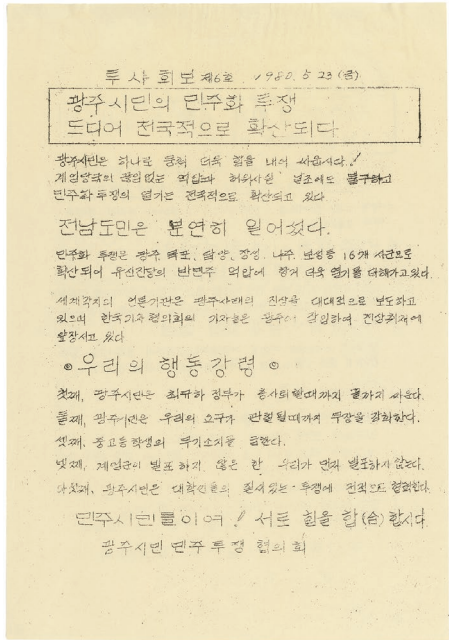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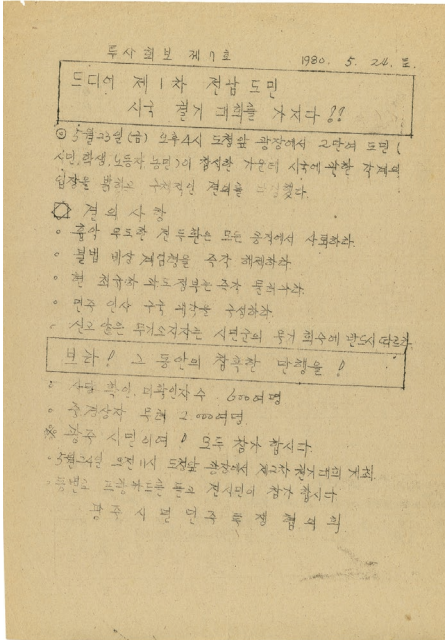
“I know your hearts, but this is a fight for older people. You young students must survive and tell the rest of people the truth of what you saw today. Please leave and survive to be a witness to history, to how we fought to the last.”*

* 황석영·이재의·전용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2017, 창비), 407쪽.

Hwang Sok-yong, Lee Jae-eui, Jun Yongho, the revised edi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2017, Changbi Publishers, Inc.), p.407.

「투사회보」 4, 5, 6, 7호 (1980.5.22.-5.24.)

Militants’ Bulletin nos. 4, 5, 6, 7 (May 22-24, 1980)



1980년 5월 22일부터 윤상원 등 ‘들불야학’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투쟁을 고무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배포한 유인물.「투사회보」는 첼필로 쓴 글씨로 조악하게 인쇄되었지만, 사태의 추이에 관한 소식에 목말라하던 시민들에게 반갑기 그지없는 ‘대안 언론’이었다. 5월 26일에 배포된 「투사회보」 9호는 제호를 ‘민주시민회보’로 바꾸었다. 민주시민회보 10호는 인쇄되었으나 모두 압수당해 배포되지 못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1980.5.27. 01:30 인생 끝나부렀다!

“5월 27일 새벽 1시 반 정도 되니까 사방에서 막 총소리가 들려요. ‘인생 끝나부렀다!’ 그렇게 YWCA에서 나와서 전일빌딩을 돌아 고개를 숙이고 꼭 도둑질 하러 가는 듯이 옆드려서 도청 앞까지 갔죠. 전남도청으로 총을 받으러 갔을 때 무기고에서 윤상원 형이 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내가 가니까 총을 안 줘요. ‘너 총 쓸 수 있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아, 장난해요 형님! 방아쇠 당기면 나가니까 그냥 주쇼!’ 그랬죠. 그런데도 안 줘요, 내 뒤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실랑이를 했는데, 인간적인 갈등을 하는 게 형님의 눈빛과 표정들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진지해지기 전에 내 특유의 장난기가 발동됐죠. ‘아 주쇼, 이 양반아. 걱정 말고 주쇼, 안 죽을랑께! 형이나 조심하쇼. 형이나 조심해. 나 갈랑께.’ 그렇게 말하고는 내가 총을 채서 빼앗았어요. 그때 형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죠. 30년이 넘었어도...”

— ‘들불야학’ 나명관의 구술 (2011)*

May 27, 1980 1:30 am My Life Is Over!

“It was May 27. Around half past one in the morning, I heard the sound of gunfire coming from every direction. I thought, ‘Is my life really over?’ I promptly got out of the YWCA. Crouching like a thief in the night, I passed Jeonil Building and rushed into the Provincial Office to get a gun. When I arrived at the Office, Yoon Sangwon was distributing guns. [...] But he didn’t want to give me a gun. He asked ‘Do you know how to use this?’ ‘You are kidding me! I just need to pull the trigger. Don’t worry about it,’ I replied. He was still reluctant. There were a number of people lining up to receive a gun after me. We scuffled a bit. I read the conflict in his face. I thought, it would be better not to take too long. Giving him a mischievous smile, I said, ‘Hey, my friend, don’t worry, I will survive. You, take care of yourself.’ Then I snatched a gun. I can still clearly recall his face at that moment, although it has been more than thirty years.”

— Oral testimony of Na Myeonggwon, student at the Wildfire Night School (2011)*

* 5·18기념재단, 『2011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권(2011), 508쪽.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Research Reports on the Collection of Oral Testimony Materials of the Gwangju Uprising*, volume 2 (2011), p.508.



© 이창성, 5·18기념재단 제공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1980.5.25.)

Why We Had to Carry a Gun? (May 25, 1980)

우리는 왜 종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3次 5.25

— 시민권대권

먼저 이광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다 목숨을 바친 시민 ~~들~~ ^{국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왜 충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인생을 대이심 보고왔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쏘나섰던 것입니다.

● 본인의 알기로는 우리학생들과 시민들은 과외정부의
그그집내 좀대반파, 또 작제라고 관망하라는
말을 받고, 학생들은 19일 부터 학업에, 시민들은
생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1978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연사, 정치인들, 도무지 믿을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 모두는 의아해 했습니다.

또한 18일 아침에 각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박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쏘고 "동적윙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의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경찰~~ 정부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 이럴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명캠퍼스는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는 대양 투입하며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
하였으니!

아! 설마! 설마! 설마! 설마했던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무한히 대검이 찔리고, 귀를 찔리고,
선악한 아녀자들이 갖가지 ~~악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도 잔인한 만행을 저지렸습니다.

또한 나중엔 인연이, 공작은 ~~이름을~~ 계획적으로
경상도 출신 공수병 들은 수십하며 지역감정을 ~~지~~ 증폭시킬
이름에게

하였으며 더군다나 이념들을 3원식이니 높이고, 더더군다나
속과 공본제를 복용시켰다 합니다.

시민여러분!

너무나 경악스러운 편지이니 사실은, 200밤부터
계임영씨는 발표영령을 내려 무차별발판을 시작
했단말 것임니다.

이장공을 지키고자 이자리에 모이신 인주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고 쉬습니디! 우리는 더이상 할수 없는 것있습니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고집을 지키고 우리유형제를
지키고자 ~~이제~~ 손에 손에 힘을 들였던 것습니디!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북을 때, 폭으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인목이란 개념을 몰랐었던 제민석이 똑똑니까?
여군장모 지~~도~~ 귀찮았던 나날 우리시민석이 똑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계속 허위사실으로 유권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음처럼.

시/문 여하부!

우리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것입니다!

또한 점심에 올리는 방향대로 진행되면 루니는
극락 향을 놓겠답니다.!

일부에서 우리 시민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시민회는 절대로 시민

여러분을 이롭게 하려 합니다.

민주주의의 열매!

우리 시민들은 절대 믿어주시고, 적응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7⁶ 12사 3월 4일.

1980. 5. 25

시환 일음

1980년 5월 25일 광주 시민군 대표 명의로 발표된 성명문.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공수 부대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광주 시민들에게 ‘무장’은 상황 전개에 따른 당연한 논리였다. 그러나 5월 25일은 수습이나 항쟁이냐의 갈등 속에서 무장의 정당성이 의심된 시점이었고, 다시 시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시민군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1980.5.27. 02:30 전남도청 마지막 방송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2시 30분쯤, 계엄군의 마지막 진압 작전이 임박했던 전남도청에서 박영순은 마지막 방송을 내보냈다. 새벽 정적을 깨뜨리면서 날카롭게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는, 당시 집안에서 숨죽이며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깊은 부끄러움의 상처를 남겼다. 이 마지막 호소의 핵심은 모두 밖으로 나와 계엄군에 맞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끝까지 남아 싸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진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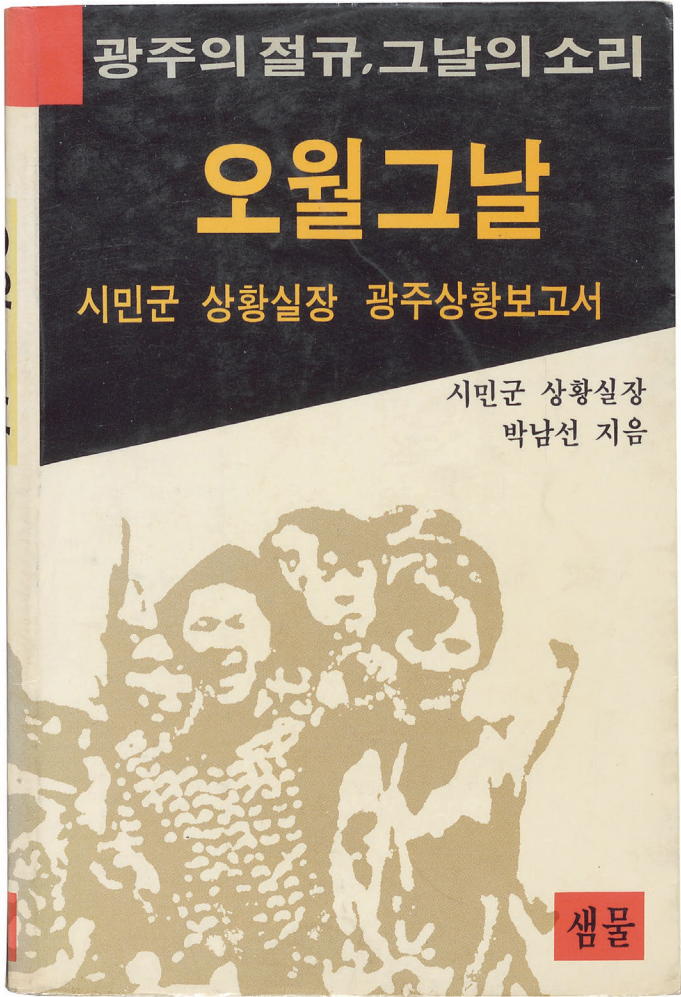
May 27, 1980 2:30 am The Last Announcement at the Provincial Office

“Citizens, the martial law army is re-entering the city. Our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are being killed by the swords and guns of the army. We will fight to the end. We will defend Gwangju. Please remember us. We have resolved to fight to the last. Citizens, the army is coming.”*

Around half past two in the morning, on May 27, 1980, Park Yeongsun broadcast her last speech at the Provincial Office. The army’s final operation was imminent. Breaking the silence of dawn, her voice clearly echoed through the city. Hidden in their houses and straining to hear the last announcement, people felt ashamed and remembered that moment for a long time. What she was really pleading for was not that people come together to defeat the army but that they ‘remember’ the protestors’ truth - why they stayed and fought to the end.

* 황석영·이재의·전용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2017, 창비), 418-419쪽.
Hwang Sok-yong, Lee Jae-eui, Jun Yongho, the revised edi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2017, Changbi Publishers, Inc.), pp.418-419.

『오월 그날: 시민군 상황실장 광주상황보고서』(1988)
The Day in May: Gwangju Situation Report Written by a Chief Operations Officer of the Citizens’ Army (1988)



- 지은이: 박남선
- 펴낸이: 이재천
- 펴낸날: 1988년 12월 20일
- 펴낸곳: 도서출판 샘물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 총사령관 격이었던 박남선의 광주항쟁에 대한 기록. 박남선은 윤상원 등과 함께 전남도청에 남아 항쟁을 마지막까지 이끌었다. 그는 이 책에서 1980년 5월 27일 최종 진압 작전 당시의 헬기 사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 전용호 소장



1980년 6월 1일 광주 시내에서 촬영한 국정 홍보용 방송이다.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하고 학교와 관공서는 정상 운영 중이며 거리는 아름답게 가꾸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면서, 밝고 질서 있는 광주시 및 광주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정책방송원(KTV) 소장

2.

광주를 넘어, 국경을 넘어

Beyond Gwangju, Beyond Borders

유언비어와 진실 사이에서

1980년 5월 19일. 전날 벌어진 공수 부대의 만행에 대한 소문이 밤사이 광주 전 지역에 퍼졌고,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공수 부대원에게 환각제를 먹였다’ ‘독한 술을 먹였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씨를 말리러 왔다’는 등 믿지 못할 풍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물론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또 일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비어’가 신빙성 있게 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공수 부대의 진압 행태가 ‘뜨거운’ 정신으로는 할 수 없을 ‘상식 밖의’ 만행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광주항쟁 당시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광주에 와 있던 팀 원버그(Tim Warnberg)는 몇 년 후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일단 항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어떤 소문들이 진실이고 어떤 소문들이 거짓인지를 알기란 정말 어려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이 처음에 잔인한 만행을 목격한 터라, 들리는 소문 모두를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소문들이 진실이라고 여겨졌다.”*

Between Truth and Groundless Rumors

May 19, 1980. Overnight in the city, rumors rapidly spread about the brutality of the martial law army paratroopers. Some rumors were unlikely to be true, claiming that: “The paratroopers had hallucinogens or hard liquor,” “The paratroopers are all from the region of Gyeongsang-do and they came to wipe out Jeolla-do.” Some are quite far from the truth, and with others it is hard to know whether or not they are true. Nonetheless, such groundless rumors were believed by Gwangju citizens. What is clear here is that the government army acted like someone who had lost their mind, dealing with its own people so irrationally.

Tim Warnberg who happened to be in the city as a volunteer for the U.S. Peace Corps during the Uprising, looked back on the event several years later and wrote: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옮기고 있는 팀 원버그와 광주 시민들 (1980.5.19.)
Tim Warnberg and citizens transferring an injured person on a stretcher (May 19, 1980)



© 나경택, 5·18기념재단 제공

“Once the uprising was underway, it was really difficult to know what was happening, who was in control, and which rumors were true and which were not. One thing, however, was clear: most people witnessed enough brute force initially to automatically believe everything they heard. All rumors were assumed to be true.”*

「신부 6·수녀 1명 연행 조사: 유언비어 조작·국내외 유포 혐의」, 『경향신문』 (1980.7.12.)

“Six Catholic Priests and One Nun Arrested: Under Suspicion of Making and Spreading Rumors at Home and Abroad,” *The Kyunghyang Shinmun* (July 12, 1980)



1980년 7월 12일, 계엄사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허위 사실을 유인물로 제작·배포한 혐의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등 7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요 혐의는 「광주사태: 어느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녹음테이프 등을 제작, 일본 등지로 전파하여 국가 위신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 팀 원버그, 「광주항쟁: 목격자의 견해」, 『한국학』 11권(1987), 36쪽.

Tim Warnberg, “The Kwangju Uprising: An Inside View,” *Korean Studies*, volume 11 (1987), p.36.

The Kwangju Uprising: An Inside View

Tim Warnberg

The Kwangju Incident of May 1980, although one of the crucial events in the post-Korean War history of South Korea, remains a subject of great controversy and confusion. A variety of contradictory accounts and analyses of the incident have appeared, but a day-by-day recounting of the uprising, drawn from previously unpublished eyewitness accounts, contradicts both the official government report and many of the contemporary press accounts. The experiences of eyewitnesses, including Peace Corps volunteers and resident missionaries, suggest that the events in Kwangju represented an indigenous, immediate response to military and police violence, rather than a planned provocation manipulated by outside political forces. The incompatibility of these eyewitness accounts with the Korean government report, as well as the reluctance of the government to respond at all, reflects a lack of clarity surrounding the Kwangju incident which will ensure its continuing impact on the contemporary political scene in Korea, and establishes the need for an even-handed report and analysis of the incident incorporating all available information and accounts.

On May 18, 1980, what began as a small and, by Korean standards, relatively routine demonstration in the city of Kwangju, population 800,000, Cholla province, developed into a violent confrontation with the military which resulted in a large number of civilian and military deaths and caused repercussions that are still evident on the political scene today. Since that time a number of attempts have been made to clarify exactly what occurred and why. The official version put forth by the Korean government is decidedly different from versions published by a number of human rights groups in and out of Korea. As a Peace Corps volunteer (PCV) in the city of Kwangju who witnessed the uprising, I will present an account of the incident based on previously unpublished eyewitness reports which may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vents that transpired. Although in previous reports the number of deaths is one of the main points of contention, the focus and intent of this article will not be to take sides in that dispute. Rather,

Copyright (c) 2006 ProQuest Information and Learning Company
Copyright (c) University of Hawaii Press

5·18 당시 광주에서 평화봉사단원(Peace Corps Volunteer)으로 활동했던 팀 원버그가 1987년에 발표한 논문으로 『Korean Studies』에 실려 있다. 이 논문을 작성할 당시 그는 하와이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다. 비교적 초기에 영어로 쓰인 광주항쟁 관련 글 가운데 “더 나은, 보다 조리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목격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개인 소장

* 마크 피터슨, 「미국인들과 광주사태: 역사 기술의 문제」, 도널드 클락 엮음, 『광주항쟁: 한국 정권에 드리워진 그림자』 (1988, Westview Press), 55쪽

Mark Peterson, “Americans and the Kwangju Incident: Problems in the Writing of History,” in Donald N. Clark (ed.), *The Kwangju Uprising: Shadows over the Regime in South Korea* (1988, Westview Press), p.55.

through eyewitness accounts, I will present a picture of the initial confrontation and subsequent events that eventually led to a full-scale armed revolt, and I will compare these accounts with the official government version and press reports. In light of their continuing impact on Korea today, there remains a need for a discussion of the events and of the government's handling of the situation.

Background to the Uprising

Two facto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wangju uprising. The first is regionalism. The Korean landscape is remarkable for the many mountain ranges that crisscross and divide the countryside. Kyongsang and Cholla Provinces, two major regions in South Korea, are bisected and separated by one such mountain range. By making travel difficult and impeding social and economic intercourse, the mountains have helped to foster and preserve a regionalism that the introduction of modern communications has only recently begun to alleviate.

Regionalism in Korea has its origin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when Cholla was part of the kingdom called Paekche and Kyongsang was part of the Silla kingdom.¹ After centuries of internecine wars, the peninsula was finally united in the tenth century under the tutelage of the Koryo dynasty. Koryo began a patter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Paekche region by assimilating the ruling aristocratic class of Silla, which had peacefully surrendered, into its governing structure while using much harsher methods to subjugate Paekche, which had resisted integration to the end.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regionalism played a role in the groupings and regroupings of the literati factions, and in more recent times, evidence of regionalism can be found in the loyalties of the communist and nationalist movements.² As a result of thes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factors, Cholla and Kyongsang have developed rather distinct dialects and characteristics.

In modern Korea, this regionalism still flares up and is manifested in its better form in good-natured but heated athletic rivalries. More serious social manifestations can be seen in the reluctance of the people from the two regions to intermarry. Koreans throughout the nation have very strong stereotypes regarding the people from these two areas. Kyongsang people are described variously as loyal, aloof, cliquish, manly, stubborn, and rough in manner and language. Cholla people are frequently called two-faced, conniving, uncooperative, brutish, opportunistic, and uncouth, as well as intelligent and artistic.³ Although the rivalry between the two provinces is usually good-natured and cordial,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is mutual distrust can turn ugly. In addition, these strong regional sentiments are further aggravated by the fact that the nation's political power rests with a clique that for the last twenty-six years has been drawn largely from Kyongsang Province

Copyright (c) 2006 ProQuest Information and Learning Company
Copyright (c) University of Hawaii Press

Kims—Kim Yŏng-sam, Kim Dae Jung, and Kim Jong-pil.¹³ General Chun, meanwhile, continued to consolidate his own power and by April 1980 was head of the Korean CIA and military intelligence.¹⁴ The students were becoming increasingly restless and vocal, and by April were demanding an immediate end to martial law and the removal of Chun, who was widely believed to be the power behind acting-president Ch'oe Kyu-ha.

Throughout April and into early May demonstrations increased in scope, number, and degree of violence. On May 15, approximately one-hundred thousand students demonstrated in the streets of Seoul, as the students had set noon the previous day as the deadline for the end of martial law. Though eyewitness accounts generally agree that the demonstration was peaceful at first, it quickly degenerated into violence and finally resulted in the death of a policeman when a bus was commandeered and driven into police lines.¹⁵

Friday, May 16, and Saturday, May 17, were relatively calm, as the student leaders had agreed to call off street demonstrations.¹⁶ Meanwhile, sometime in the week prior to May 18, the military had apparently decided to make their move. On May 16, Dr. and Mrs. Betts Huntley, missionaries in Kwangju affiliated with Kwangju Christian Hospital, reported that they were unable to buy bus tickets to Taejŏn because the army had bought the entire supply. They took the train instead, only to find a train and a station packed with soldiers. They later learned that the troops were being moved around the country in preparation fo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t midnight Saturday, May 17.¹⁷

Keeping this volatile political situation in mind, as well as the latent regional hostility, let us now turn to the events of May 18, 1980. In Korea, important events are remembered by their dates and 5/18 has come to symbolize what is known as the Kwangju Incident. What follows is a day by day recounting of what happened from May 18 to May 27, drawn entirely from the personal accounts, including my own, of Peace Corps volunteers who witnessed all or part of the incident, and other accounts from several American missionaries who were living in Kwangju at the time.

Daily Account of the Kwangju Incident

Once the uprising was underway, it was really difficult to know what was happening, who was in control, and which rumors were true and which were not. One thing, however, was clear: most people witnessed enough brute force initially to automatically believe everything they heard. All rumors were assumed to be true. Throughout the ten days the prevailing mood was one of apprehension; everyone wondered what was going to happen and what was going on at any given moment throughout the city. That the situation eventually became an acute

Copyright (c) 2006 ProQuest Information and Learning Company
Copyright (c) University of Hawaii Press

(presidents Park and Chun), while the most prominent opposition leader of the last fifteen years is from Cholla Province (Kim Dae 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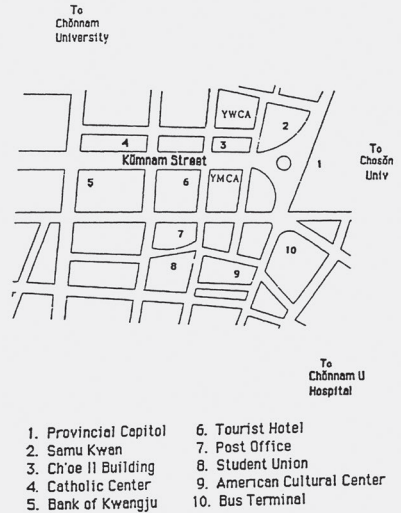
The second important underlying consideration in any analysis of the events of that May is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months preceding the Kwangju Incident. The generally confrontational political scene in Korea had become even more so in the latter half of 1979 and through the early months of 1980. With the rise of Kim Yŏng-sam as leader of the New Democratic Party and his dramatic and unexpected (by the ruling party) victory as head of the opposition,⁴ the stage was set for the events of the next twelve months. When the ruling party, charging him with “antistate remarks,” forcibly expelled Kim from his seat in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5, 1979,⁵ it set off a chain of events that had such a drastic impact on the Korean political scene that it is still being felt today. On the day of his ouster Kim himself predicted,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is crime will receive the judgement of the people.”⁶

Following Kim's ouster there was a series of violent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in Pusan and Masan, two cities in Kim's home province of Kyongsang, that resulted in the government declaring limited martial law.⁷ In the ensuing debate over how to deal with the rising popular support for the antigovernment movement, Kim Chae-kyu, head of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 took matters into his own hands and assassinated his longtime superior, President Park Chung Hee, on October 26, 1979. In the following day's paper a small picture of General Chun Du Hwan appeared, identifying him as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assassination.⁸ Within two months Chun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Army Chief of Staff and Martial Law Commander Chong Sung-hwa was implicated in Park's death and on December 12, 1979, he moved against him in what has come to be known as the 12/12 Incident.⁹ Chun used his Capital Garrison Command and troops commanded by classmates from the Korea Military Academy, including new President Roh Tae-woo, to overpower the marine units defending General Chŏng. Chong was arrested and convicted. The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William Gleysteen, cabled Washington that “Park loyalists opposed to political liberalization have staged a coup.”¹⁰

Nevertheless, following the 12/12 Incident there was a definite move toward liberalization. The far-reaching emergency decrees of the Yusin constitution¹¹ were dismantled, students were released, and opposition leaders had their civil rights restored, including the perennial opposition leader Kim Dae Jung. The atmosphere in Korea in early 1980 was one of guarded optimism; people openly discussed Korea's political future and debated the merits of the three undeclared candidates in the promised presidential elections,¹² the so-called three

Copyright (c) 2006 ProQuest Information and Learning Company
Copyright (c) University of Hawaii Press

Kwangju City--Downtown



Copyright (c) 2006 ProQuest Information and Learning Company
Copyright (c) University of Hawaii Press

푸른 눈의 목격자들: 위르겐 힌츠페터

국내 언론이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던 광주항쟁 당시, 가장 먼저 광주의 소식을 세계에 알린 것은 외신이였다. 독일 제1공영방송 아시아 특파원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 프랑스 르몽드 기자 필리프 풍스(Phillippe Pons), 미국 뉴욕타임스 서울 주재 기자 심재훈 등이 광주 상황을 재빨리 한국 밖으로 타전했다.

5월 20일 오전 광주에 도착한 힌츠페터는 광주 현장을 필름에 담았고, 다음날 오후 그 필름을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본사에 보내기 위해 무려 스물 두 시간에 걸쳐 검문을 뚫고 서울을 거쳐 일본 도쿄까지 직접 가지고 갔다. 필름만 넘겨주고 5월 23일 광주로 돌아온 그는, 그때부터 계엄군이 물러간 이후까지의 시민군 활동과 궤기대회 등의 장면을 찍었다. 1987년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른바 ‘광주비디오’도 그가 찍은 영상을 기초로 편집한 것이었다.

5월 23일 뉴욕타임스와 르몽드에 광주 소식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전 세계 언론이 파견한 기자들이 광주로 몰려왔다. 그들은 편견 없이 광주의 소식을 전달했고, 이는 해외 여론을 움직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Witnesses with Blue Eyes: Jürgen Hinzpeter

The international press first exposed the Gwangju Uprising to the world, not the local media which were being heavily censored by the military junta. Jürgen Hinzpeter, a reporter with the East Asia branch of the German broadcaster ARD-NDR, Phillippe Pons, a reporter for *Le Monde*, and Shim Jaehoon, a Seoul based correspondent for *The New York Times* were among the first foreign correspondents who covered the democratic Uprising.

Jürgen Hinzpeter arrived in Gwangju on the morning of May 20 and filmed what was happening in the city. Next day, in the afternoon, after being questioned, he flew to Japan via Seoul to send his film to Hamburg in Germany. It took him 22 hours. As soon as he had handed over the film, he returned to Gwangju on May 23. He documented the Citizens’ Army’s activities and citywide rallies after the martial law army was withdrawn. The so-called ‘Gwangju video’ which became a catalyst for the June Uprising of 1987 was mostly edited from footage shot by Hinzpeter.

힌츠페터와 동료들 (1980.5.)

Hinzpeter and his colleagues (May 1980)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녹음 담당 헤닝 루모어(Henning Rumohr)가 전남대학교 부속 병원 옥상에서 네 명의 평화봉사단원과 인터뷰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힌츠페터, 루모어, 주디스 챔벌린(Judith Chamberlin), 팀 원버그, 폴 코트라이트(Paul Courtright), 데이비드 돌린저(David Dolinger).

— 출처: 위르겐 힌츠페터, 이재익, 5·18기념재단

Gwangju came to the attention of the global media when *The New York Times* and *Le Monde* reported on May 23 breaking news about what had happened. News crews from different media around the world came to the city and delivered what they witnessed. This largely helped to convince public opinion overs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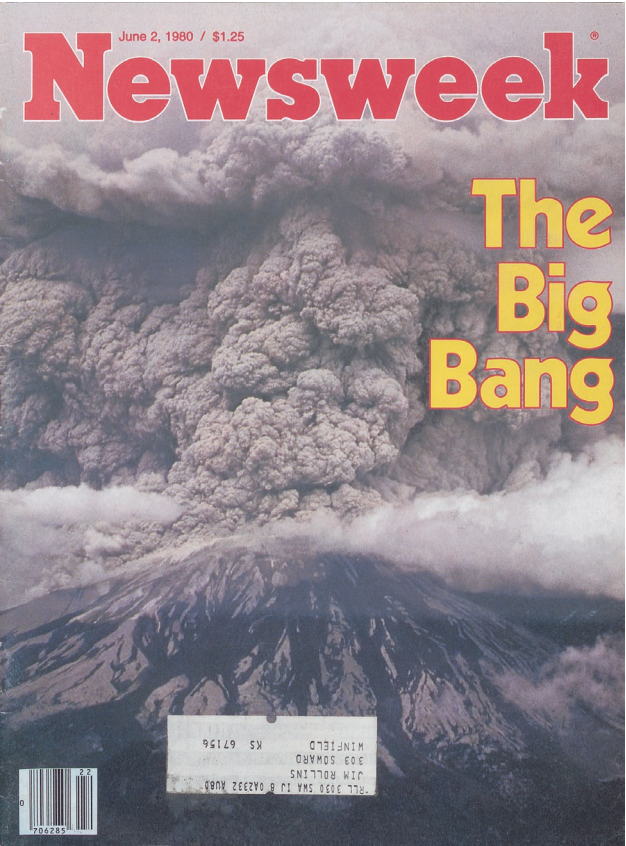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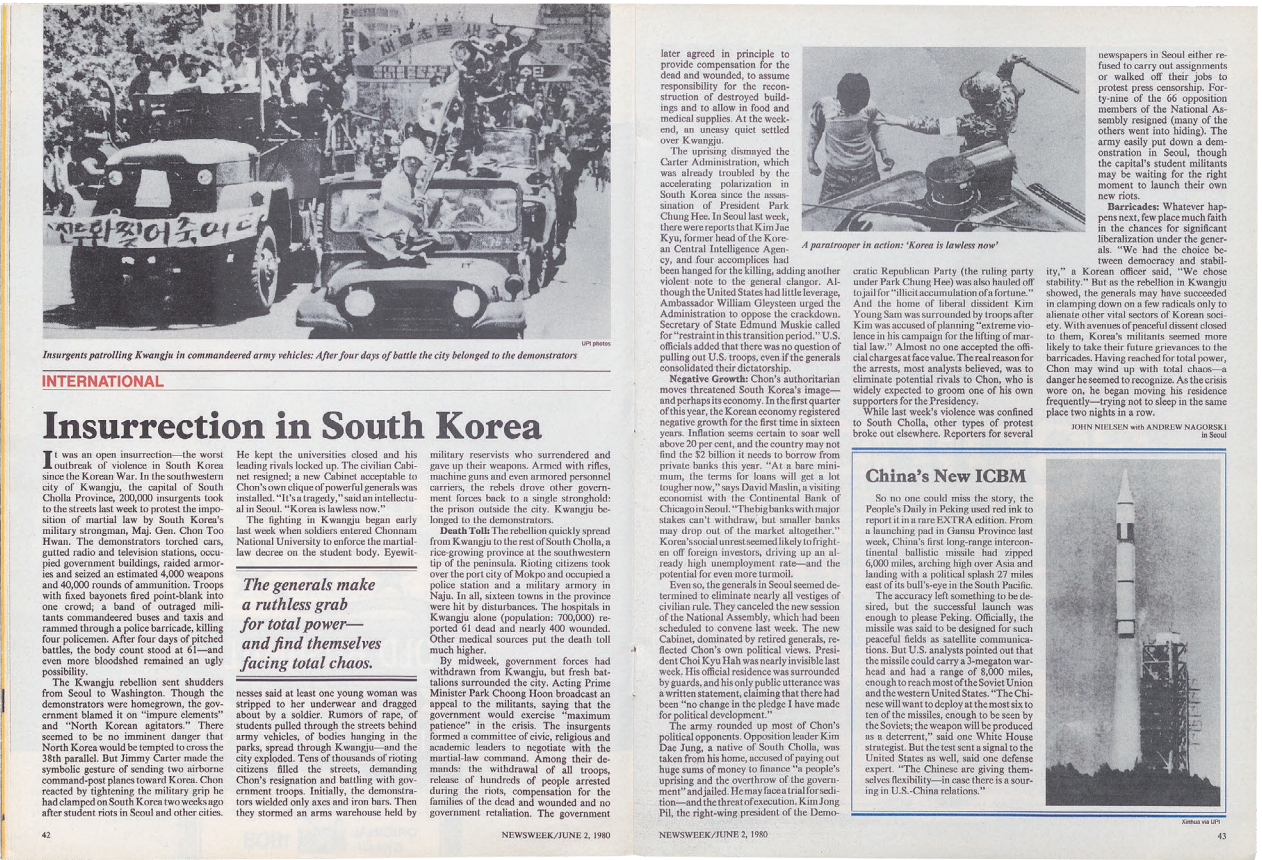
힌즈페터가 찍은 사진 (1980.5.)

A photograph by Hinzpeter (May 1980)



1980년 5월 23일 광주로 다시 들어온 힌즈페터가 촬영한 시민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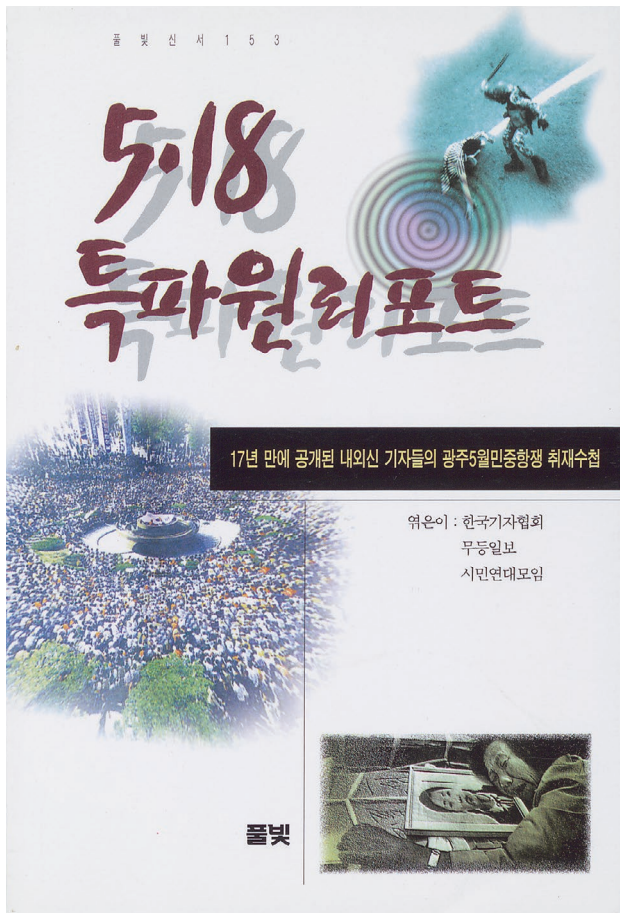
— 출처: 위르겐 힌즈페터, 이재의, 5·18기념재단



1980년 6월 2일에 발행된 『Newsweek』 국제판.
불행히도 우리 국민은 여기에 실린 한국 관련 기사를 원문 그대로 읽을 수 없었다.
“찢기고, 검은 철이 된 외신은 언론을 통제와 검열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두환 신군부의 행태를 입증하는 증거다. 집권 정당성이 취약했던 신군부는 외신의 통제되지 않은 관점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국내 언론은 사전검열을 통해 좌지우지했다. 편집권을 건드리기 어려운 외신은 사후검열로 비판의 흔적을 지운 것이다.”
[외신이 전한 ‘12·12’ ‘5·18’ 한국 도서관엔 없다], 경향신문 2018.11.1.)

— 개인 소장

『5·18특파원리포트』(1997)
Correspondents' Report on the May 18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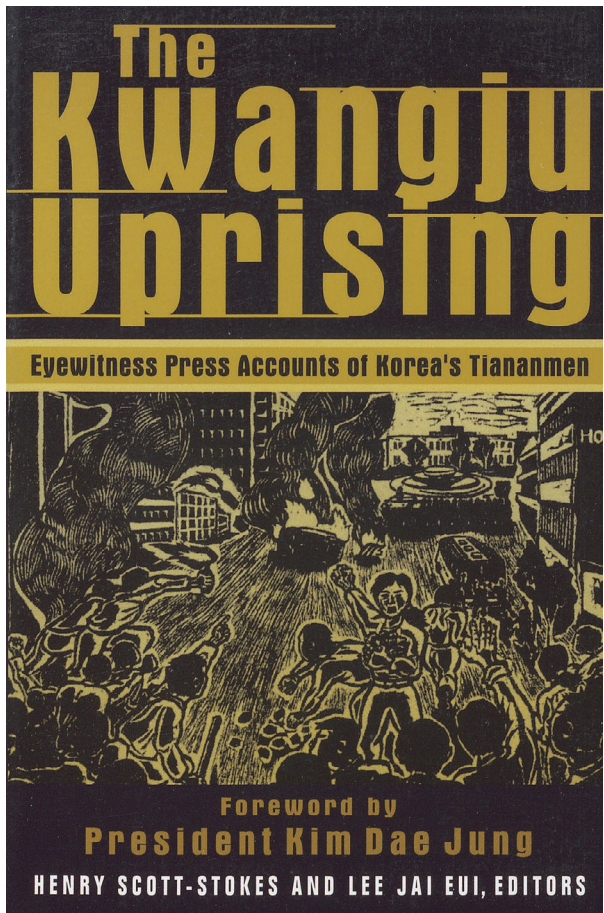


- 엮은이: 한국기자협회, 무등일보, 시민연대모임
- 펴낸이: 홍석
- 펴낸날: 1997년 5월 10일
- 펴낸곳: 도서출판 풀빛

‘17년 만에 공개된 내외신 기자들의 광주5월민중항쟁 취재수첩’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1980년 5월 광주를 현장 취재했던 외신 기자의 증언 모음집이다. 1980년 당시 독일 ARD-NDR TV의 카메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뉴욕타임스 특파원이었던 헨리 스콧-스톡스(Henry Scott-Stokes)와 심재훈, AP통신의 테리 앤더슨(Terry Anderson)과 샘 제임슨(Sam Jameson), 볼티모어 선의 브래들리 마틴(Bradley Martin) 등 8명의 외신 기자와 오효진, 김충근, 황종건 등 9명의 국내 언론사 취재 기자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직접 겪은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현장 취재 기자는 누구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당사자로부터 독립된 냉철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기에 더욱 값진 증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머리말』에서)

— 이재의 소장

『광주항쟁』(2000)
The Kwangju Uprising (2000)



- Editor: Henry Scott-Stokes, Lee Jae-eui
- Publisher: M.E. Sharpe
- Publication Date: 2000

『5·18 특파원리포트』의 영문판. 광주항쟁을 7년 뒤 중국에서 일어난 톈안먼(天安門) 사건에 비긴 부제 ‘Eyewitness Press Accounts of Korea’s Tiananmen’를 달고 있다. 영문판에는 필리프 풍스 등 한글판에서 빠졌던 몇몇 기자의 원고가 추가되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문과 이재의와 헨리 스콧-스톡스의 에필로그 등이 새로 실렸다.

— 이재의 소장

푸른 눈의 목격자들: 아놀드 피터슨

당시 광주에 거주하던 해외 선교사들과 평화봉사단 활동가들의 노력도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남침례회 선교사로 5·18 당시 광주에서 사역하던 아놀드 피터슨(Arnold Peterson)은 1980년 5월 26일 미국 CBS 기자와 한 인터뷰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전파를 탄 사실을 회고하며, 현대 통신의 경이로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미국 CBS 방송사의 기자가 오전 9시 30분쯤에 헨틀리 선교사네 집으로 왔다. 그는 우리가 다 같이 카메라를 향해 직접 녹화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자주 도시 주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나에게 쏟아졌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현 소요의 근본적 원인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군인들의 비행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에 나는 우리의 인터뷰가 불과 22시간 후인 오후 6시에 미국 CBS 저녁 뉴스 시간에 방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명 녹음된 테이프가 직접 인편으로 서울로 이동되어서 도쿄까지 전달되고, 도쿄에서 위성으로 미국으로 보내진 것이다.”*

Witnesses with Blue Eyes: Arnold Peterson

Missionaries and volunteers for the U.S. Peace Corps who happened to be there at that time played a pivotal role in revealing the truth of Gwangju. Arnold Peterson, a U.S. Baptist missionary, was among them. Peterson recalled the fact that a CBS reporter interviewed him on May 26, 1980 and it aired across U.S. within one day. Amazed by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he said:

“A CBS news crew came to the Huntley house at about 9:30 a.m. and asked us to do an on-camera interview as a group. We consented. Inasmuch as I had been out and around the city more than had the others during the week, many of the questions were directed to me. As a group, those of us present affirmed that the root cause of the present disturbance was the misconduct of the military, not the students. [...] This CBS interview was an object lesson in the marvels of modern communications. The interview concluded about 10:00 a.m. on Monday, May 26 in Kwangju. [...] I later learned that portions of the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5·18 진상 증언 기자회견 (1995.5.11.)

Arnold Peterson speaking of what happened during the Gwangju Uprising in a press conference (May 11,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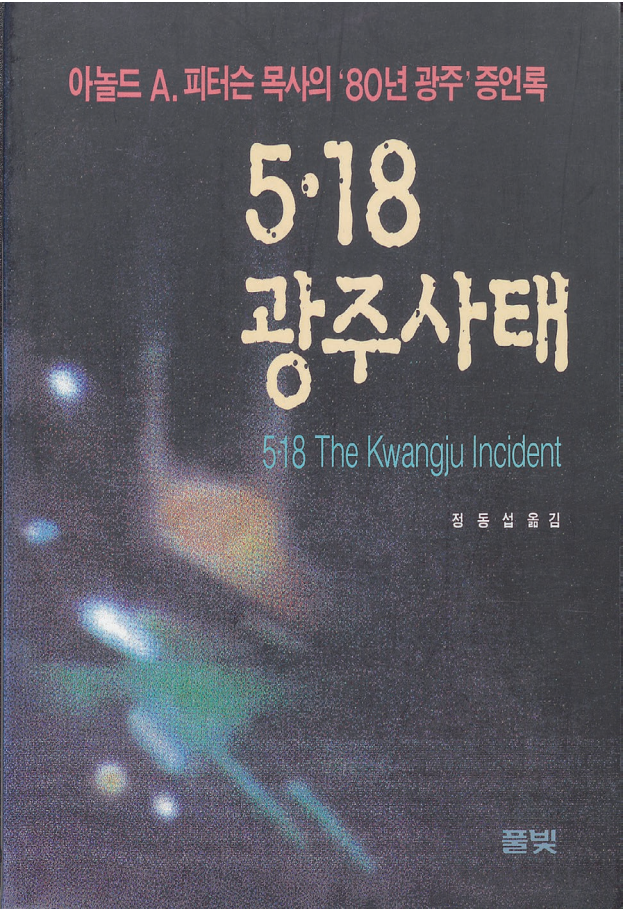


— 출처: 경향신문

interview were broadcast on the CBS Evening News in the USA at 6:00 p.m. on Monday, about 22 hours after the interview occurred. Apparently the tape was hand carried to Seoul and then to Tokyo where it went by satellite to the USA.”*

* 아놀드 피터슨, 『5·18 광주사태』(1995, 풀빛), 152쪽, 236-237쪽.
Arnold Peterson, *5-18 The Kwangju Incident* (1995, Pulbit Books), p.152, pp.236-237.

『5·18 광주사태』(1995)
5-18 The Kwangju Incident (1995)



- 지은이: 아놀드 피터슨
- 옮긴이: 정동섭
- 펴낸이: 홍석
- 펴낸날: 1995년 5월 10일
- 펴낸곳: 도서출판 풀빛

1995년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광주항쟁 체험 수기 출판은 ‘광주 폭격 계획’과 ‘헬기 사격’ 의혹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였다. 이 수기는 피터슨 목사가 광주항쟁 당시 자신의 체험과 주변의 목격담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같은 해 5월 11일 그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 등 피의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7월 1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이 사안은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묻히게 되었다. 최근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져 2017-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이어졌다. 영어 원문이 부록으로 들어 있다.

— 전용호 소장

푸른 눈의 목격자들: 헌틀리 부부

광주의 진실이 알려지는 데에는 오랫동안 한국의 인권운동에 동참해 온 광주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월요모임(Monday Night Group)’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또는 다른 선교사들이 촬영한 사진을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로 전했고, 직접 목격한 광주의 진실을 가감 없이 알렸다.

“장로교 선교사인 마사 헌틀리(Martha Huntley)와 찰스 헌틀리(Charles Betts Huntley)는 한국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을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가지고 나갈 방법에 대해 세밀하게 지시하여 해외로 반출하려고 했어요.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사진들을 공항에서 압수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사진을 광주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월요모임 회원인 매리언 커런트(Marion Current)는 휴가차 캐나다로 돌아갈 때 짐 안에 몇 장의 사진들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죠. 총으로 사살된 사람들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는 일부러 매리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공항에서 조사를 받아도 그녀는 누가 그 사진을 찍었는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죠.”

— 월요모임 회원인 매리언 포프의 증언 (2005)*

Witnesses with Blue Eyes: Martha Huntley & Charles Betts Huntley

Foreign missionaries in Korea who had worked for human rights movements as well as Seoul-based Monday Night Group missionaries helped significantly in spreading the truth of Gwangju. They took risks in order to send photographs abroad, documenting the situation and telling the truth as they had witnessed it.

“Many photos were taken during this time by Koreans and others. Presbyterian missionaries Martha and Betts Huntley tried to send photos with someone who was leaving Korea, with strict instructions about how to get them out safely. Unfortunately, the person wasn’t able to comply with their instructions, and the photos were confiscated at the airport. Little by little, however, others were able to get photos out of the city. Monday Night Group member Marion

마사 헌틀리,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장로교 서베이』(1982.3.)
Martha Huntley, “Should We Tell You about This?,” *Presbyterian Survey* (March 1982)



이 글은 광주항쟁 당시 광주기독교병원 원목을 지냈던 찰스 헌틀리의 부인인 마사 헌틀리가 미국의 개신교 장로교단에서 발간하는 잡지인 『Presbyterian Survey』 1982년 3월호에 기고한 에세이이다. 광주항쟁 2년 뒤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이 겪은 ‘사태’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 글에서 헌틀리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독재를 겪고 있는 많은 개발 도상국 시민들의 보편적인 아픔이며,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 이런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증언하여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Current was able to take some in her luggage when she returned to Canada for a short trip. The photos were of people shot by bullets that fragmented into many pieces once they entered the body. The photographer’s identity was purposely not revealed to Marion, so that if she were questioned at the airport she could honestly say she didn’t know who had taken the pictures.”

— Oral testimony of Marion Pope, Monday Night Group member (2005)*

* 편집자들, 『1979~80: 폭력이 극에 달하고 독재정권이 약화되기 시작할 때』, 짐 스텐즐 엮음, 『시대를 지킨 양심: 한국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나선 월요모임 선교사들의 이야기』(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24-425쪽
The Editors, “1979-80: When Violence Peaked and Dictatorship Began to Crumble,” in Jim Stentzel (ed.), *More Than Witnesses: How a Small Group of Missionaries Aided Korea’s Democratic Revolution* (2006, Korea Democracy Foundation), p.502.

the government and since May of 1980 most of the members of that church have eaten only one meal a day as they pray and fast for this cause.

My husband, a hospital chaplain, saw victims of the war daily. One of our seminary students was killed, a number of our Bible students were wounded, a great many of our friends were in prison and their families desperately needed help. A large number of groups—mostly



Christian—came in a steady stream to investigate what had happened in Kwangu and how another such tragedy could be prevented. We helped them with housing, food and translation. When we did leave for home last summer, scores of people pleaded with us: “Please tell people what happened here. Tell them how your government has not helped, and what they could do to help us. Ask them to pray for us. We can’t talk; you must talk for us.”

Sent as missionaries to Kwangu, we had become people of Kwangu too. We have seen too much, we have hurt too much to be silent.

Then the shock came. As a missionary on home assignment, I have been working partly with Presbyterian Survey and partly with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Mission, so I have had access to the

missionary letters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I have found that what happened in Kwangu was not an isolated incident—not a historical quirk—but a common and widespread occurrence, part of an epidemic of outrage and terror.

PCUS mission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writing to witness to the brutality around them. Listen:

From Zaire: “Kinshasa has been very troubled this month. Hundreds and hundreds of older boys and men have been rounded up by the police and forced into government service. An effort was made to get those who are unemployed. Those weighing over 148 pounds have been forced into military service and those weighing under 148 pounds have been sent to the region of Lower Zaire to work in the fields. Many people have been afraid to leave their houses. Often, when I pass the military prison, there are women outside crying and wailing because their sons and husbands have been taken. Two weeks ago some women were beaten in front of my house. There is no freedom of speech in Zaire. A person can even be arrested for complaining. People have been arrested for saying things like, ‘Life surely has gotten tough in Kinshasa.’”

From El Salvador: “Catholic and Protestant Christians are more united in the wake of the assassination of several pastors and priests. Extreme suffering has brought Christians closer to God and each other and has taught them that faithful discipleship can be a truly costly affair. A Baptist and member of a wealthy family, Carmen doesn’t have to stay and face 1001 nights of terror. ‘I don’t want to leave. My life is in danger every day, but I know God has not forgotten our desperation to be free. I must be a part of whatever happens.’ I asked Carmen if she had a message for American Christians. She said, ‘Look for alternative sources of information on what is happening here in El Salvador. It’s the military against the whole population—not just the leftists. The soldiers are kill-crazy. We need you to stand with us. Speak up for us. Regardless of what it implies, take your stand on biblical justice. And please pray for us all.’”

From Taiwan: “With elections coming up, the church will be watched very closely to see that its members do not cause any interference with the elections. They will not, of course, because this is not the kind of thing they do, but if it is deemed necessary, they could be accused of such. The church here is concerned that the human rights of all be honored and it seeks to help those who are presently not enjoying those rights.” (Also from Taiwan, in the November 1981 issue of Survey was a story by

PCUS missionary Cary Whallon describing how a friend of hers became a Christian after the tragic murder of her mother and 7-year-old twin daughters and the imprisonment of her husband as an act of government reprisal.)

From Mexico: “Many of you are familiar with our concerns about the U.S. government’s present involvement in Central America, particularly the support of repressive military governments



Left: Halls in Kwangu Christian Hospital were crowded with patients during the civil strife there. Above: Baton-swinging police went after students in Kwangu, Seoul and other cities when they rallied to demand an end to martial law in their country. Right: Many who escaped physical injury during the violence were grief-stricken. “Tell people what has happened here,” they begged missionaries.

in El Salvador and Guatemala. Since the present Salvadoran Junta’s takeover in October 1979, church and human rights agencies have denounced that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most barbaric torture imaginable and the murder of approximately 30,000 people. In January a group of us organized the Ecumenical Committee of U.S. Citizens in Mexico. On the date of his inauguration, an open letter to President Reagan, signed by 40

of us (mostly Protestant and Catholic missionaries), explained our opposition to U.S. military assistance to the Junta, the persecution and assassination of thousands of innocent civilians including church leaders like Archbishop Oscar Romero, support for the Mexican government’s position on non-intervention, and our conviction that present policy would seriously damage U.S. relations throughout Latin America, the Third World and

most of Europe. Since the open letter, the committee has sent three additional mailings with translated articles and documents to approximately 550 contacts in the U.S. We have given local press and radio interviews, spoken to English-speaking church groups and participated in local solidarity events. This is in addition to our assignment with the Protestant Commiss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our

volunteer work with North and South American prisoners. But for most of us, nothing of our work and witn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se efforts to help fellow Christians in the U.S. review their faith and discipleship in the light of the conflict, suffering, oppression and faith of people in this part of the world.”

A fellow PCUS missionary on home assignment, Bob Armistead (who has been 16 years in Mexico and Ecuador) responded to the call of the Evangelical Committee for Development and Emergency in Honduras shortly before Christmas. This organization asked that North American Christians come as an international witness and peacekeeping presence to help secure the safety of Salvadoran refugees located at La Virtud, Honduras, to prevent Salvadoran troops from raiding the camps to kidnap and kill their countrymen. Armistead was in the second delegation to go to Honduras. He was telling us of his experiences there at a Division of International Mission meeting in Atlanta the day after his return when he was called to the telephone. He was told that the Honduran Catholic relief worker who had been his guide and had become his close friend at the camp had been assassinated shortly after he left.

The Maryknoll nun I spoke of earlier said that El Salvador is not an isolated horror story but part of a worldwide pattern including Korea, Africa, Guatemala, Poland and many other nations. I know of no PCUS missionaries who have sought out these confrontations or who are agitating for revolution. But as these notes indicate, everywhere our missionaries are, they are getting caught up with the people in their hopes and dreams and lives. And so much of that life today is violent, an assault by totalitarian governments of right or left. When your friends and Christian coworkers are carted off to jail as ours have been, when your neighbors and your students are shot in front of your eyes as ours have been, when you attend 24 funerals in a single day as I have done—you are involved. This involvement is not politics; it is gospel. As eyewitnesses, we feel it is urgent that we share what we have seen and experienced. There is no way our government can respond properly if it doesn’t have the facts; neither can our church work or pray effectively if it doesn’t know the truth. Telling what we have seen is not “talking politics”; it is giving testimony to the universal need for the gospel. ■

Martha Huntley is a PCUS missionary and journalist working part-time for Survey as a missionary-in-residence with the Mission Board staff.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

유신 체제의 긴급 조치로 집회 및 정치 활동이 금지되자, 국내 활동이 쉽지 않았던 재야 세력과 사회 운동 단체들은 해외의 후원 조직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의 인권 상황과 정치 현실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했고, 후원망이 속한 국가의 정부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개발 도상국의 인권 및 정치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유럽 등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종교 단체 특유의 도덕적·인적 결속력은 이러한 초국적 연대 활동이 성장하고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는 한국의 인권 개선과 정치 발전을 후원하기 위한 압력 단체와 비정부 기구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단체들은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과 통제 정책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광주항쟁의 진상을 비롯하여 한국의 인권 탄압 사례를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나갔다. 또한 미국 정부와 의회, 유엔 등의 국제기구,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 관련 국제 NGO는 물론 한국 정부에도 압력을 행사하여 한국의 인권 개선과 정치 발전을 촉구했다.

Transnational Connection

As rallies and political activities were banned by martial law, NGOs and civic groups sought other supporters outside Korea. They disseminated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human rights and politics in Korea through established networks and tried to put pressure on the Korean government vi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governments.

Such efforts were made around the U.S. and Japan, both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in Europe which showed a keen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politics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Protestants and Catholics were highly involved in these issues. Bringing together their members and their trust in solidarity, these religious communities provided a foundation for transnational connection and activities to continue and grow.

Pressure groups and NGOs in the U.S. and Canada also extended a number of activities to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린다 존스
Linda Jones arranging materials to donate to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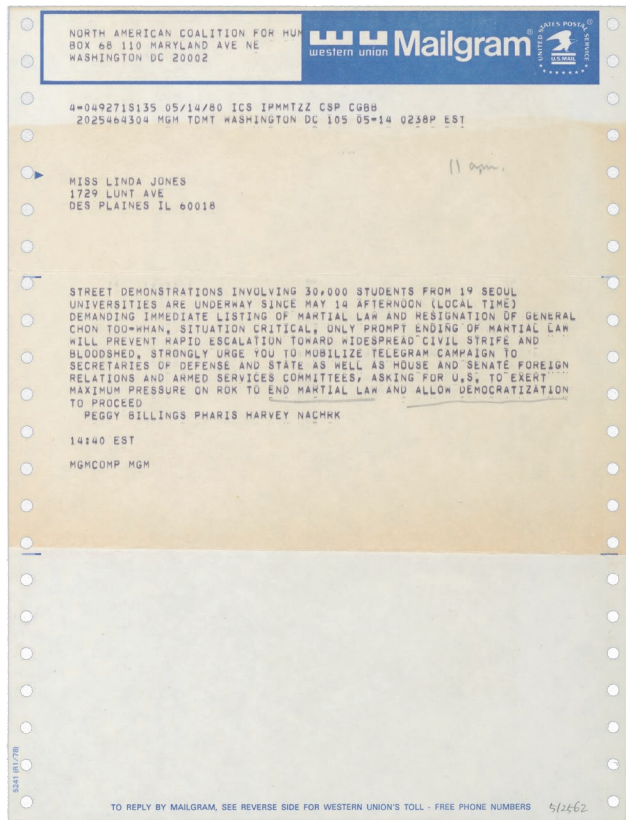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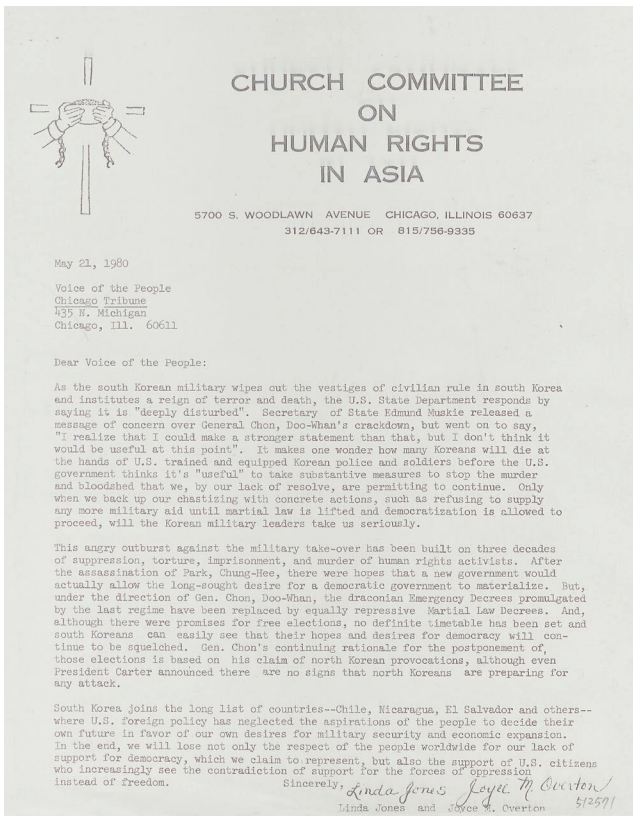


—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romote human rights and support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 These organizations enthusiastically engaged in uncovering the true facts of the Gwangju Uprising, concealed by the dictatorship and press censorship, as well a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Korea. They called for human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politics in Korea by pressing not only the Korean government but also the U.S. government and Congres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and human rights NGO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린다 존스 컬렉션

Linda Jones Collection



1971년 기독교 장로교 선교사로 남편과 함께 한국에 파견된 린다 존스는 월요모임의 회장으로로서 한국의 인권 자료들을 극비리에 일본으로 보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세계에 알렸다. 또한 1973년 2년간의 선교 임무를 마치고 미국 시카고로 돌아간 뒤에도 아시아교회인권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린다 존스는 자신이 수집하고 정리한 한국 활동 관련 자료들을 200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 이 컬렉션 안에는 월요모임 회원들의 해외 활동이 광주항쟁 당시와 이후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었고, “한국의 민주화가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동참한 전 세계적 프로젝트”*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왼쪽: 린다 존스가 받은 광주항쟁 관련 편지(1980.5.14.). 광주항쟁 이전 한국의 집회 상황을 알리는 전보 메시지이다.
오른쪽: 린다 존스가 1980년 5월 21일에 『Chicago Tribune』의 ‘Voice of the People’에 보낸 편지.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미국 시민에게 알려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 「한국 민주화를 위해 눈물 흘린 '파란 눈'들」, 한겨레신문 2007.6.3.

3.

진실을 향한 오디세이:
『넘어 넘어』

An Odyssey to Truth: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불온’한 자료들

해외에서는 광주항쟁 관련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 빠르게 전해졌지만, 한국 사회 내부의 상황은 달랐다. 열흘간의 항쟁이 진압된 후 수백 명의 사람이 잡혀갔고, 몇 년간 깊고 무시무시한 침묵이 1980년 ‘광주사태’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짓누르고 있었다.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가 암암리에 돌아다녔지만, 출판사와 인쇄소에 압력을 가하고, 서점을 급습하고, 교회나 대학교 학생회실 또는 운동 단체 사무실 등에서 광주와 관련된 ‘불온’ 자료를 몰수하는 것이 1980년대에는 흔한 일이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탄압은 전두환 정권에서 훨씬 심해졌다.

또한 1980년대에는 한국 밖의 학계에서도 광주 문제를 대면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어려웠다. 당시 정치 평론가와 학자들, 그리고 ‘친한파’ 해외 인사들이 전두환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설명이 없던 상태에서 단지 더 편하다는 이유로 ‘광주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으로도, 위협으로도, 폭력으로도 침묵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Seditious’ Materials

While news of the Gwangju Uprising quickly spread overseas through international media coverage, the local scene in Korea was entirely different. After the ten-day uprising was repressed by government forces, hundreds of people were arrested. Deep and fearful silence obscured the meaning of the democratic uprising for years even though some stories about Gwangju were secretly passed around. In the 1980s, the government suppressed publishers and printers, and frequently made surprise inspections of bookshops, churches, student union rooms in universities, and civic group offices. It seized ‘seditious’ materials concerning Gwangju. Chun Doo-hwan’s dictatorial regime severely restricted freedom of the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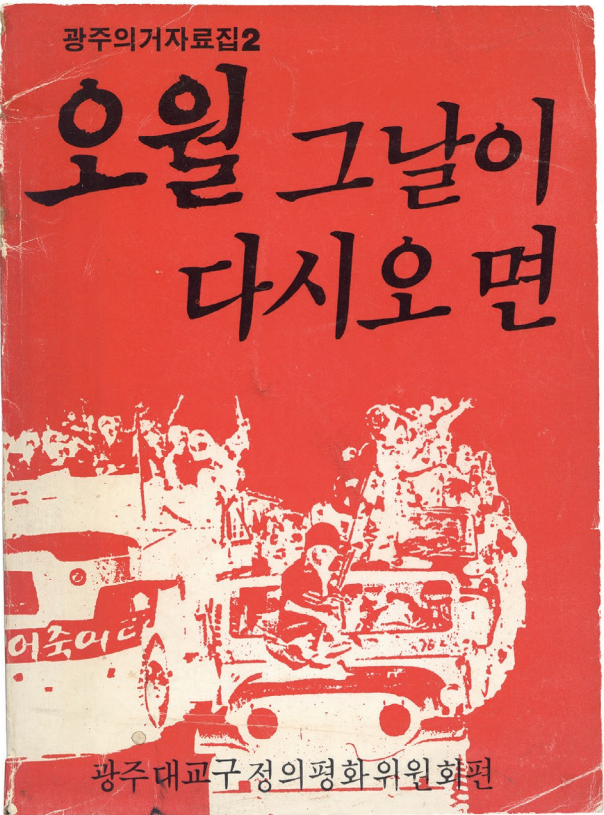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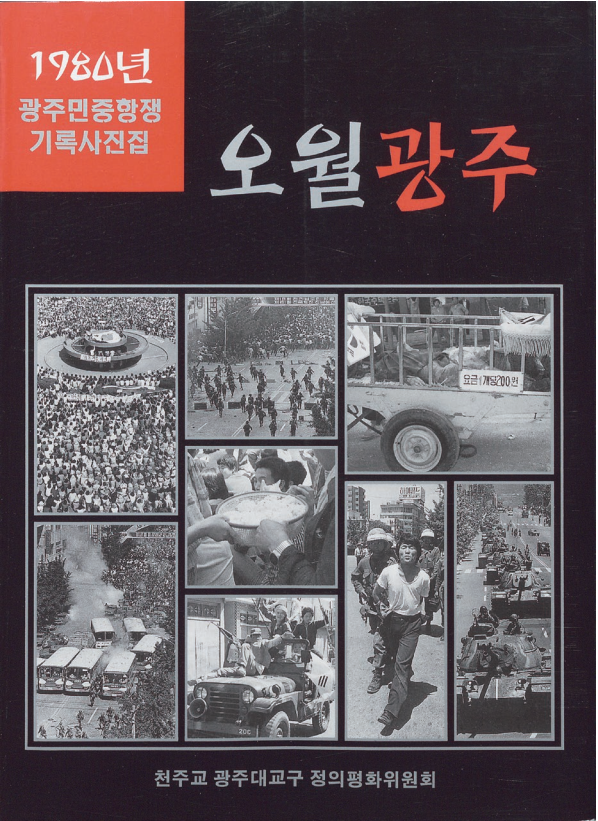
It was not easy to publicly discuss the issues of Gwangju at that time even in the academic world outside Korea. There were many political commentators, scholars and friendly foreign forces who paid close attention to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military junta in Korea. However, since no ‘reliable’ explanations for the Uprising were available, the false narrative alleged by the junta gained credibility for the sake of convenience. Even so, no law, threat, or violence could enforce utter silence.

『광주의거자료집2: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1987)

Collected Materials on the Gwangju Uprising 2: May, When the Day Comes Again (1987)

『1980년 광주민중항쟁기록사진집: 오월 광주』(1997)

A Book of Photographs Documenting the Gwangju Uprising in 1980: Gwangju in May (1997)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서 가톨릭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980년 6월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을 발표하여, 공수 부대의 만행을 고발하고 투쟁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이 높은 시민 정신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광주민중항쟁자료집’이라는 형태로 사진자료집과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했고, 사제들의 체험담 등을 펴냈다. 물론 이러한 자료집들을 만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정의평화위원회는 광주항쟁 당시 가톨릭교회의 활동을 소개한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여』를 1985년에 만들면서 제본소에서 자료를 경찰에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은 뒤, 중고 제본기를 구입해 광주대교구 청사 지하 주차장에서 초판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직접 제작했다.

— 개인 소장, 전용호 소장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985년 출간된 이래 십여 년 동안 광주항쟁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보고서였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초고를 집필했던 이재의는 당시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또다시 구속을, 또다시 고문을, 또다시 수감 생활을 각오해야만 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내 아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 있었고, 그러면 결혼 생활도 파탄 날 터였다. 심지어 구속되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뒤틀림질 치고 있었다.”*

동료들과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쓰는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정부의 감시를 피하려고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소리가 새어 나갈까 봐 담요로 창문을 가리고 글을 써야 했다. 심지어 당국의 급습에 대비해 가족들 사이에 암호를 마련해 두기까지 했다.

실제로 『넘어 넘어』를 인쇄한 출판사는 1985년 5월 아직 제본도 안 된 책들을 모조리 빼앗겼고, 출판사 대표와 대표 작가로 이름을 올린 이는 체포되었다. 이 책의 시중 판매는 1987년이 되어서야 가능해졌다.

Belling the Cat

Since its publication in 1985,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has been one of the most trustworthy reports concerning the Gwangju Uprising. Lee Jae-eui, the author of the book, once described the fear and dread that he had felt while writing the first draft:

“By taking up the secret plan, I had to risk another arrest, more torture, more time in prison. My mind was paralyzed with fear. My wife would be fired from work, and our marriage would be ruined; I could even be arrested, tortured, and killed. I nearly balked.”*

He had to move his base often to avoid surveillance while collecting materials with his colleagues and writing. He covered every window of his room with blankets in order to prevent typewriter sounds from escaping. He even made a secret code to communicate with his family in case of a raid by the authorities.



— 이재의 인터뷰 영상 (2019)
Interview with Lee Jae-eui (2019)

In fact, in May 1985, all the printed pages were seized just before they were to be bound into books. The head of the publishing house and the person whose name was on the cover as the representative author were arrested. The sale of the book was prohibited and only became possible in 1987.

* 이재의, 『광주 일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99, UCLA), 12쪽
Lee Jae-eui, *K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1999, UCLA), p.12.

“1985년 내가 광주항쟁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을 당시 전두환 군사 정권은 아직도 서슬이 시퍼런 때였다. 모든 정치적 회합은 금지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잡혀갔다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어떠한 출판 행위도 철저히 금지당했다. 당연히 ‘광주항쟁에 대한 진실’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형태로 이야기되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광주항쟁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일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과 같았다.”

— 이재의, 「서문」, 『광주 일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99)

“When I decided to write a report on the Kwangju Uprising in January 1985, the Chun Doo Hwan military regime was still deadly. All political meetings were banned; many people were arrested without warrants and later found dead. Any publication criticizing the Chun Doo Hwan regime was completely banned. Of course, “the truth about the Kwangju Uprising” was told in an incomplete and distorted way. Given the conditions, documenting the uprising was like belling a cat.”

— Lee Jae-eui, “Author’s Preface to the English Edition,” *K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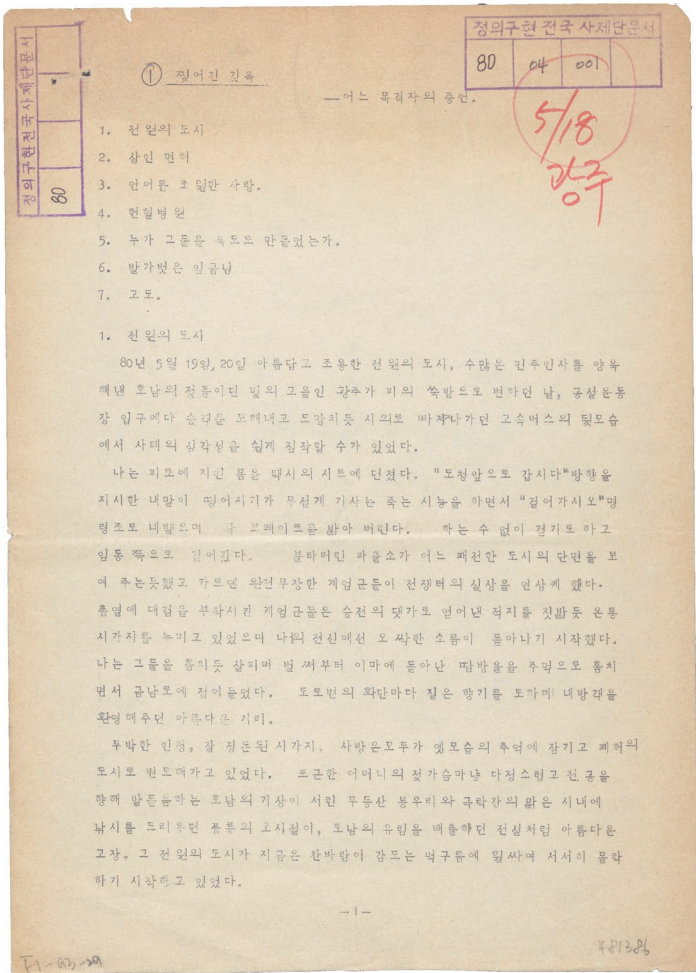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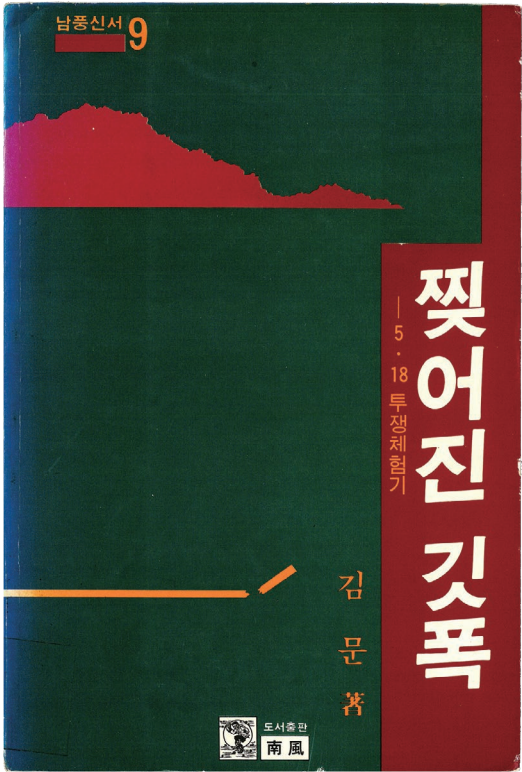
진실을 향한 오디세이, 첫걸음을 내딛다: 『넘어 넘어』가 나오기까지

5·18을 기록하기 위한 노력은 1980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누구도 광주항쟁 전체를 알 수 없었기에 우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부터 모아야 했다. 정용화, 조봉훈, 소준섭 등이 초기 작업을 주도했는데, 수집한 자료에는 광주항쟁 당시 개인들이 써 둔 목격담, 일기, 수기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기록, 재판 기록,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료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던 1981년 3월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그해 4월 초 광주항쟁 관련자들 상당수가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고, 이들이 참여하면서부터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항쟁 참여자들의 구술 증언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An Odyssey to Truth, The Beginning: The Publica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The effort to document the Gwangju Uprising only began in the end of 1980. Chung Yonghwa, Jo Bonghun and So Junseop were among those who led the initial work. They searched for any existing materials which could help them to grasp the events as fully as possible. The materials included personal notes and diaries, photographs, medical charts, trial records and so on. Martial law was lifted in March 1981 and subsequently those who had been imprisoned for the Uprising were released in early April. It gave fresh momentum to collecting evidence. Testimonies from survivors and eyewitnesses were of great help in better understanding what had happened during the Upr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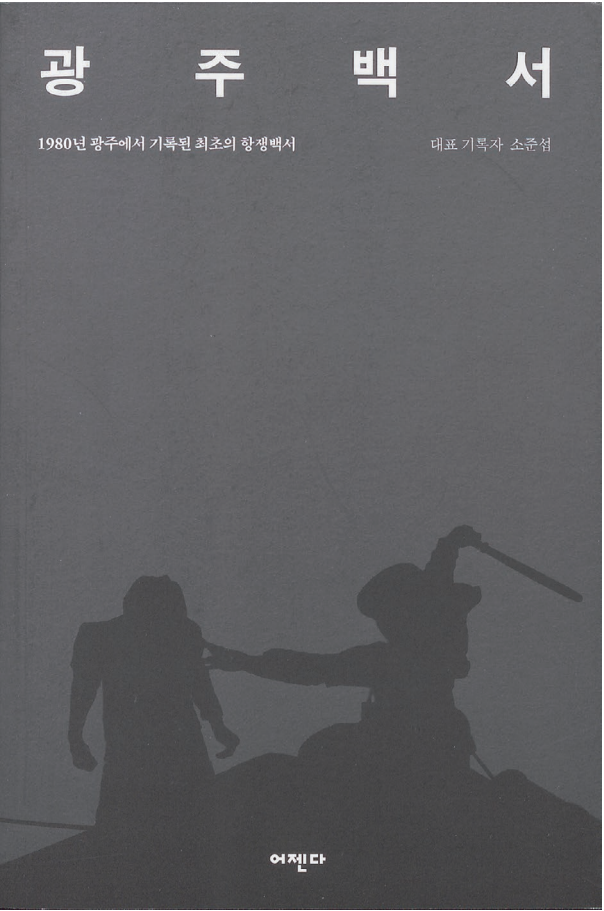
「찢어진 깃폭」 유인물 (1980)과 단행본 (1989)
Leaflets (1980) and a book of *The Torn Flag* (1989)



광주항쟁 직후인 6월에는 5·18의 진실에 대한 여러 유인물들이 나돌기 시작했고, 이 유인물들은 1980년 5월 31일 계엄사령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찢어진 깃폭: 어느 목격자의 증언」도 그중 하나로서, 이 수기는 필자인 김문(본명 김건남) 자신이 겪은 바를 반추하면서 그때 당시의 감정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문은 1980년 6월 3일 이 글을 명동성당에서 낭독하기도 했다. 1989년 단행본으로 정식 출판한 『찢어진 깃폭: 5·18 투쟁체험기』는 1980년에 유인물로 나온 원래의 수기 내용을 확장해서 다시 쓴 것이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

『광주백서: 1980년 광주에서 기록된 최초의 항쟁백서』 (2018)
Gwangju Report: The First Report on the Uprising Written in Gwangju, 1980 (2018)



- 지은이: 소준섭
- 펴낸이: 김지훈
- 펴낸날: 2018년 1월 10일
- 펴낸곳: 도서출판 어젠다

‘광주백서’는 원래 1982년에 42쪽짜리 유인물로 배포되었다. 소준섭은 수집된 자료와 증언 가운데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거나 사실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배제하고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들을 중심으로 광주사건을 정리했다. 조봉훈을 통해 만난 신영일, 노준현, 김상집, 전용호 등 광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1981년 5월경 200자 원고지 500매 분량의 ‘광주백서’가 완성되었고, 원고를 가지고 서울에 온 소준섭은 1982년 초 타이핑된 ‘광주백서’ 120부를 인쇄해서 여러 곳에 배포했다. ‘광주백서’는 광주항쟁의 전 과정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읽은 사람은 몇 명 안 되었지만 광주항쟁의 진실을 최초로 전국에 알린 문서였고 이후 『넘어 넘어』의 뼈대가 되었다.

— 서울기록원 소장

1984년 11월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가 만들어진 것과 함께 정상용과 정용화는 5·18의 진상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정용화가 은밀히 보관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광주항쟁의 실상을 새롭게 정리해서 출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항쟁 5주년을 맞는 1985년 5월까지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이재의가 집필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하고 그의 친구인 조양훈이 함께하면서 드디어 『넘어 넘어』의 원고 작업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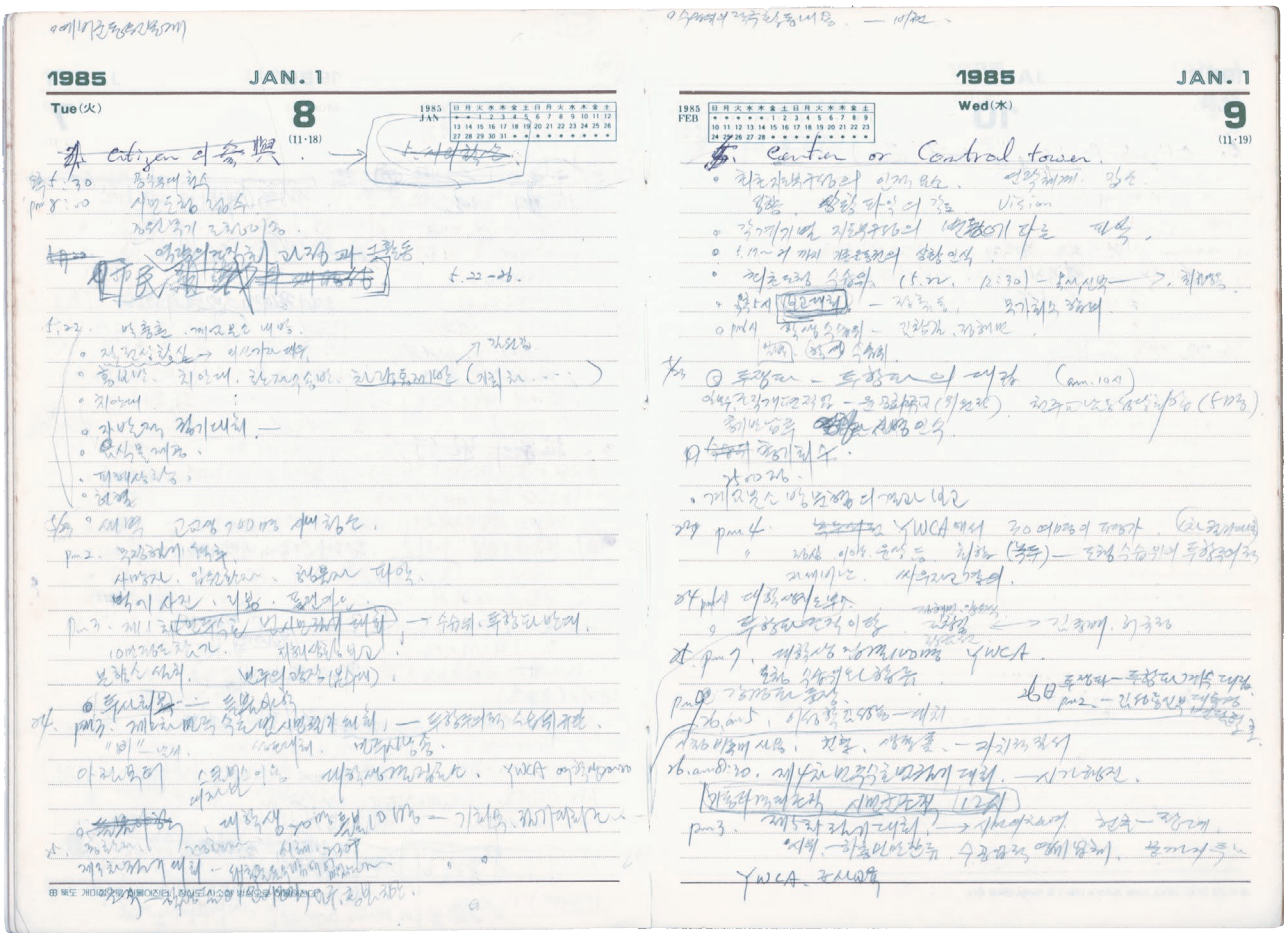
집필은 두 사람의 신혼집을 오가며 은밀히 이루어졌다. 전남대학교 동아리 후배들도 열심히 도왔고, 여러 사람이 재정적 후원을 해주었다. 그리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어렵게 만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넘어 넘어』에 숨을 불어넣었다.

The Youth Association for Democracy Movement South Jeolla was founded in November 1984. Chung Yonghwa and Jeong Sangyong set up a mission to shed light on the truth of what actually had happened in Gwangju. They also intended to publish a book about the Gwangju Uprising as Chung Yonghwa was covertly keeping useful material. To coincide with the 5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they aimed to publish the book by May 1985. Lee Jae-eui was responsible for writing the main text and his friend Cho Yanghoon assisted him. Eventually, they embarked on the process of writing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Their writing was secretly undertaken in both of their homes. Their colleague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elped out with various things and many other people financially supported them. Moreover, the oral testimonies of eyewitnesses who Lee and Cho met in order to check facts breathed life into the book.

「취재 노트」 (1985)

Lee Jae-eui’s *Interview Notes* (1985)



『넘어 넘어』의 초고 집필을 맡은 이재의에게 처음 주어진 것은 대여섯 자루의 자료 더미였다. 다행히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친구인 조양훈이 집필 작업에 함께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은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안에 그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여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광주항쟁의 진실을 전달하는 일은 막막했다. 결국 자료는 자료일 뿐 광주항쟁은 이야기로서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넘어 넘어』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었다. 이재의의 「취재 노트」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광주항쟁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구성되는 과정, 즉 사건의 ‘서사화’ 과정에 대한 실증적 예시라고 할 수 있다.

— 이재의 소장



— 조양훈 가족(왼쪽)과 이재의 가족(오른쪽) (1986)
Cho Yanghoon with family (left) and Lee Jae-eui with family (right) (1986)

“인터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도 예외 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실만 갖고도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아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 주고 더구나 우리가 기록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성공을 하라고 또 격려도 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또 울고... 하루에 한 사람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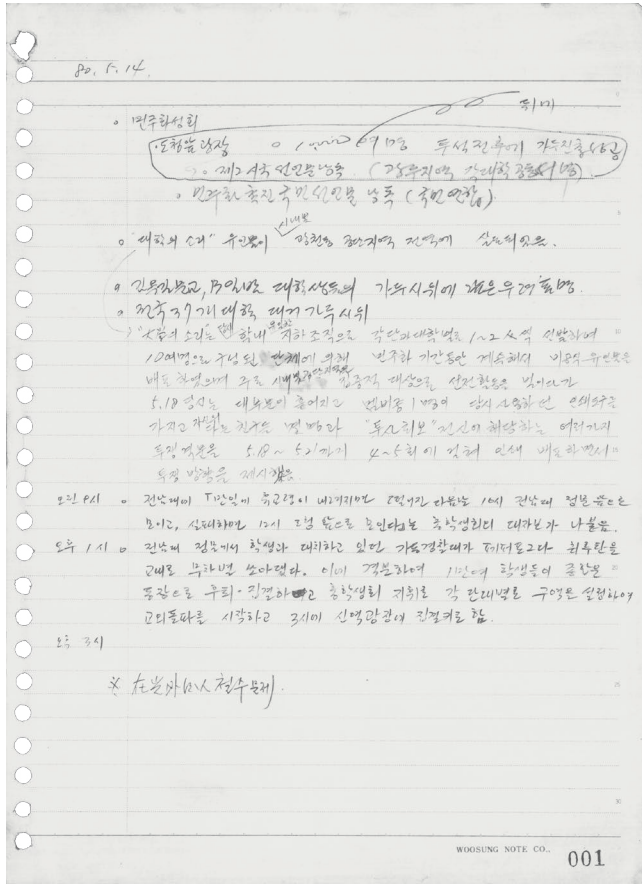
— 이재의 인터뷰 (2019)

“Every time we interviewed, people cried. Everyone cried - none finished their stories without bursting into tears. They knew it was unjust and unfair. They were touched by the fact that there was someone listening to them and documenting their stories. They barely imagined they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 events. We received great encouragement and support. They wished us success in this project. We often cried together with them, [...] so it was not easy to meet more than one person in a single day.”

— Interview with Lee Jae-eui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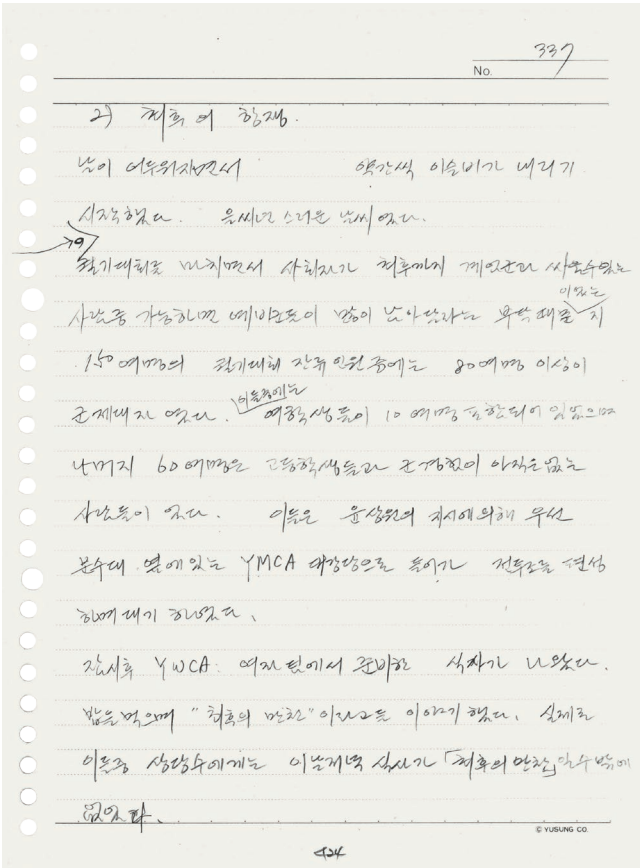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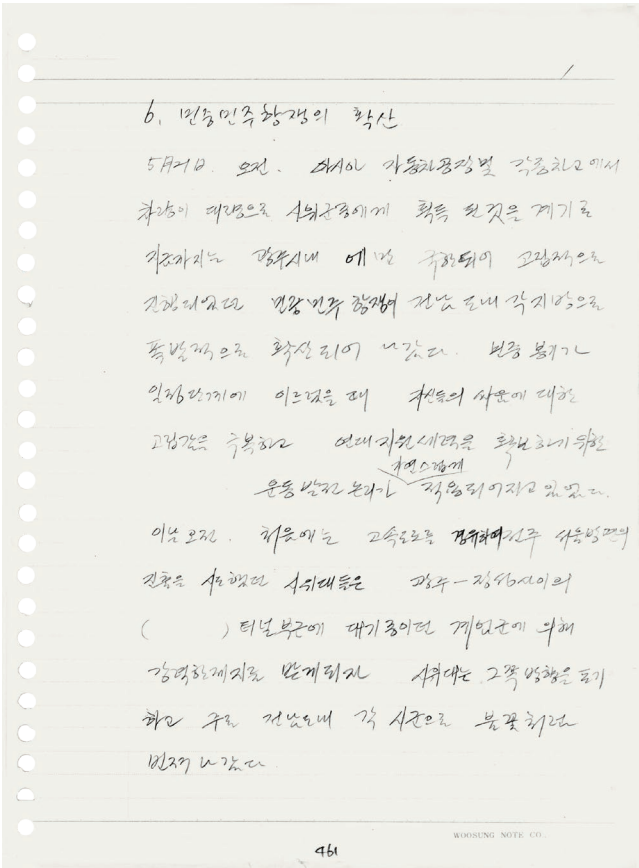
『넘어 넘어』 초고 (1985)

The original draft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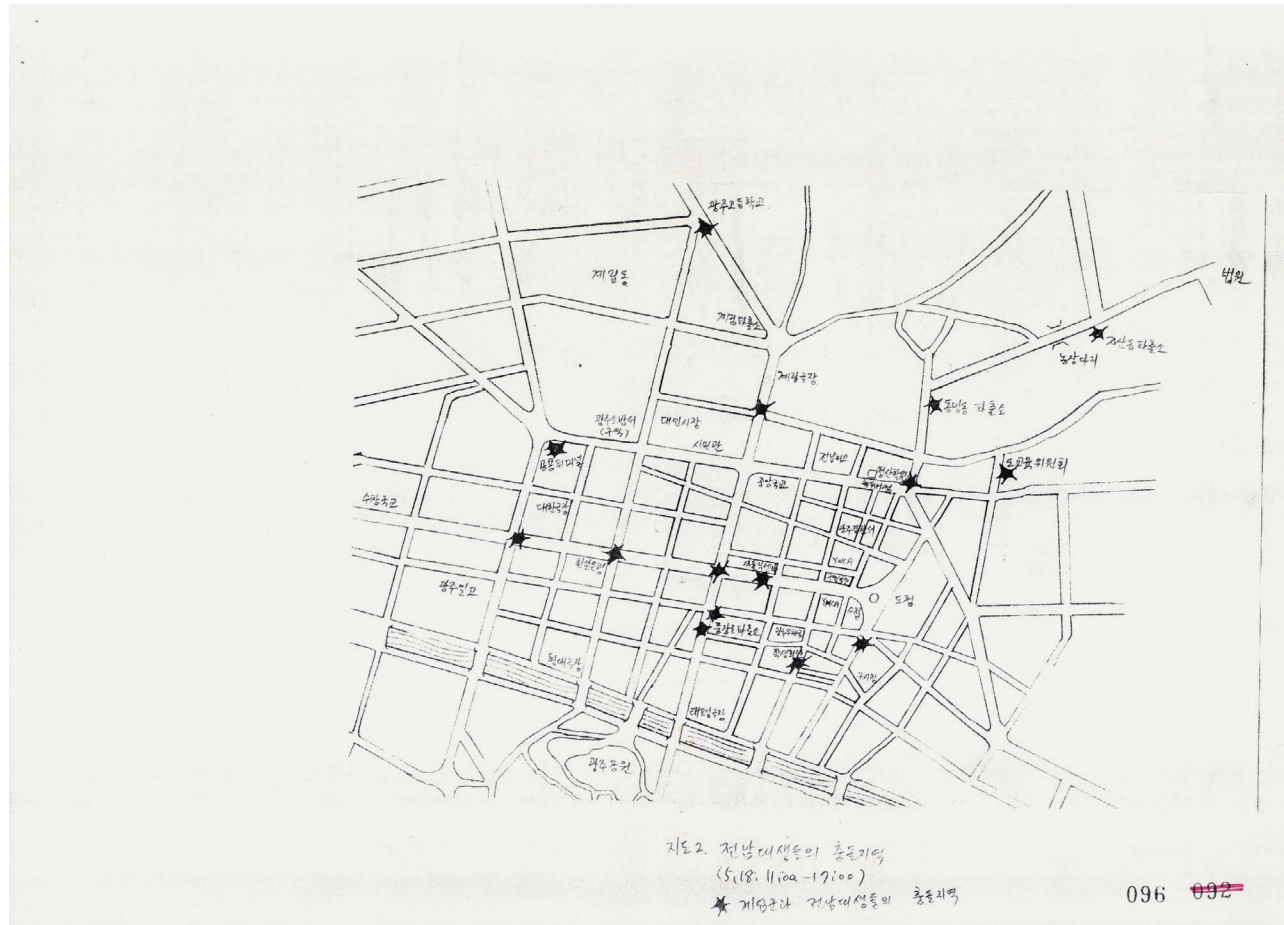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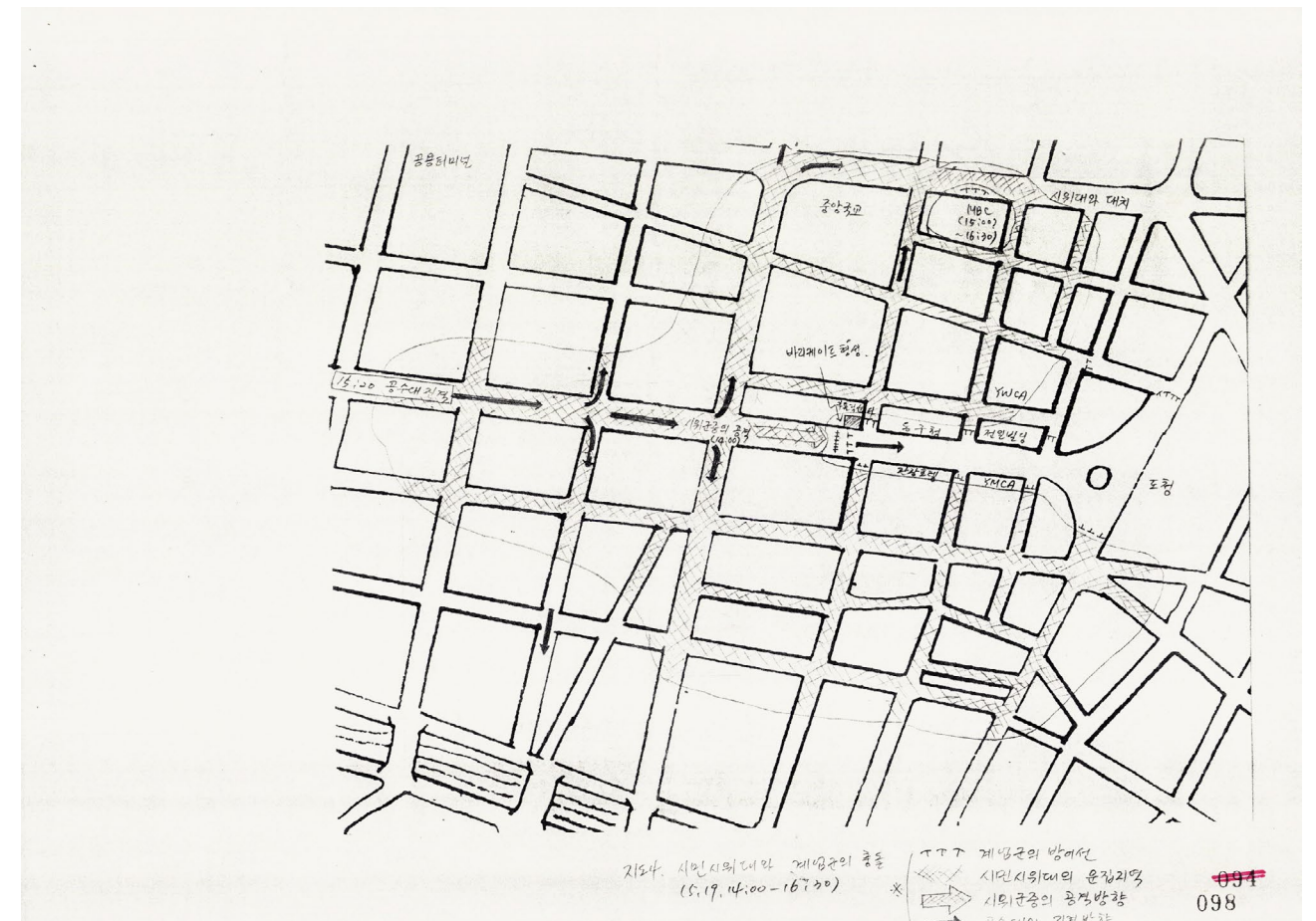
『넘어 넘어』 초고 (1985)

The original draft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1985)



『넘어 넘어』 초판 작업을 위한 지도 (1985)

Maps used for the first edi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1985)



“처음에 원고를 손으로 썼어요. 노트에 썼거든요.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자필 기록을
남겨 놓으면 절대 안돼요. 그래서 그걸 전부 타이핑을 했어요.
옛날에 수동식 타자기 있죠? 따다락 따다락 소리 나는 것.
그런데 아무리 단독 주택이어도 타자를 치면 옆집에 들려요.
소리가 새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방 창문을 담요
로 다 막았어요. 소리가 못 나가게.”

— 조양훈 인터뷰 (2019)

“I wrote in a notebook in the beginning. I repeatedly wrote and
rewrote. It was risky to keep any handwritten documents. So, we
typed it all out. Do you know manual typewriters? They make a
typical sound, tak, tak, tak. That could have caused a problem.
Because the sound could be heard in a neighboring house through
my windows. I covered all of the windows in my room with blankets.”

— Interview with Cho Yanghoon (2019)

“달력 뒷장이 큰 종이잖아요. 그 큰 종이에 시간축과
장소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쪽은 시간축,
이쪽은 장소축. 그래서 제일 밑에는 전남대학교 부근의 상황.
그다음에 도청 앞 부근의 상황, 외곽 상황,
그다음에 담양, 해남, 목포 상황... 지도를 그려서 넣어 주면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전체 분량을 고려해서 중요한 대목만 지도로 그리자...”

— 조양훈 인터뷰 (2019)

“After listening to them and reading records, I drew two axes on the
other sides of a good-sized calendar, one for time and the other for
place. I first pu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n the place axis, then
the square of the Provincial Office, the outskirts of Gwangju, as well
as nearby cities like Damyang, Haenam, Mokpo. [...] Then how could
we deliver our story and make it accessible to more people? I thought
maps might help. We said we'd put in maps only when describing
important moments.”

— Interview with Cho Yanghoon (2019)

초고는 1985년 4월 초에 완성됐다. 이제 남은 문제는 누가 저자로 나설 것인가였다. 책이 출간되면 집필자는 물론 출판사도 고초를 겪을 것이 확실했다. 갓 혼인한 이재의는 보호해야 했다. 결국 풀빛출판사를 운영하던 나병식이 출판을 맡기로 했다. 4월 중순에는 소설가 황석영이 나섰다. 황석영은 타이핑된 원고를 자신의 손으로 모두 원고지에 옮겨 적었고, 본문에 소제목을 달고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새로 썼다. 1985년 5월 20일, 『넘어 넘어』는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출간되자마자 예상대로 사찰 당국은 2만 권을 통째로 압수하였다. 황석영 작가와 나병식 사장도 즉각 당국에 연행됐다. 그런 와중에 『넘어 넘어』 초판은 미처 디자인도 하지 못한 백지의 표지 상태에서 시중에 배포되었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당국의 눈을 피해 입소문으로만 대학가 주변 서점에서 몰래 판매가 이뤄졌지만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과정에서 꽤 많은 서점 주인들이 불잡혀가는 수난을 겪었으며, 불심검문에서 이 책이 발견되어 경찰서에 끌려가 추궁당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 이재의, 「항쟁 기록의 또다른 역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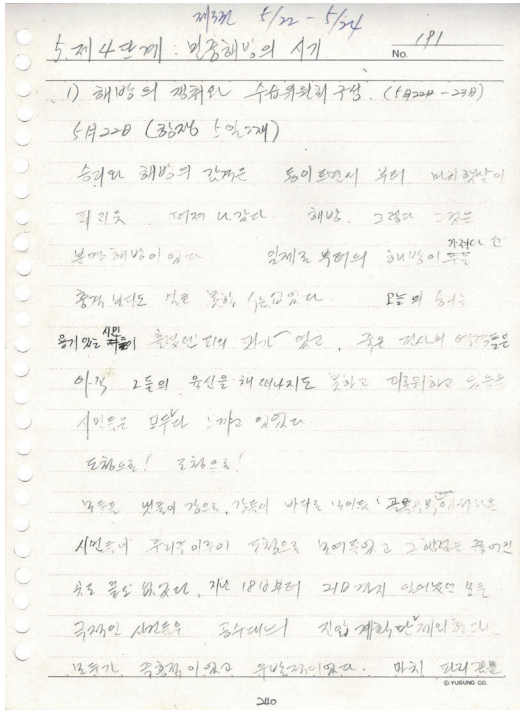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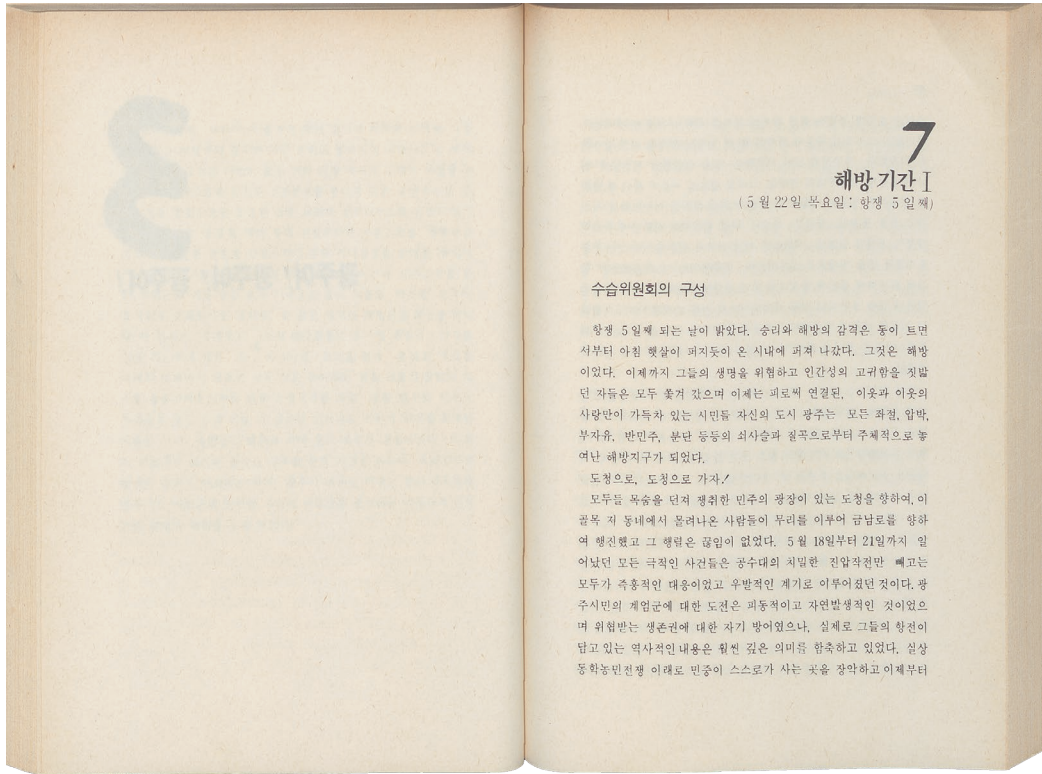
The final draft was completed in early April 1985. The only remaining issue was who would be the author of the book. Obviously, the publisher as well as the author would be in trouble when the book was published. Lee Jae-eui who had just got married would need to be protected. Na Byeongsik, the CEO of the publishing house Pulbit Books, resolv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ation. In mid-April, Hwang Sok-yong, a well-known novelist, volunteered to be the author. He copied the whole typed text into his notebook by hand. He added subtitles to the main text and wrote the preface and introduction.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eventually came out on May 20, 1985.

“As soon as the book was published, inspection authorities seized the printed pages of twenty thousand copies. Both the author Hwang Sok-yong and the publisher Na Byeongsik were immediately arrested. In the meantime, first edition copies of the book were distributed with a blank cover, even without the proper design process. The books sold like hot cakes. Escaping the authorities’ surveillance, it was covertly sold at bookstores around universities and became a bestseller. In this process, not only bookstore owners got into trouble but also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who had the book were interrogated by the police.”

— Lee Jae-eui, “An Alternative History of the Uprising Records,” the revised edi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2017)

『넘어 넘어』 초고와 초판본 (1985)

The original draft and the first edition book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1985)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서울기록원 소장

광주항쟁의 유산: 1987년 6월 항쟁

광주학살에 대한 분노는 서서히 끓어오르다 결국 1987년 6월항쟁으로 활활 불타올랐다. 그리고 ‘광주’라는 상징은 전후 한국 정치의 향배를 결정적으로 바꾸게 될 풀뿌리 운동의 시작점이자 결집점이 되었다.

“1980년대는 민주화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활기를 띠고 전개되었는데,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추동한 힘의 원천이 바로 광주민중항쟁이었다. 5월이 되면 대학가는 그날을 상기하며 투쟁의 대오를 세웠다.”

— 서중석, 『한국 현대사 60년』 (2007)

“80년 5월 광주에 뿌려진 선혈은 일대 참극으로 허망하게 끝난 듯이 보였다. 그러나 고립된 광주의 땅을 붉게 적신 피와 눈물은 결코 그렇게 허망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짓밟혀 버린 민주화의 꿈은 이후 7년 만에 눈부시게 부활했다... 87년 6월의 거리에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친 국민들은 7년 전에 광주 참극을 모르는 채 지나쳤던 그 국민들이 아니었다. 87년 6월의 그 거리에서 우리 국민들은 계엄령 풍문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 유시춘, 「전진하는 6월항쟁」, 『6월항쟁을 기록하다』 (2007)

The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The June Uprising of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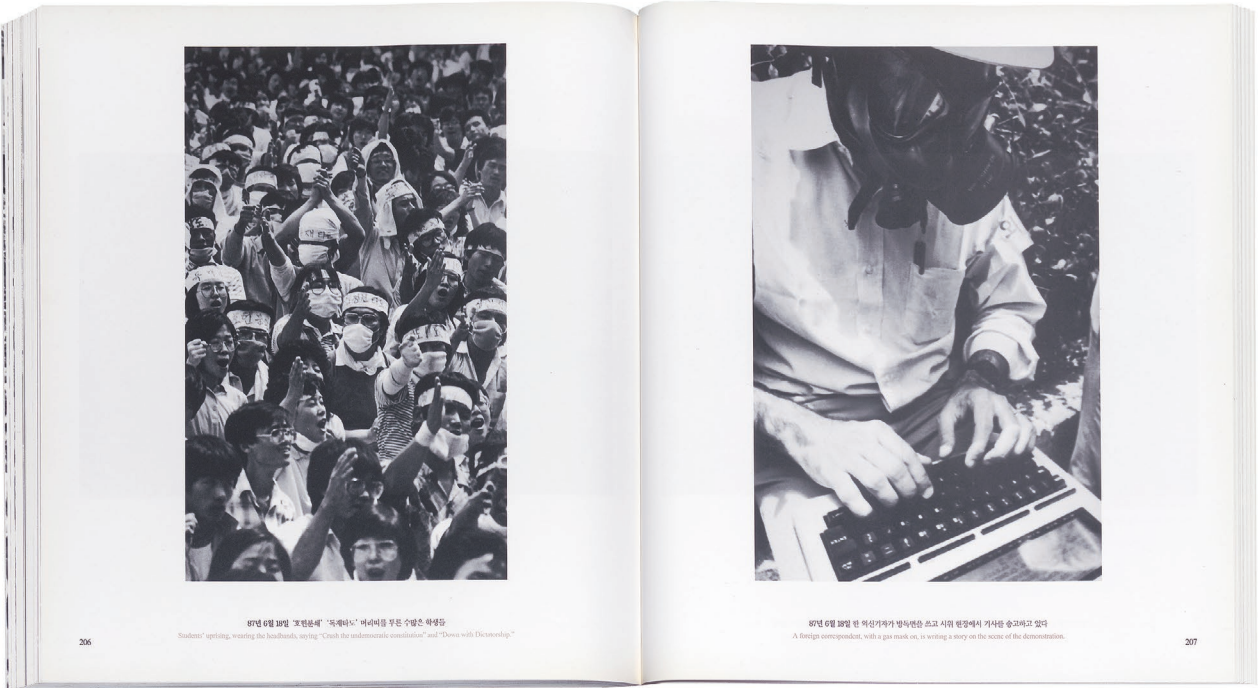
The anger that gradually boiled over at the Gwangju Uprising fanned the flames and gave rise to the June Uprising in 1987. Significantly, Gwangju provided an important impetus and rallying point for grassroots movements which would decisively influence political renewal in post-war Korea.

“In the 1980s, protests for democracy were active and the Gwangju Uprising was an inspiration for these activities. Commemorating the Uprising every May, university students firmed their resolutions to fight for democracy.”

— Seo Jungseok, *60 Years of Modern History of Korea* (2007)

『80년 5월에서 87년 6월로』 (2007)

From May 1980 to June 1987 (2007)



- 펴낸이: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펴낸날: 2007년 6월 25일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에 발간된 민주화운동 기록 사진집. 수록된 사진들은 경향신문 사진기자들과 고명진, 김녕만, 나경택, 윤석봉, 황종건 등이 촬영한 것이다. 1980년 ‘서울의 봄’부터 19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국내 여러 지역, 미국과 독일 등에서 이루어진 집회와 시위 사진들이 실려 있다. 사진집 제목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1980년 광주항쟁의 계승임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서울기록원 소장

“The bloody uprising in Gwangju in May 1980 seemed to end in failure. However, blood and tears that soaked into the soil of the isolated Gwangju was not wasted. The vision for democracy was marvelously resurrected seven years later. [...] Citizens on the streets in June 1987 shouting “Overthrow Dictatorship!” were different from those who witnessed the tragic events in Gwangju seven years earlier. People on the streets in June 1987 were not at all afraid of the dictator even though rumors about martial law were being circulated.”

— Ryu Sichun, “The June Uprising Moves Forward,” *Writing the June Uprising* (2007)

4.

경합하는 진실들

Challenged Truths

과거 청산을 위한 노력과 광주항쟁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군부 독재 등 순탄치 않은 현대사를 겪은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과거의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산 대상이 된 과거사는 근·현대를 포괄하고 있었고 국가가 이를 다루는 방식도 다양했다. 과거 청산의 초기에는 책임자를 가리고 처벌하는 문제를 무겁게 다루었지만 곧 보상 중심의 사업으로 이어졌고,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진실위원회’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 과거 청산 작업의 중심에는, 바로 광주항쟁이 있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거 청산 사업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각별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 실현이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과거 청산 작업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Justice for the Past and the Gwangju Uprising

Having gone through some tough times - the Japanese occupation, the Korean War and military dictatorship, as well as democratization - Korean society has investigated state violence an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tried to correct the injustices of the past. In dealing with the legacy of past as part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he government has adopted various strategies. In the beginning, examination and punishment were given full prominence, then later, reparation became central.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approach to such issues has mainly been through ‘truth commissions’.

At the heart of these projects was the Gwangju Uprising. The very first state-led attempt to redress past injustice since democratization, it got the full attention of the people. Relevant laws and policies were enacted, and the Gwangju Uprising has become a model for all other projects concerning the truth of the past ever since.

5·18특별법 제정을 알리는 벽보 (1995.11.24.)

Wall posters informing people of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May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November 24, 1995)



1995년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연내에 5·18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지시했다. 이 소식을 알리는 대자보 앞에 많은 광주 시민들이 모여 읽고 있다.

— 출처: 광주일보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

이른바 ‘광주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이 1990년대 초반 시민 사회에 의해 정립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광주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째 진상 규명, 둘째 책임자 처벌, 셋째 피해 배상, 넷째 명예 회복, 다섯째 기념사업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5대 원칙’은 이후 치열하게 전개된 책임자 처벌 운동의 지침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과거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 규범을 세우고자 했던 전 세계적인 노력과도 공명한다.

이처럼 시민 사회가 ‘불순분자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독재 정권의 규정을 바로잡고, 국가를 상대로 ‘광주 문제’ 해결의 원칙을 제시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은, 실태 조사와 학술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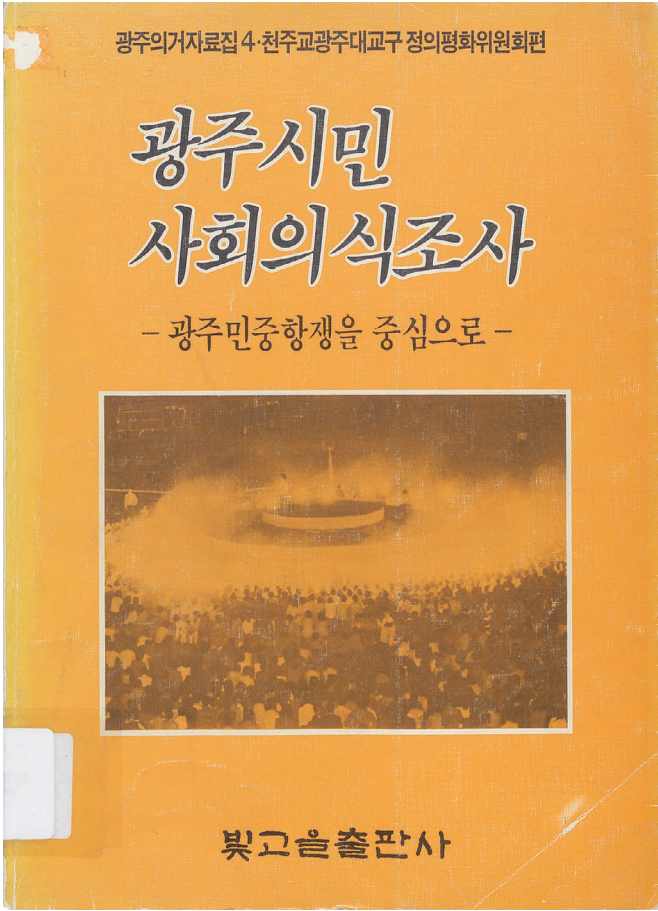
Five Demands on the Resolution of Issues Surrounding Gwangju

It is noteworthy that five clear demands surrounding the ‘Gwangju issues’ were set out by civic society in the early 1990s: establishment of the facts;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compensation for injury; restoration of honor; and commemorative projects. These five demands provided the guidelines for later campaigns to ensure the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for their wrongdoing. Also, these demands are in line with the global efforts to define the standards that a state must meet when taking action in respect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committed in the past.

Correcting the false narrative of the struggles for democracy as a rebellion by a mob of agitators, which had been maintained by the dictatorship, civic society succeeded in pressing the government to accept those five demands for the resolution of the ‘Gwangju issue’. What made this possible was nothing other than the citizens themselves who made every effort to collect and produce evidence through a fact-finding survey and research.

『광주시민사회의식조사: 광주민중항쟁을 중심으로』 (1988)

A Survey of Social Awareness of Gwangju Citizens with respect to the Gwangju Uprising (1988)



- 펴낸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펴낸날: 1988년 5월
- 펴낸곳: 빛고을출판사

1987년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광주항쟁이 ‘민주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게 되자 ‘광주사태’의 진상은 무엇이고 광주 시민들 스스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관심이 대두했다. 광주 시민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1988년 5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실시한 ‘광주시민사회의식조사’가 출발점이 되었다. 이 조사는 광주 시민과 유가족, 부상자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5·18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묻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저항과 명상』(1989)

Resistance and Meditation (1989)



- 지은이: 윤공희, 김성용, 박상수, 정규완, 조철현, 장용주, 신 고르넬리오
- 펴낸이: 박영웅
- 펴낸날: 1989년 5월 18일
- 펴낸곳: 빛고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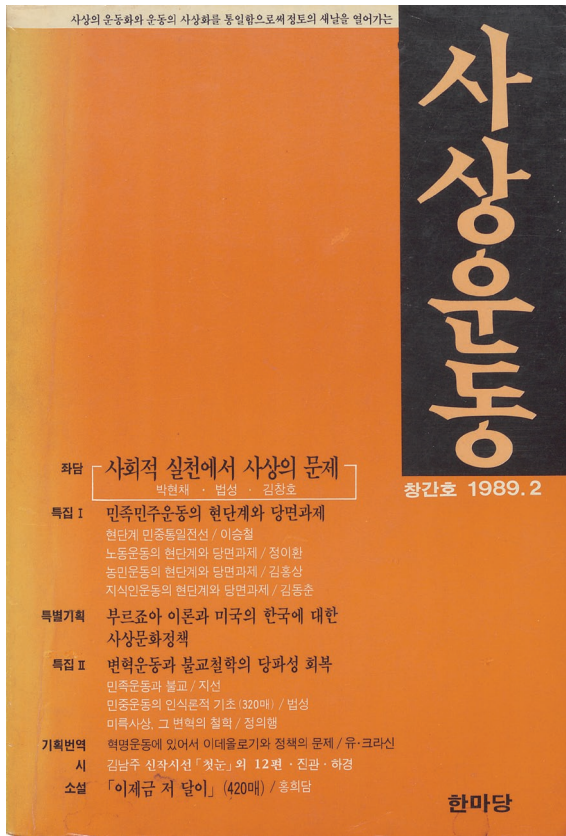
이 책에는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들의 광주항쟁 당시 체험담이 실려 있다. ‘광주청문회’가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린 광주항쟁 9주기를 맞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펴냈다. 2017년 5·18기념재단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출판권 계약을 맺고 재출간했다.

“지난 9년 동안 군사 독재와 관제 언론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광주민중항쟁의 은폐·왜곡이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드러나는 듯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의 위증과 증언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을 옆에 두고 지나가는 제관이 아닌가 하는 자책을 느꼈다.’ 이러한 윤공희 대주교의 고뇌와 성찰은 비단 윤 대주교 개인의 감정만은 아닐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던 마음이다.”
(장용주 신부의 「머리말」에서)

— 개인 소장

『사상운동』 창간호 (1989)

Thought Movement, the first issue (1989)



- 펴낸이: 최필승
- 펴낸날: 1989년 2월 25일
- 펴낸곳: 한마당

『사상운동』은 광주항쟁 이후 1980년대 변혁 운동에 대한 불교계의 반응을 보여준다. 당시 수없이 나타났다 사라진 여러 잡지들이 그랬듯이, 『사상운동』 역시 창간호를 끝으로 발행이 중단됐다.

— 개인 소장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1990)

Complete Collection of Historical Records of the Gwangju Uprising (1990)



- 엮은이: 한국현대사료연구소
- 펴낸이: 홍석
- 펴낸날: 1990년 5월 31일
- 펴낸곳: 도서출판 폴빛

1990년 5월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에서 엮어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은 광주항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 수습에 관련된 사람 등 500명의 구술을 채록하여 실었다. 여전히 가해자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광주항쟁의 진실을 왜곡하고 억압하던 것이 발간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당했고 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책은 권위주의 정권이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광주사태’를 ‘민주화의 일환’으로 고쳐 부르던 시기에 그러한 흐름을 분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광주항쟁을 처음 연구하거나 그 실상을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 이재의 소장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을 위한 구술 채록 자료:

개인 카드 양식 및 구술 내용을 적은 원고지 (1989)

Materials used for the book *Complete Collection of Historical Records of the Gwangju Uprising*: personal information cards and manuscripts of oral testimonies (1989)

[illegible]

	5	월	17	일	신	번	보	로	를	위	해	공	휴	동
형	갑	에	서	잠	은	자	고	복	등	우	체	극	염	교
그	만	체	육	복	원	단 ^V	가	게	를	하	고	있	는	듯
재	형	갑	으로	갔	다.									
5	월	18	일	오	전	임	시	쯤	들	재	형	검	에 ^V	
잇	다	가	전	대	경	문	으	로	가	보	니	가	군	인
파	몇	명	의	학	생	이	눈	에	들	어	왔	다.	학	교
를	들	어	가	지	못	하	도	록	거	기	라	는	군	인
과	학	생	들	간	에	약	간	의	대	란	이	있	는	것
을	보	고	다	시	가	게	로	돌	아	왔	다.			

註	
---	--

(10×20)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

‘광주청문회’와 5·18 재판

1988년에 열린 ‘광주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광주청문회’는 5·18이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으며,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밝혀내지 못한 채 내란 주도 세력의 뻔뻔함만 확인하고 막을 내렸다.

‘광주청문회’가 흐지부지 끝나버리자 5·18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 사회는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사법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이 뒤따랐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12월 21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따라 1996년 8월 26일,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1997년 4월 18일, 대법원은 ‘12·12사건은 명백한 군사 반란’이었고 5·18은 ‘내란 및 내란 목적을 위한 살인 행위’였다고 판결했다. 1995년부터 시작되어 삼 년 동안 이어진 5·18 재판을 통해, 1980년 5월의 진짜 ‘폭도’는 광주 시민들이 아니라 바로 신군부와 계엄군이었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로써 5·18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일단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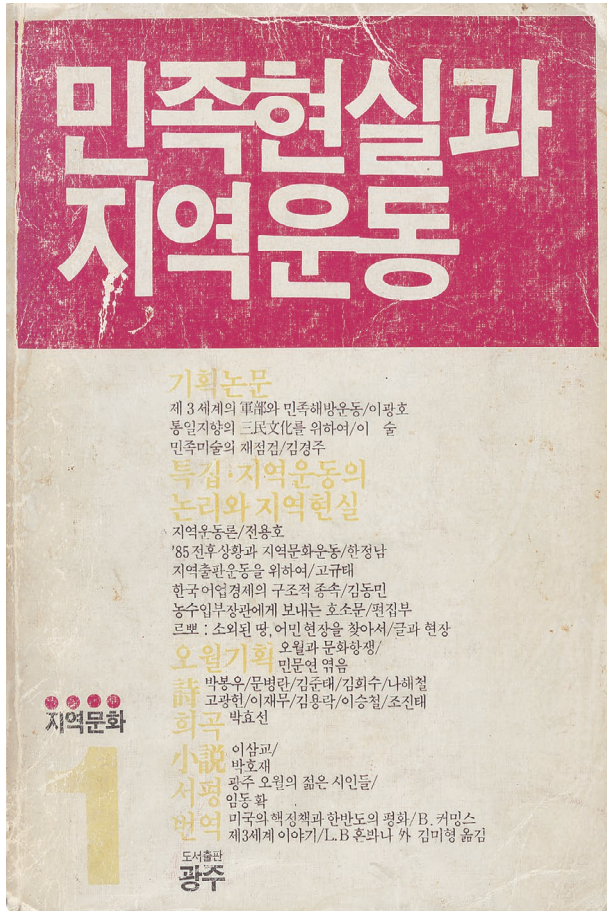
Gwangju Hearings and Trials

The ‘Gwangju Hearing’ in 1988 was a turning point in telling the truth about the Uprising. However, the hearing failed to show how it began, who ordered the troops to fire on citizens, and how many were victimized. It only confirmed the shamelessness of those perpetrators.

After the hearing came to what many saw as a meaningless conclusion, civic society, led by survivors of the Uprising, began to take legal action to identify and punish the key perpetrators of the massacre. These actions gained tremendous support across the country and were followed by national efforts to take the perpetrators to court. On December 21, 1995,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Special Act on the May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which ensured suspension of “the Prescription for Public Prosecution, etc. against Crimes Disrupting Constitutional Order committed on or around December 12, 1979 and May 18, 1980”. Under the terms of this special act, two former presidents, Chun Doo-hwan and Roh Tae-woo stood before the court on August 26, 1996.

『지역문화 제1권: 민족현실과 지역운동』(1985)

Local Culture 1: National Reality and Local Campaign (1985)



- 지은이: 문병란 외
- 펴낸이: 김희수
- 펴낸날: 1985년 12월 25일
- 펴낸곳: 도서출판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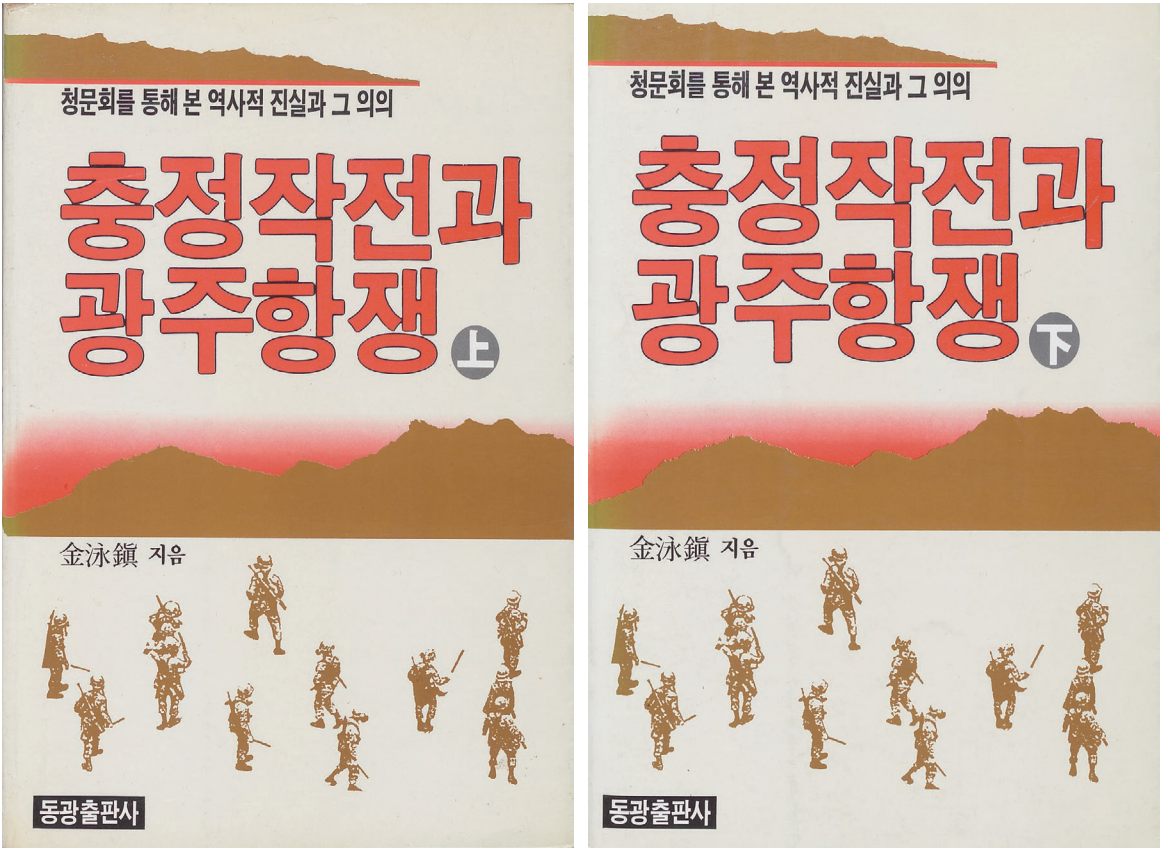
1980년 8월 문학계는 주요 계간지인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 강제 폐간되는 사태를 맞는다. ‘언론기본법’에 명기된 적법한 절차를 밟더라도, 당시 문학잡지를 등록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다. 법률상으로는 신고제이지만, 실제 법 시행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중후반에는 이른바 ‘무크지’라는 형태의 부정기 간행물이 유행했다.

1985년 발행된 『지역문화 제1권: 민족현실과 지역운동』은 사회 운동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광주에서 한 차례 나온 무크지였다. 광주항쟁 당시 문화운동가들의 활동을 조명한 특집 기사들이 실려 있다.

— 전용호 소장

On April 18, 1997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ecember 12 incident had been a military coup d'état and the suppression of the Gwangju Uprising had constituted a military rebellion and murder. Through the three-year long trial from 1995, it was legally established that the real ‘mob’ in May 1980 was not the citizens but the new military junta and martial law army.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was also settled for the time being.

『충정작전과 광주항쟁』(1989)
Operation Chungjeong and the Gwangju Uprising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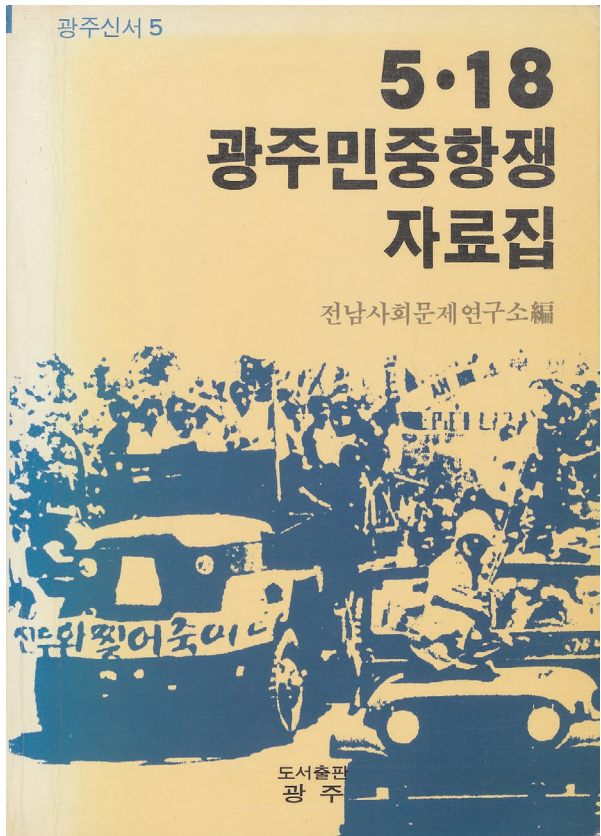
- 지은이: 김영진
- 펴낸이: 최동진
- 펴낸날: 1989년 5월 18일
- 펴낸곳: 동광출판사

이른바 광주청문회 당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던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영진이 광주특위 활동을 통해 확보한 문헌과 사료, 증언을 정리해 펴낸 책이다. 광주항쟁 관련 기초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던 시절, 이 책은 광주특위의 활동과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가장 잘 정리한 책으로 평가받았다.

“국민이 국회에게 맡겨준 광주항쟁의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5월은 우리 앞에 서 있다. 내가 광주특위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이전보다 더한 자책감과 부끄러움을 갖는 것은 의회가 그 조사 기능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다. 시간과 제도의 제약으로 청문회에서 밝히지 못한 내용을 엮어 이 죄책감을 삭이고자 열병을 앓듯이 이 책을 발간한다.”(『책 머리에』에서)

— 서울기록원 소장, 전용호 소장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1988)
Collected Materials o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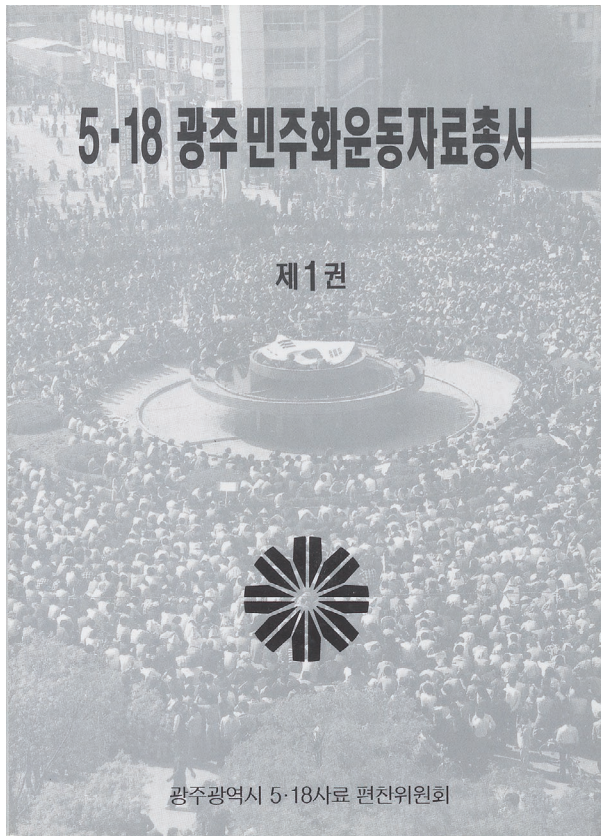
- 펴낸이: 전남사회문제연구소
- 펴낸날: 1988년 4월
- 펴낸곳: 도서출판 광주

광주항쟁 관련 각종 유인물, 성명서, 해외 언론 기사, 수기 등을 망라하고 있는 자료집이다.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에서 광주항쟁 관련 기록들을 모아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로 펴내기 전까지 이 책은 가장 포괄적인 아카이브 역할을 했고, 시기적으로는 노태우 정부 출범 후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의 재평가 이후 13대 국회의 광주특위 활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5·18을 극소수 폭도들에 의한 난동이라고 선전하면서 진상을 호도해 오던 정부 측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하며, 5월항쟁을 시민·학생들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최근에는 ‘민족화합추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 활동해 온 전남사회문제연구소는 5월항쟁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아울러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보관하고 애써서 수집해 온 자료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책을 펴내면서』에서)

— 개인 소장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1997-2014)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Series (1997-2014)



- 펴낸이: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 펴낸날: 1997-2014년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는 방대한 자료집이다. 여기에는 1980년 전후의 성명서와 각종 유인물,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속기록, 주한미국대사관과 미국 국무부 사이에 오간 전문, 국내 간행물에 수록된 기사들, 1980년 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 자료, 광주지검 검시 조서, 피해 및 수습 관련 자료와 부상자 관련 자료, 병상 기록부 및 실태 조사서, 경찰관서 및 군검찰부의 관련 자료 및 수사 기록, 12·12와 5·18 관련 재판 자료 등이 실려 있다. 5월 18일을 광주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61권이 발간되었다.

“자료들의 일부는 이미 여러 단체들에 의해 조그마한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책자들은 이미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자료집에는 빠져 있는 자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완하여 총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간행사』에서)

— 개인 소장

『총구와 권력: 5·18 수사기록 14만 페이지의 증언』(1999)
Guns and Power: 140 Thousand Pages of Testimony from the Gwangju Uprising Investigation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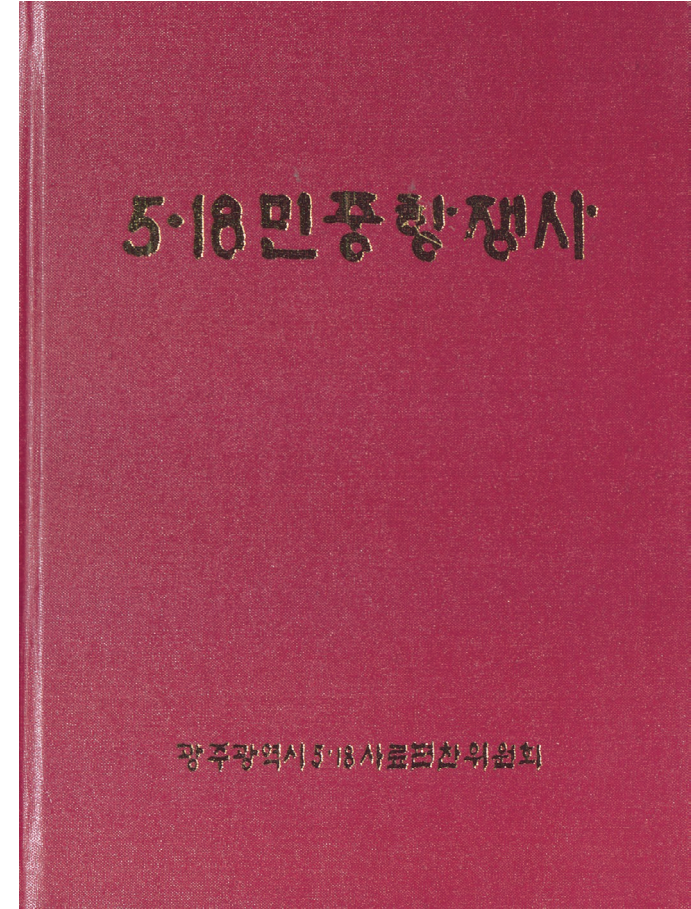


- 엮은이: 월간조선
- 펴낸날: 1999년 1월 1일
- 펴낸곳: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1999년 1월호 별책부록으로 발행된 이 책은 서울지방검찰청의 총 14만 쪽, 117권 분량의 12·12 및 5·18 사건 수사 기록을 입수하여 “이곳저곳에 흩어진 각종 사건의 편린들을 하나로 꿰맞추고, 많은 사람들의 반복되는 진술과 증언들을 일일이 대조 검토하고, 분석 과정을 거쳐” 그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주영복 당시 국방부장관, 이희성 제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 내용 일부가 실려 있다. 검찰은 이 수사 기록의 공개를 오랫동안 거부했기 때문에, 이 책이 발행된 이후 몇 년간 월간조선의 자료 입수 경위가 논란이 되었다.

— 서울기록원 소장

『5·18민중항쟁사』(2001)
History of 5·18 Democratic Uprising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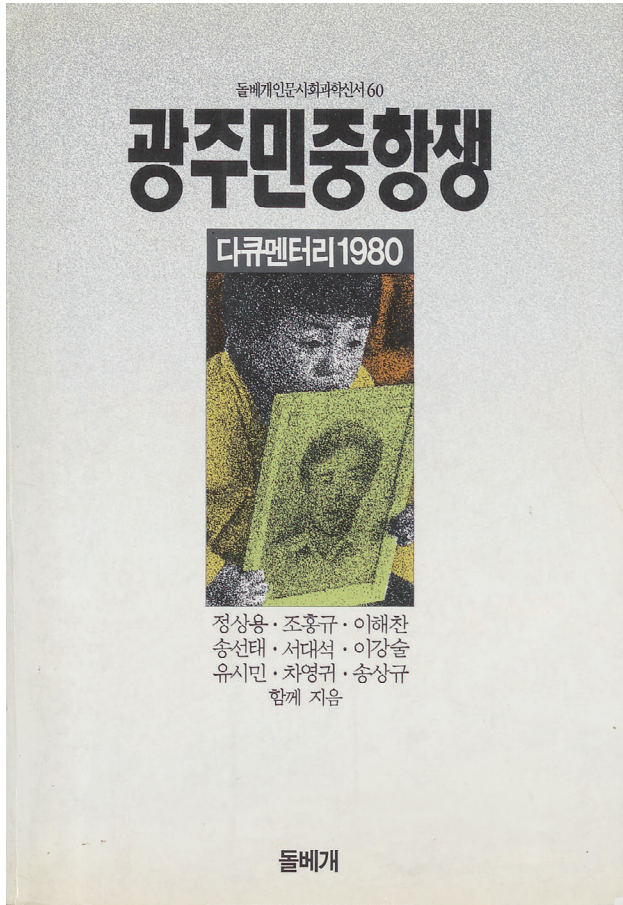


- 펴낸이: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 펴낸날: 2001년 3월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학술연구논문 모음집. 제1부 5·18을 보는 시각과 배경, 제2부 5·18의 전개 과정, 제3부 법과 민주화, 제4부 5월운동과 문화, 제5부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 등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항쟁 이후 20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총 33명의 필자가 참여했다(김진균, 강만길, 박광주, 김제안, 김병인, 김동택, 이종범, 나익갑, 정해구, 김창진, 최정운, 김성, 박찬승, 최정기, 장하진, 박연철, 정웅태, 박원순, 조희연, 김동춘, 김만흠, 정근식, 나간채, 조현연, 오수성, 정호기, 문병란, 노동은, 이태호, 서승, 신일섭, 안병욱, 안종철).

— 5·18기념재단 기증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터리 1980』(1990)
The Gwangju Uprising: Documentary 1980 (1990)



- 지은이: 정상용, 조흥규, 이해찬, 송선태, 서대석, 이강술, 유시민, 차영귀, 송상규
- 펴낸이: 임승남
- 펴낸날: 1990년 5월 10일
- 펴낸곳: 도서출판 둘베개

1988-1989년에 진행된 13대 국회 ‘광주청문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공식 보고서도 내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터리 1980』은 당시 국회 광주특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한 책이다.

“우리는 모두 국회 광주특위 위원으로서 조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그와 관계된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군과 정부에 관련 기록을 요구하고 그것의 진위를 검증했으며, 각종 출판물에 게재되었던 수많은 자료와 인터뷰 기사 및 수기, 청문회 증인들의 증언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했다… 우리들 가운데 세 사람이 그간의 작업 성과를 정리했다. 송상규, 차영귀, 유시민이 초고를 작성했다. 그리고 전체가 모여 이 초고를 검토한 후 유시민이 종합 대표 집필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을 종료하였다.”(「책을 펴내면서」에서)

— 전용호 소장

『기억하는 자의 광주』(2010)
Gwangju, the City of the Man Who Remembers It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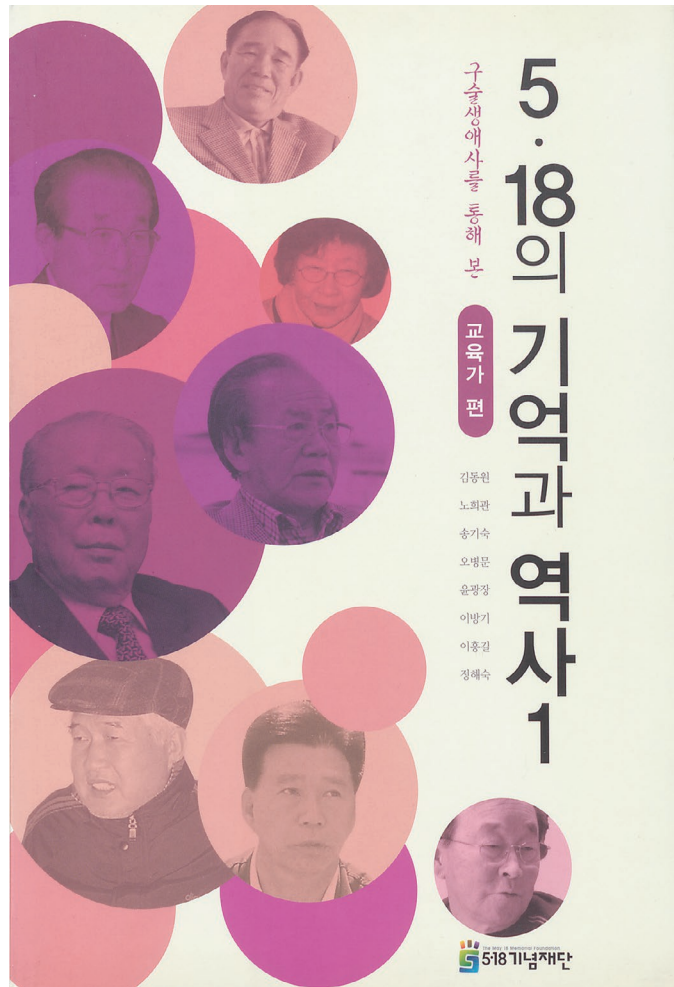


- 지은이: 이해찬, 유시민 외
- 펴낸이: 한철희
- 펴낸날: 2010년 5월 17일
- 펴낸곳: 둘베개

1990년에 발행된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터리 1980』의 개정증보판이다. 초판 발간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보상 내용 등을 보충하고 관련 사진과 자료를 추가하여 다른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 5·18기념재단 기증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2006)
Memory and History of the Gwangju Uprising in Oral History 1 (2006)



- 펴낸이: 윤광장
- 펴낸날: 2006년 2월 16일
- 펴낸곳: 5·18기념재단

— 5·18기념재단 기증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9』(2019)
Memory and History of the Gwangju Uprising in Oral History 9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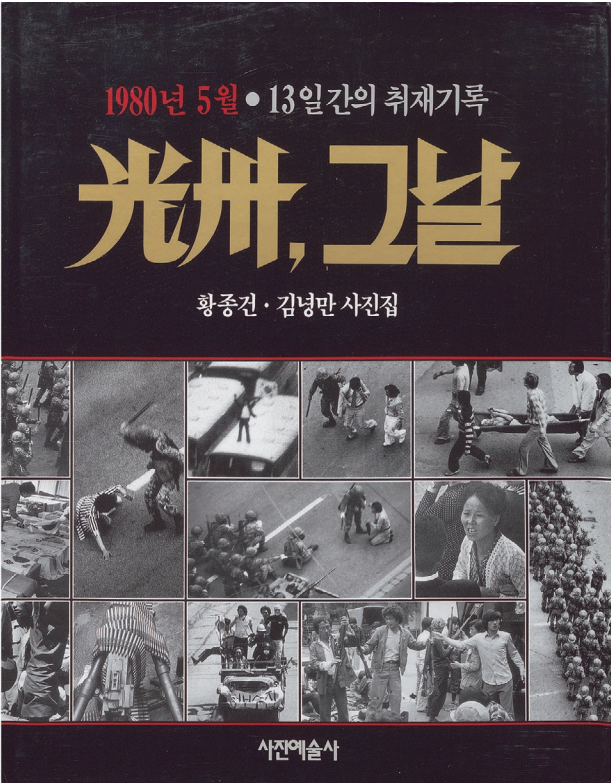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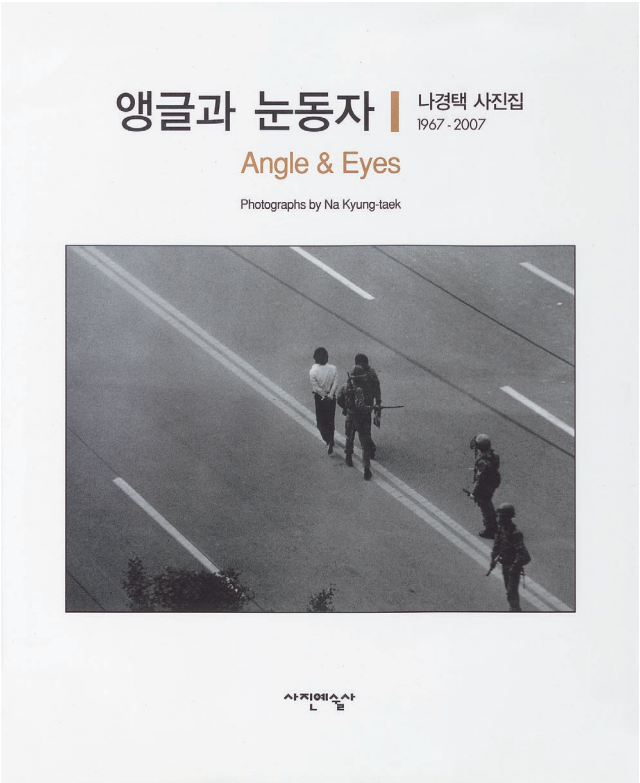


- 엮은이: 송백회구술사료집 발간위원회
- 펴낸이: 이철우
- 펴낸날: 2019년 12월 16일
- 펴낸곳: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에서 2006년부터 꾸준히 발간해 온 광주항쟁 관련자들의 구술 자료집이다. 2006년 제1권 교육가 편과 제2권 사회활동가 편을 시작으로, 2009년 제3권 농민운동가 편, 2010년 제4권 공직자 편, 2013년 제5권 천주교 편, 2014년 제6권 사회활동가2 편, 2015년 제7권 개신교 편, 2016년 제8권 불교·원불교 편, 그리고 2019년 제9권 송백회 편까지 모두 아홉 권이 출간되었다.

황종건·김녕만 사진집 『광주, 그날』 (1994)
Gwangju, The Day, photographs by Hwang Jonggeon and Kim Nyeongman (1994)

나경택 사진집 『앵글과 눈동자』 (2007)
Angle and Eyes, photographs by Na Kyung-taek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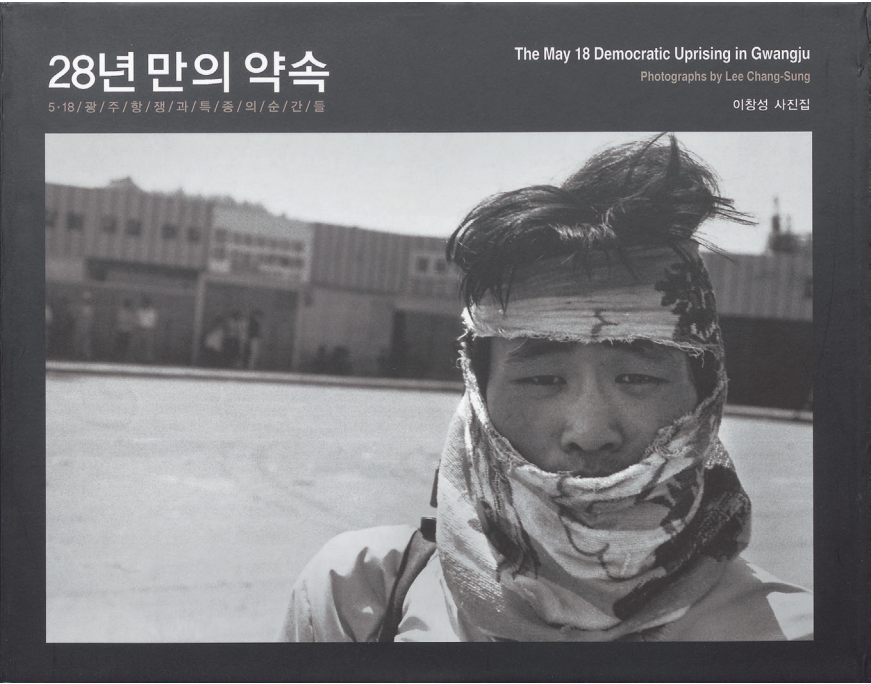


1980년 광주항쟁 당시 많은 언론사 사진 기자들이 광주에 파견되었고,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누비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계엄 당국의 철저한 검열로 인해 그들이 찍은 사진들은 신문에 실리지 못했다. 동아일보의 황종건·김녕만, 전남일보의 신복진, 전남매일신문의 나경택, 중앙일보의 이창성 등 당시의 사진 기자들이 찍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광주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은 1987년 6월항쟁을 거쳐 민주화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 개인 소장, 전용호 소장, 서울기록원 소장

신복진 사진집 『광주는 말한다: 어느 사진기자가 본 5·18항쟁과 6월항쟁』 (2006)
Gwangju Speaks: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with a Photographer's Eye, photographs by Shin Bokjin (2006)

이창성 사진집 『28년 만의 약속』 (2008)
A 28-Year Promis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Gwangju, photographs by Lee Chang-sung (2008)



『넘어 넘어』 개정판 작업

“과거 독재 체제에 편승했던 세력들은 가장 먼저 기득권 이념 투쟁의 상투적 수단인 ‘북한’을 끌어들여 5·18 광주항쟁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 말살하려 하였다... [이들은] 5·18은 군대라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폭도들의 반란이며 폭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남파된 북한 특수군이 일으켰다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불순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왜곡 날조하고 있다... 우리는 광주항쟁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과 공격이 난무하는 가운데 입술을 깨물며 준비를 했고 그사이에 ‘촛불 혁명’이 진행되었다.”

— 황석영, 『이제 또다시 어둠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2017)

신군부가 ‘광주사태’를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여 진압한 이래로, 오랫동안 5·18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넘어 넘어』는 이름 없는 개인들 각자의 기억의 파편을 모아 대안적인 객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수사권과 법적 권력, 나아가 언론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진실을 규정하는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국가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2014년 『넘어 넘어』의 저자들은 또다시 어둠을 넘어서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여전히 광주항쟁이 왜곡과 폄훼의 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 의 진실은 아직도 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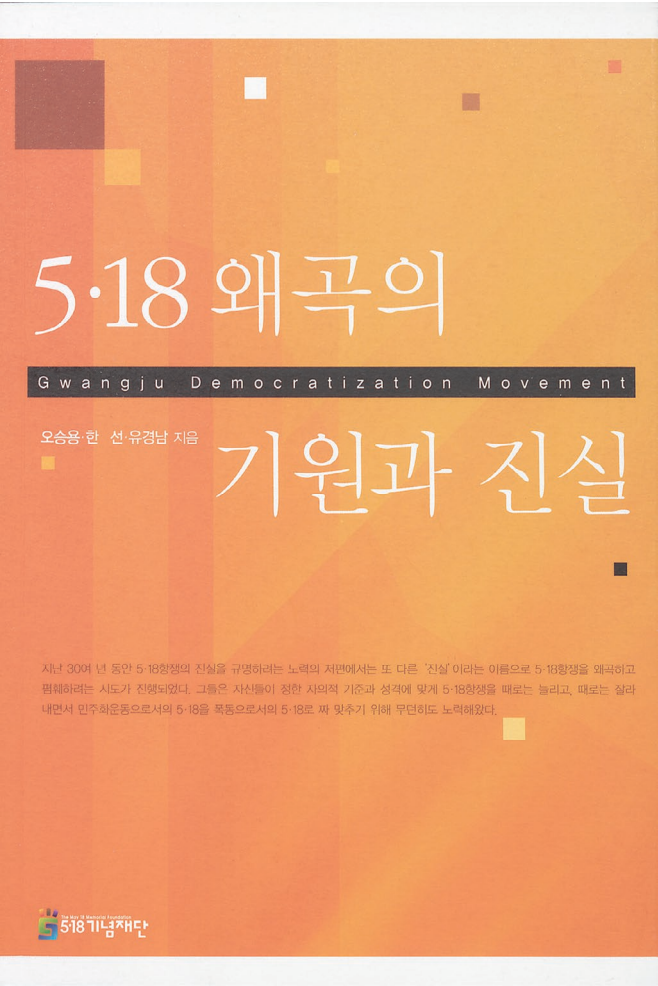
Revis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Forces that benefited under the old regime first of all dragged ‘North Korea’ into the discussion of the Gwangju Uprising in order to damage the democratic value of the uprising, a method often used by the ruling class as a means of causing ideological dispute. [...] [They] repeatedly distort the truth of the democratic uprising, claiming that it was nothing other than a rebellion against the public authority by a mob who were North Korean special military forces or conspirators obeying commands from North Korea. [...] Irrational distortion and perversion of the facts of the Gwangju Uprising were rampant. Biting our lips, we prepared for our fight and, meanwhile, the ‘Candlelight Revolution’ proceeded.”

— Hwang Sok-yong, “Once Again Beyond Darkness,” the revised edi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2017)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 (2012)

Distortion and the Truth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2012)



- 지은이: 오승용, 한선, 유경남
- 펴낸날: 2012년 2월 20일
- 펴낸곳: 5·18기념재단

광주항쟁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왜곡되어 왔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었고 그 결과 이미 오래 전에 광주항쟁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 사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끊임없이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2010년대 초반에 발행된 이 책은,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과 폄하 문제가 이미 10년 전에도 심각한 상황임이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 5·18기념재단 기증

The new junta suppressed the Gwangju Uprising, labeling it as riots by agitators backed by North Korea, after which Gwangju had to endure the stigma of being associated with North Korea for a long time. It w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was published to suggest an alternative narrative of objectivity by presenting collective memory from anonymous individuals. It went against the state who dominated all power structures from investigative and legal to the press. In 2014, the authors of the book once again gathered to overcome darkness since distortion and disparagement of the uprising were still occurring. The tough fight for truth and justice concerning Gwangju has not ended yet.

『넘어 넘어』 개정판 (2017)

The revised edi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2017)



— 서울기록원 소장



— 『넘어 넘어』 개정판을 위한 간행위원회 (2014)

Members of the publication committee for the revised edi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2014)

“2010년경 되면서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활동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정확한 진실을 확실히 더 명백히 밝혀서 왜곡 폄하하는 활동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옛날에 초판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열두 명 정도가 모이게 됐죠. 증보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2014년부터 계속 회의를 했고요.”

— 전용호 인터뷰 (2019)

“A repetitive distortion and mockery of the Uprising was often circulated on the Internet around 2010. I felt the urgent need to inform the public of the real truth and to counter these views. It was natural to decide to publish a revised edition of the book. Then who is going to make the revised edition? We thought we would. We had worked on the first edition. In 2014, twelve of us set up a publication committee for the revised edi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and met regularly.”

— Interview with Jun Yongho (2019)

“5·18은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뿌리 내리는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옳은 목표에 대해서 목숨을 건 용기, 그 용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본 사건이었죠. 당시에 참여했던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런 분들이 무엇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버텼는가. 그것은 역사에 있어서 정의를 세우는 것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숭고한 의기였다는 것이죠.”

— 전용호 인터뷰 (2019)

“The Gwangju Uprising is a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 that allowed democracy to take root in Korea, right? It took courage to do the right thing and to risk our lives for justice. The circumstances made us think a lot about courage. It was achieved through the sublime courage shown by those hundreds and thousands of people who joined together to defend justice.”

— Interview with Jun Yongho (2019)



— 전용호 인터뷰 영상 (2019)
Interview with Jun Yongho (2019)

에필로그:
기록은 말한다. 그리고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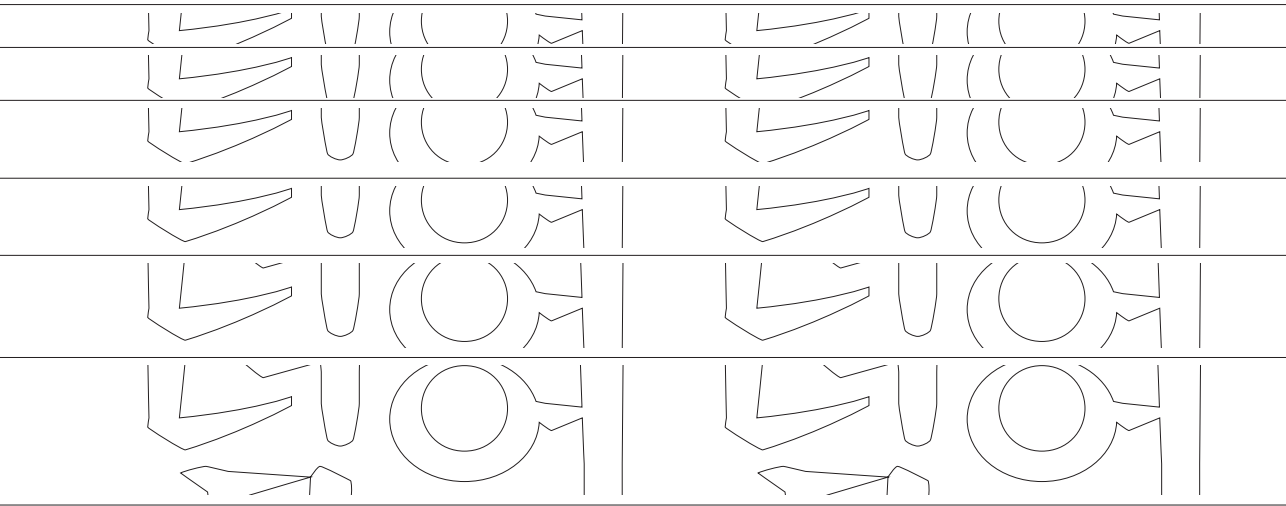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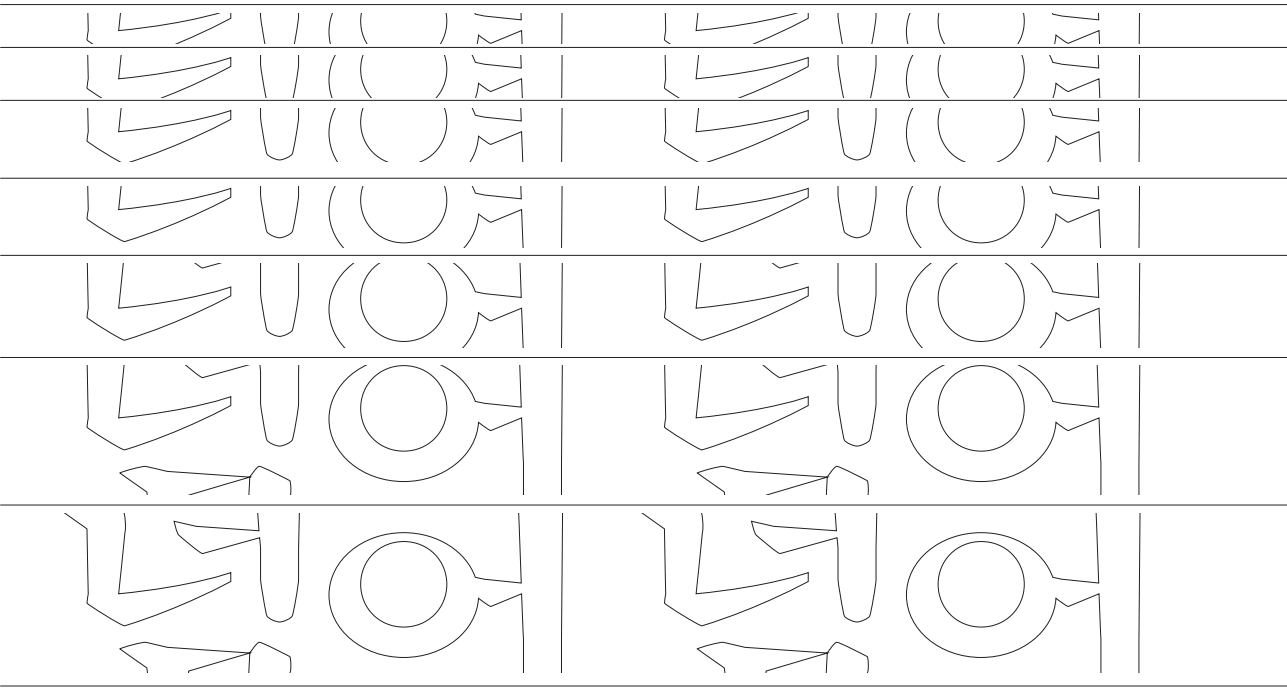
Epilogue:
Records Speak and Remember

1980년 광주항쟁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에 있어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광주
의 기억은 무고한 시민을 짓밟고 집권한 군부 독재 세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는 민주화운동으로, 시민 학살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를 복원하려는
과거사 청산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주항쟁의 기억을 재생시키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억·기록 투쟁이 있었다.

시민들의 작은 기록들을 모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서
사로 연결한 『넘어 넘어』는, 오늘도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전하며 진실을 묻고 있다.

The Gwangju Uprising was a definitive event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and the repairing of past injustices. The memory of Gwangju inspired not only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gainst the military junta which had trampled on
innocent citizens and seized power, but also campaigns to correct the unjust heritage
of past events including the brutal massacre, and for the rewriting of history. At the
core of these activities, there have been fierce struggles for memories and records to
be preserved to remember and honor the spirit of the Gwangju Upr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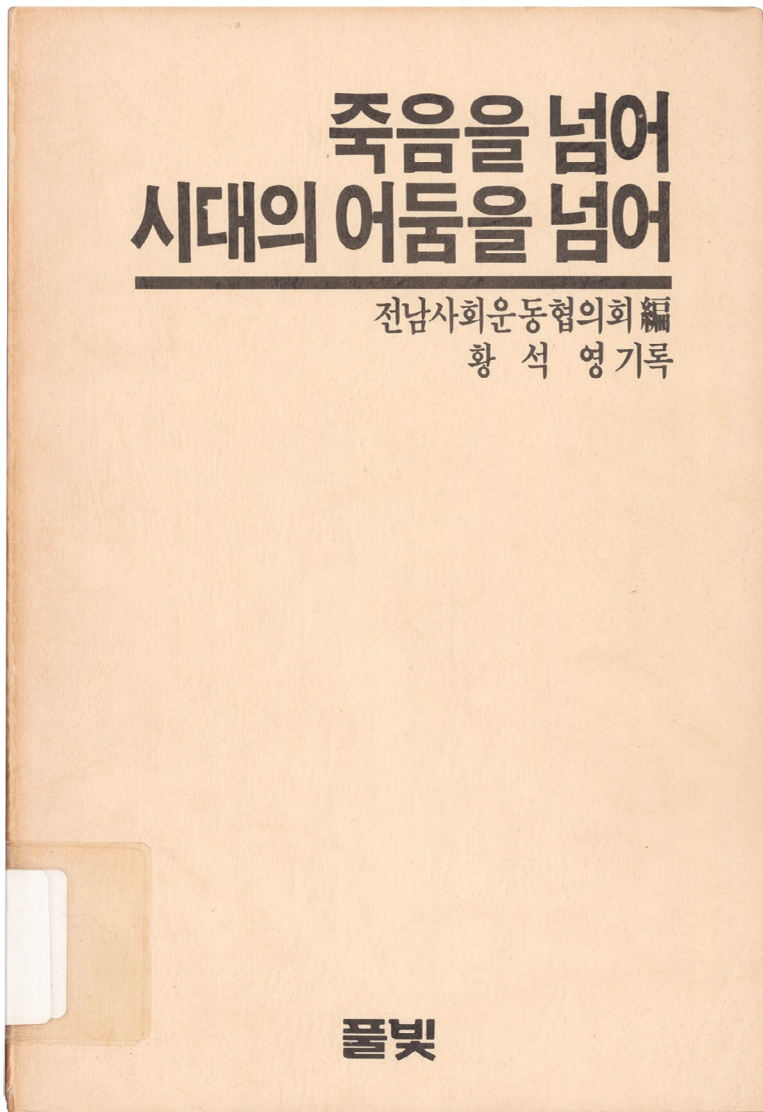
Bringing together fragmentary records from citizens and recalling the day vividl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link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o a
narrativ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it questions what is true.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제작 일지	
1980년 11월-1981년 7월 광주항쟁 목격담, 일기, 수기, 구술 등 자료 수집	
1981년 7월 초 「자유언론」을 통해 광주항쟁 진상 규명과 민주화투쟁을 촉구하던 중 조봉훈 등 10여 명이 구속됨	
1982년 초 소준섭, 서울에서 고(故) 김근태 등과 함께 「광주백서」 인쇄·배포	
1982년 12월 말 정용화 석방 이후 숨겨 놓았던 5·18 자료 확보	
1984년 10월 정상용, 이재의를 만나 집필 제안	
1984년 11월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의장 정상용, 부의장 정용화) 출범, 광주항쟁 진상 규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	
1985년 1월 초 이재의·조양훈, 집필 시작	
1985년 3월 말 정상용·정용화, 초고 검토 및 확인·수정	
1985년 4월 중 이재의·조양훈·전용호, 황석영에게 원고 전달	
1985년 5월 20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초판 발행	

1985년 10월 21일 일본에서 일본어 번역판 『광주5월민중항쟁의 기록(光州5月民衆抗争の記録)』 출판	
1985년 겨울 독일에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복사본 제작·배포	
1987년 5월 1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2: 광주오월민중항쟁사진자료집』 발간	
1999년 5월 미국에서 영어 번역판 『광주 일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K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출판	
2014년 7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증보판 간행위원회 출범	
2017년 5월 15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면개정판 출판	
2017년 12월 영어 번역판 『광주 일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G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재출간	
2019년 5월 15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개정판 양장본 출판	

초판본『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first edition (1985)



- 지은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황석영
- 펴낸이: 홍석
- 펴낸날: 1985년 5월 20일
- 펴낸곳: 도서출판 풀빛

책 제목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문병란의 시 <부활의 노래>에서 가져왔다. 책의 부제목인 ‘광주5월 민중항쟁의 기록’은 표제지에 처음 등장한다. 뒤표지에는 책 머리말의 일부가 실려 있다.

발간사는 당시 전남사회운동협의회 대표였던 전계량이, 머리말은 대표 기록자인 황석영이 썼다. ‘밀려드는 역사의 파도’ ‘피와 눈물의 5일간’ ‘광주여! 광주여! 광주여!’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4개의 소제목과 67개의 소소제목이 달려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상황을 시작으로 광주항쟁의 발단, 열흘간의 투쟁 과정, 진압 이후 피해를 알리려는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록에는 사망자·부상자 구속자 명단을 실었다. 또한 항쟁 당시 주요 사건 및 사람들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지도 18장이 수록되어 있다. 분량은 총 318쪽이다.

이 초판본은 서울 홍제동 성당 창고에 보관되었고, ‘불온서적’이라는 이유로 거의 모두 압수당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 Author: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and Hwang Sok-yong
- Publisher: Pulbit Books (Hong Seok)
- Publication Date: May 20, 1985

The title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is derived from a poem *A Song of Rebirth* by the Korean poet Moon Byung-ran. This edition is subtitled ‘Records of the May Gwangju People’s Uprising’ as appears on the title page. The back cover features an extract from the pre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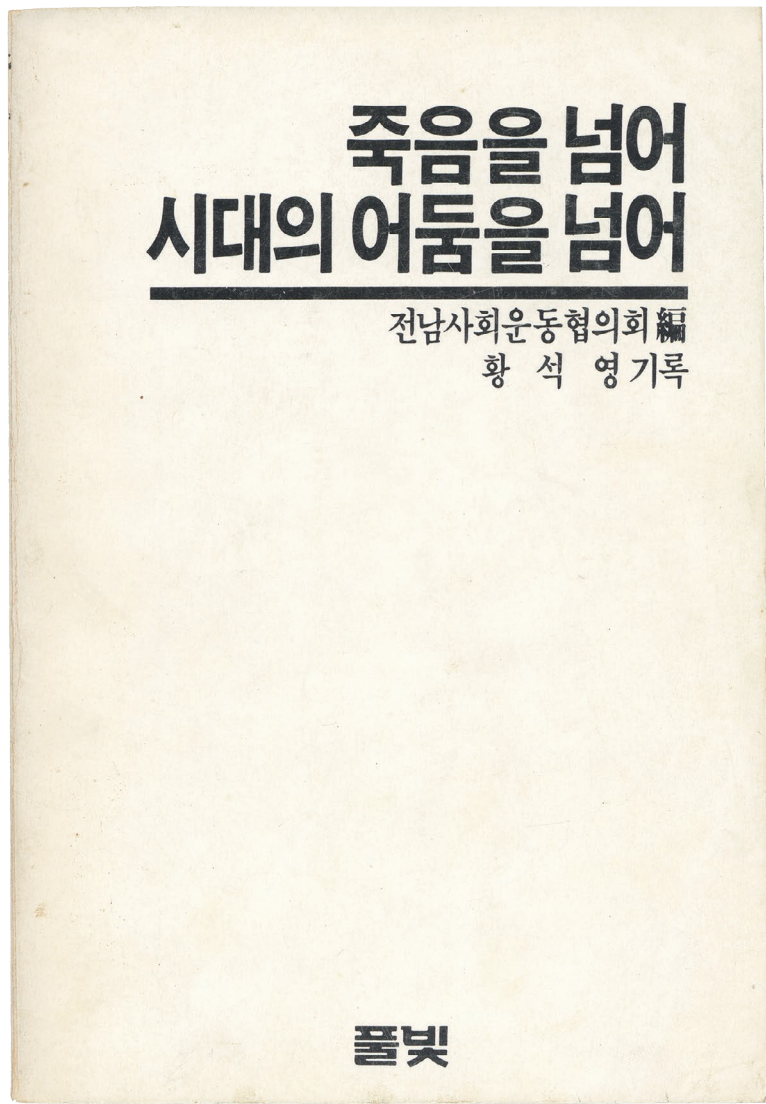
The foreword was written by Jeon Gye-ryang, who was the president of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and the preface by Hwang Sok-yong, named as an author of the book.

This book consists of four chapters - Surging Waves of History; Five Days of Blood and Tears; Gwangju, Gwangju, Gwangju; The End and A New Beginning - which are divided again into fourteen parts with sixty-seven subheadings.

The book narrates how the Gwangju Uprising began after the assassination of the former dictator Park Chung-hee on October 26, 1979. It also gives an account of the ten-day long battle and of the efforts made by citizens to inform the world of the severe injuries they had received. The names of citizens dead, injured and arrested are included as an appendix. Eighteen maps show key reference points and the routes citizens had taken during the struggles. It is 318 pages long. The first editions, hidden in storage at the Hongje Catholic Church, were mostly seized by the authorities who labeled them seditious.

— Collection of the May 18 Archives

초판본『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first edition (1985)



- 지은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황석영
- 펴낸이: 홍석
- 펴낸날: 1985년 5월 20일
- 펴낸곳: 도서출판 풀빛

처음에 만든 초판을 압수당한 뒤에 새로 제작한 초판본이다. 먼지와 마찬가지로 흰색 표지 위에 책 제목, 지은이(편자, 기록자), 출판사 이름을 적었다. 당시 풀빛출판사의 편집장이었던 김명인에 따르면, 책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주로 야간에 원고 교정 및 교열 작업을 했고 제본도 심야에 이루어졌다. 초판 대부분을 당국에 빼앗겼지만, 인쇄용 필름은 몇 개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넘어 넘어』 초판 발간 당시 국내 인쇄 기술은, 활판 인쇄에서 옅셋 인쇄(글자 한 자씩 사진을 찍어 간단한 형식의 조판물을 만들고 이것을 편집자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오려 붙여 전체를 촬영한 후 평판을 만들어 인쇄) 및 전산 사식(글자를 사진으로 찍는 대신에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원고를 작성한 후 필름이나 인화지에 문선 조판)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1985년 이 책의 가격은 4,000원이었다.

— 개인 소장

- Author: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and Hwang Sok-yong
- Publisher: Pulbit Books (Hong Seok)
- Publication Date: May 20, 1985

This book was produced after most of copies of the first edition had been seized. Similar to the previously published edition, the front cover with a white background includes the title, the authors (editor and writer) and the publisher. Kim Myoung-in who was the chief editor of the Pulbit Books recounts how the publication process was handled to ensure security around the content of the book. Copy-editing, proofreading and even binding had to be done overnight. Although the former books had been mostly seized, it seems that some extra film negatives for printing remained. In fact, when the previous first editions were published, the local printing technology was in transition from letterpress to offset printing* as well as to electronic typesetting.** The price of this edition in 1985 was about \$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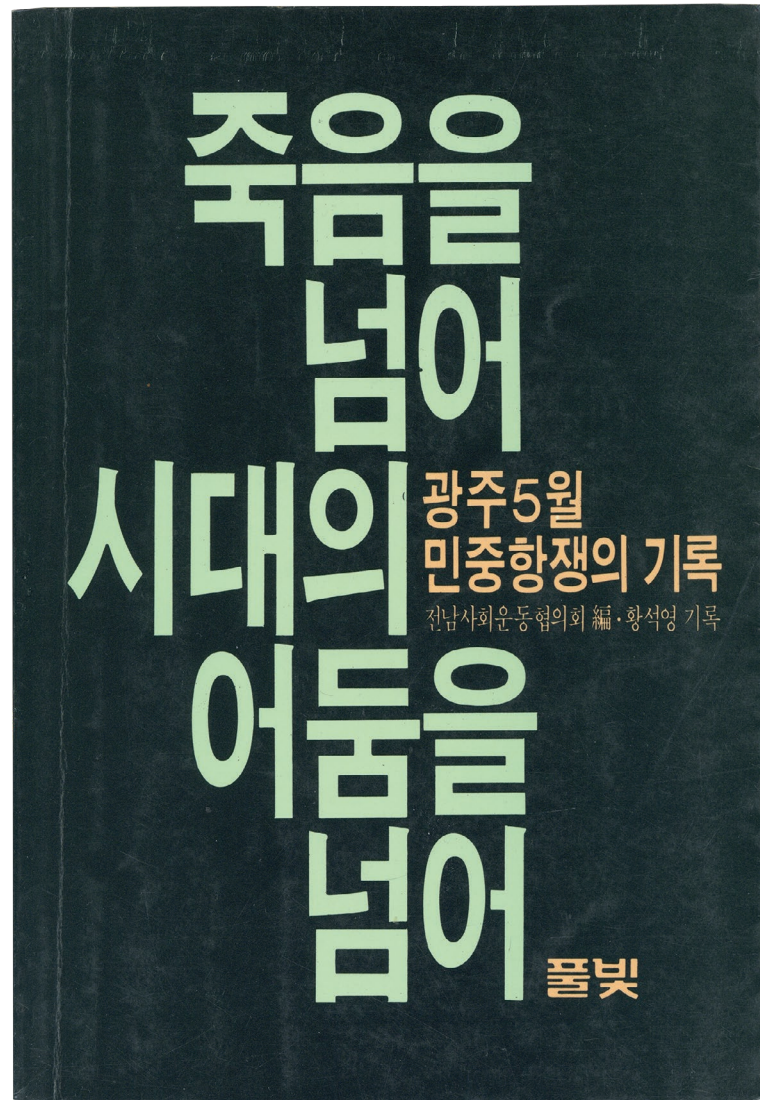
* Offset printing
Type was assembled by photographing characters, then under the direction of the editor, galleys of type were pasted onto layout boards to make a full page. This fully laid-out page was again photographed to make a plate for offset printing.

** Electronic typesetting
Electronic typesetting uses a ‘word processor’ to compose texts on light-sensitive paper or film.

— Private Collection

초판본『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first edition (1985)



- 지은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황석영
- 펴낸이: 홍석
- 펴낸날: 1985년 5월 20일
- 펴낸곳: 도서출판 풀빛

개정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독자들과 만났던 형태의 초판본이다.

이전 초판본과 비교했을 때, 앞표지에 책 제목을 크게 적은 것이 눈에 띈다. 부제목인 ‘광주5월 민중항쟁의 기록’도 주제목과 함께 표지 위에 함께 드러나 있다. 황석영이 쓴 머리말 발췌글의 위치가 뒤표지 가운데에서 왼쪽 위로 옮겨져 있다. 진한 녹색을 표지 색상으로 선택했고, 표지 양옆으로 접혀 들어가는 책날개를 두었다.

내지 편집은 동일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 명단이 빠지고, 초기 판권지 정보에 ‘지은이’로 표기되었던 전남사회운동협의회와 황석영은 ‘엮은이’로 바뀌었다. 이 초판본은 2017년에 절판되었다.

— 서울기록원 소장

- Author: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and Hwang Sok-yong
- Publisher: Pulbit Books (Hong Seok)
- Publication Date: May 20, 1985

Most readers would have encountered this edition. Compared to previous editions, the big title on the front cover is a distinctive feature. The subtitle ‘Records of the May Gwangju People’s Uprising’ is also on the front cover. The extract from the preface by Hwang Sok-yong which was central on the back cover in the other edition, now appears in the upper left. The book cover, in dark green, has flaps.

Inner page design is the same as previous ones. But the death roll was removed, and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and Hwang Sok-yong, who were named as ‘author’ in the imprint page of the earlier editions, appear as ‘editors.’ This edition has been out of print since 2017.

— Collection of Seoul Metropolitan Archives

독일 지역 제본판『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an edition distributed in Germany (1985)



- 지은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황석영
- 펴낸이: 홍석
- 펴낸날: 1985년 5월 20일
- 펴낸곳: 도서출판 풀빛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시민 학살과 군부의 만행은 국내보다 독일에서 먼저 알려졌고, 독일 지역 방송이 보도하는 내용에 교민과 유학생들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크푸르트·베를린·루르 지방 등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매해 5월 추모제를 지내며 명령들을 위로했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1980년 당시 특집 방송을 방영하며 광주항쟁을 알려 나갔다. 이 책은 독일 지역에서 만들어 사용한 판본이다. 당시 독일에서 공부한 양영미에 따르면, 한국에서『넘어 넘어』가 나온 해 겨울 무렵 초판본 한 권이 독일 괴팅엔에 전달되었고, 유학생이던 오세중, 이문호 등은 하르츠 부근의 작은 동네 인쇄소에서 비밀리에『넘어 넘어』를 만들어 한국인들에게 배포했다. 책값은 정하지 않았고, 각자 성의껏 돈을 내어 제작비를 마련했다고 한다. 압수된 초판본을 복사해서 내지에 그대로 사용했고, 발간사 중간에 차례 페이지가 섞여 있으며 광주항쟁 당시 사진 여섯 장이 목차 앞에 배치되어 있다. 표지 디자인은 미술대학 유학생인 강현옥(당시 마르부르크 거주)이 새로 했다. 앞표지에 ‘5·18 광주민중혁명 유럽지역 후원회’라고 쓰여 있고, 뒤표지 안쪽에는 이 책의 제작과 관련된 정보가 타자기로 작성되어 있다.

인쇄 및 보급: 5월광주 민중혁명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유럽지역 후원회
연락처: Postfach-Nr.3106 3400 Göttingen
은행구좌: Name: “Kwang-Ju”
Bank: Dresdner Bank
BLZ: 260 800 24
Konto-Nr.: 921 609 101

— 서울기록원 소장

- Author: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and Hwang Sok-yong
- Publisher: Pulbit Books (Hong Seok)
- Publication Date: May 20, 1985

The news concerning the massacre of citizens and the brutality of the military government in Gwangju was released earlier in Germany than in Korea. Korean residents in Germany were all shocked by what the local German press reported. Korean communities in Frankfurt, Berlin, and the Ruhr held commemorative events every May. They tried to inform people about the Gwangju Uprising, broadcasting films shot in Gwangju in 1980 by the German reporter Jürgen Hinzpeter. This edition was only distributed in Germany. According to Yang Youngmi who was a student in Germany at that time, a first edition was sent to Göttingen sometime that winter - it was the same year as its publication. Oh Sejong and Lee Moonho along with other colleagues secretly made copies of the book in a local print shop near Harz, which they then distributed. They did not decide on a price for the book, and all shared the production cost by contributing as much as they could. The inside pages were made by photocopying the seized first edition. Six photos capturing

the Gwangju Uprising come before the table of contents, which has been jumbled up with the foreword. The cover design was done by Gang Hyeonok who was an art student in Marburg. The 'Association of European Supporters for the May 18 Gwangju People's Uprising' is named on the front cover, and details of the publication have been typewritten on the other side of the back cover.

Printing and Distribution: The Association of European Supporters for the May Gwangju People's Uprising Memorial and Commemorative Projects

Contact: Postfach-Nr.3106 3400 Göttingen

Bank Account Details: Name: "Kwang-Ju"

Bank: Dresdner Bank

BLZ: 260 800 24

Konto-Nr.: 921 609 101

— Collection of Seoul Metropolitan Archives



- 옮긴이: 광주의거추모회
- 펴낸이: 일본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 펴낸날: 1985년 10월 21일
- 펴낸곳: 여자바오로회(女子バオロ会)

일본어판에서는 책 제목이 ‘광주5월민중항쟁의 기록’이고 부제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다.
표제지에 한글판과 마찬가지로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기록’이 표기되어 있다. 내지 내용과 순서, 차례 및 지도 배치는 한글판과 같고, 일본어판 발행 주체인 일본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회장 나고야 주교 소우마 노부오(相馬信夫)와 광주의거추모회의 글이 실려 있다.
앞표지에는 광주항쟁 피해자 유가족이 슬퍼하는 모습의 사진을, 뒤표지에는 시민군 사진과 계엄군의 진압 장면 사진, 1980년 5월 20일 밤 노동청과 MBC 부근의 전투 상황 지도 이미지를 싣고 있다. 각 장 시작 페이지에도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자·부상자·구속자 명단으로 구성되었던 한글판의 부록은 빠져있다. 총 238쪽이다.
‘세로쓰기’로 되어 있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어야 하고, 페이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독특한 구조의 책이다.

— 이재의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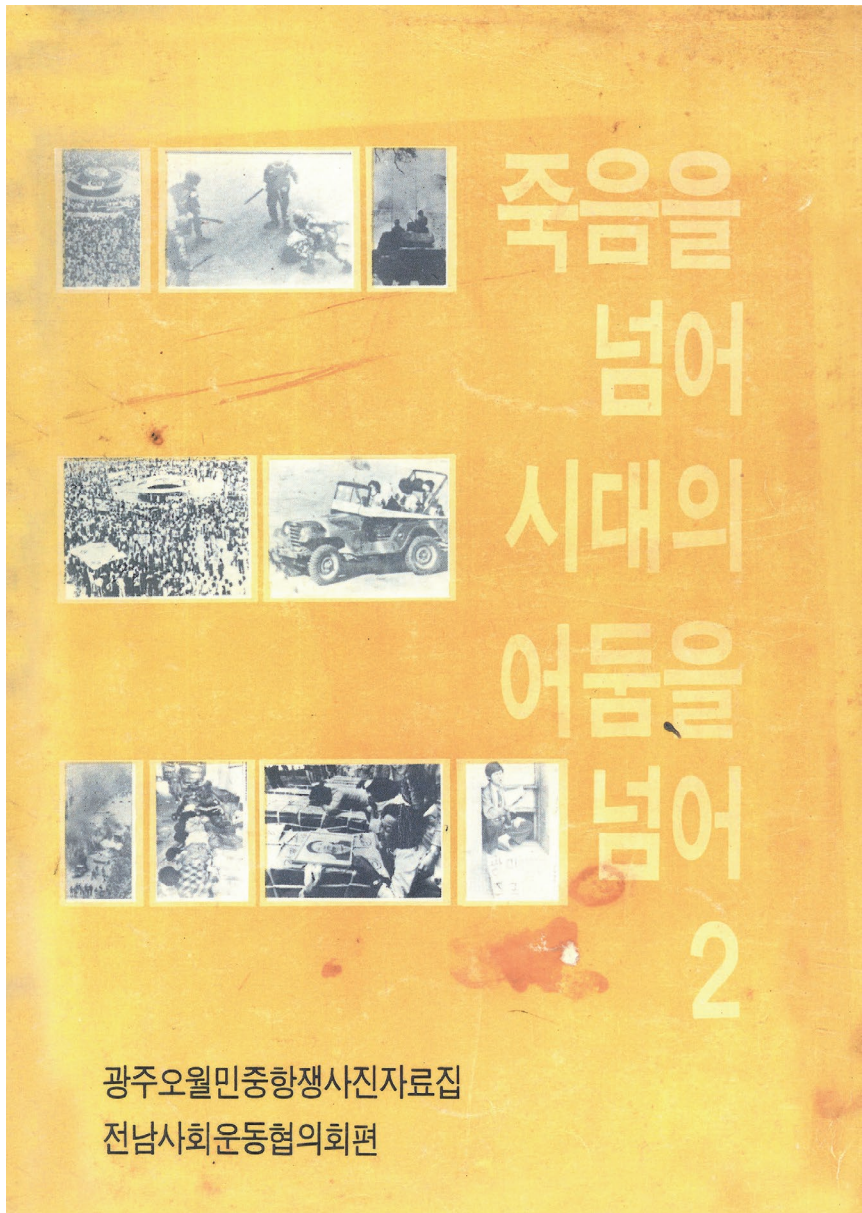
- Translator: Memorial Association for the Gwangju Uprising
- Publisher: Japan 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Women’s Society of Saint Paul in Japan
- Publication Date: October 21, 1985

This edition is entitled *Records of the May Gwangju People’s Uprising* and subtitled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As in the Korean editions,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is named as an editor with Hwang Sok-yong as a writer in the title page. The table of contents, the other pages and maps are no different from the Korean editions, except for the additional commemorative messages from the Memorial Association for the Gwangju Uprising and from Nobuo Soma, who was the bishop of Nagoya and the president of Japan 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The front cover shows a photo of a victim’s family grieving. On the back are images of the Citizens’ Army, the martial law army suppressing protesters, and detailed street maps around MBC and the Labor Office where the overnight battle took place on May 20, 1980. Every chapter begins with a photo vividly describing what was happening. Unlike the Korean editions, the names of the dead, injured and arrested are not included here. This edition is 238 pages.
What is unique about this Japanese edition compared to the others is its format. It is vertical writing, so the characters are written in columns going from top to bottom and the columns are ordered from right to left. However, the pages are ordered from left to right.

— Collection of Lee Jae-eui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2: 광주오월민중항쟁사진자료집』(1987)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2:
The May Gwangju People's Uprising in Photographs* (1987)



- 지은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 펴낸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 펴낸날: 1987년 5월 1일

1985년에 출판된 『넘어 넘어』 초판은 배포 금지와 압수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다. 전남사회운동협의회는 곧이어 사진자료집을 발간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책은 “삼가 2000여 광주영령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는 문구와 18인의 희생자 사진으로 시작하여, 260여 장의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 5월 18일 이전부터 5월 27일 이후까지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주항쟁 당시 사용되었던 유인물, 노래 가사, 신문 기사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 자체의 수집이 거의 불가능한 여건 때문에 만족할만한 것이 못됩니다. 밝은 세상에 다시 내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비매품으로 유통되었다.

— 5·18기념재단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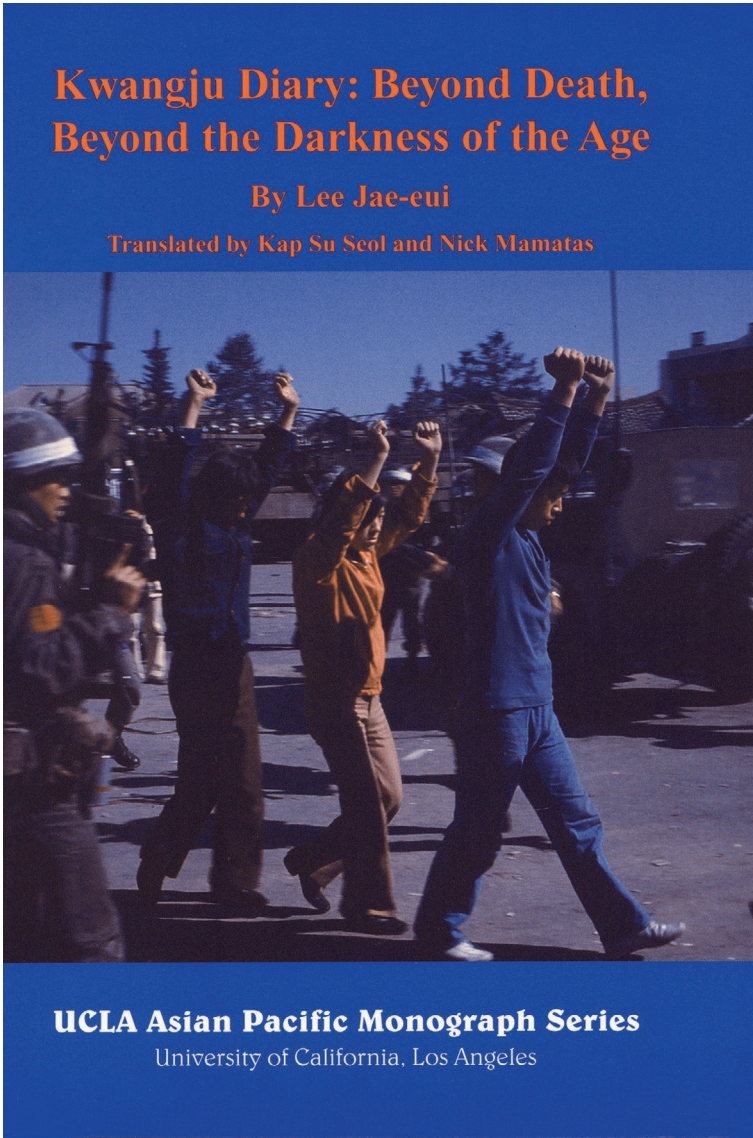
- Author: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 Publisher: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 Publication Date: May 1, 1987

First editions published in 1985 had few readers because they were mostly seized by the authorities and distribution was prohibited.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attempted to publish a collection of photographs documenting the Uprising, however it was difficult at that time. This edition begins with the sentence “This book is dedicated to two thousand souls of Gwangju” alongside portraits of eighteen victims. The book offers an account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Gwangju before and after the Uprising through about 260 photos. The nine chapters include various materials used during the Uprising – leaflets, songs, news articles, and details of victims. On the last page of the book, the author wrote: “This book does not fully describe what happened. Our activities in collecting photos and materials have been restricted. We will do it again when a bright future arrives.” This edition was distributed for free.

— Donation from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영어판 『광주 일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1999)

K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English edition (1999)



- 지은이: 이재의
- 옮긴이: 설갑수, 닉 마마타스
- 펴낸날: 1999년
- 펴낸곳: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 시리즈로 1999년에 출간되었다.

표지에 이재의가 지은이로 되어 있고, 광주항쟁 당시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AWSJ) 기자였던 노만 소프가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

내지는 지도 목록, 감사의 글, 역자 노트(설갑수, 닉 마마타스), 영어판 서문(이재의), 소개의 글(브루스 커밍스), 그리고 본문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한글판과 마찬가지로 네 개의 장이지만, 각 장의 절은 광주항쟁 이전 및 항쟁기간 날짜별로 구성되어 있다. 책 마지막에는 광주항쟁을 목격하고 분석한 팀 셔록의 글 「광주 일지: 워싱턴의 시각」이 실려 있다.

한글판에 포함된 18개의 지도에서 3개(2, 6, 11번)를 뺀 15개의 지도를 한곳에 모아서 보여 주고 있다. 해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지도와 광주시 지도가 추가되어 있다. 총 172쪽이다.

— 5·18 기념재단 기증

- Author: Lee Jae-eui
- Translator: Seol Kap-su, Nick Mamatas
- Publisher: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Publication Date: 1999

This edition, published in 1999, is in the Asian Pacific Monograph Serie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Lee Jae-eui is named as the author on the cover which features a photo taken by Norman Thorpe, a reporter for the Asia Wall Street Journal at that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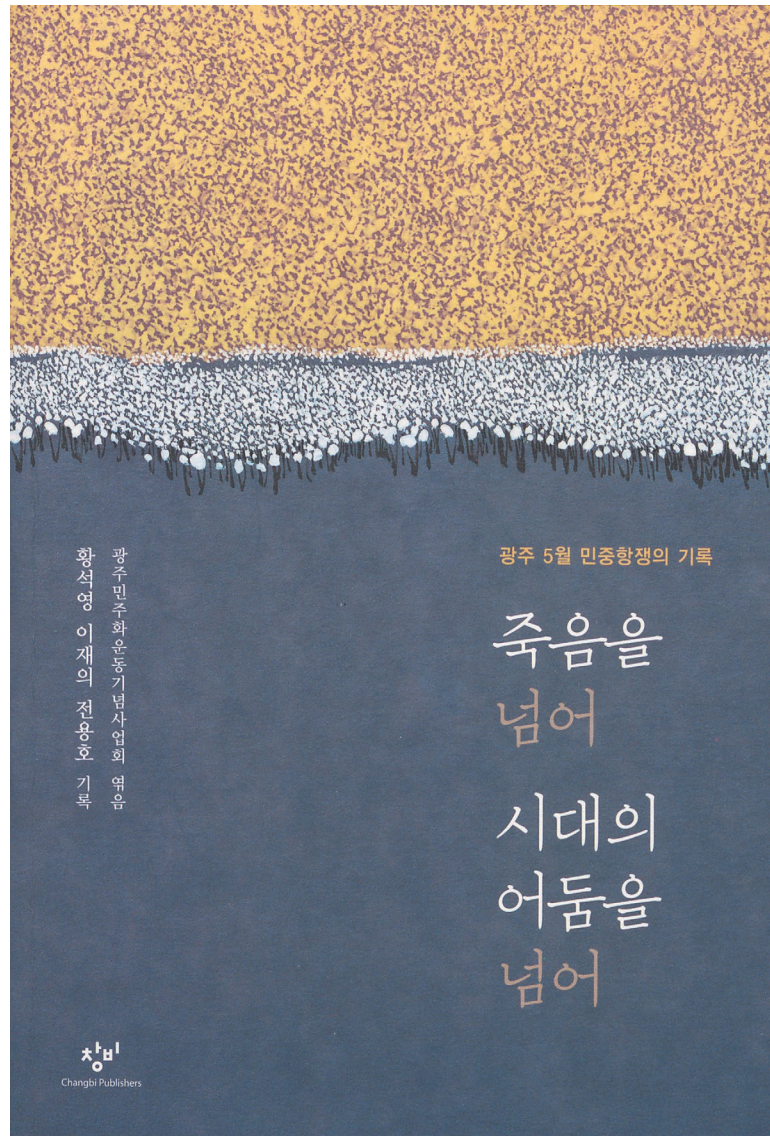
The contents include a list of maps, acknowledgement, translator’s note, the author’s preface to the English edition, and an introduction by Bruce Cumings. Similar to the Korean editions, this edition consists of four chapters which chronicle the Gwangju Uprising with dates, from the earliest stage to the final battle. Tim Shorrok provides an eyewitness account of the Uprising in his essay “Kwangju Diary: The View from Washington” included in this edition.

In addition to 15 situational street maps - 3 less than in the previous Korean editions as nos. 2, 6 and 11 have been removed -, maps of Korea and the city of Gwangju were included in order to help overseas readers with the geography. It is 172 pages in total.

— Donation from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개정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2017)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revised edition (2017)



- 지은이: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 엮은이: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펴낸이: 강일우
- 펴낸날: 2017년 5월 15일
- 펴낸곳: (주)창비

2017년에 나온 개정판이다.

초판과 달리 제1부 ‘밀려드는 역사의 파도’ 제2부 ‘광주여! 광주여! 광주여!’ 제3부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 18일 이전의 상황, 5월 18일부터 항쟁의 완성인 5월 27일까지 열흘간의 이야기, 그리고 항쟁 이후 미완의 과제들 등의 내용을 15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초판에서는 지도만 실었지만, 개정판에는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명을 부록에 적었고, ‘시간대별로 보는 10일간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일지가 작성되어 있다. 주석을 추가했고, 간행 위원 325명의 명단, 참고 문헌, 전남 및 광주 지역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지도를 수록하고 있다. 총 603쪽이며, 두 권짜리 큰 글자 판형으로도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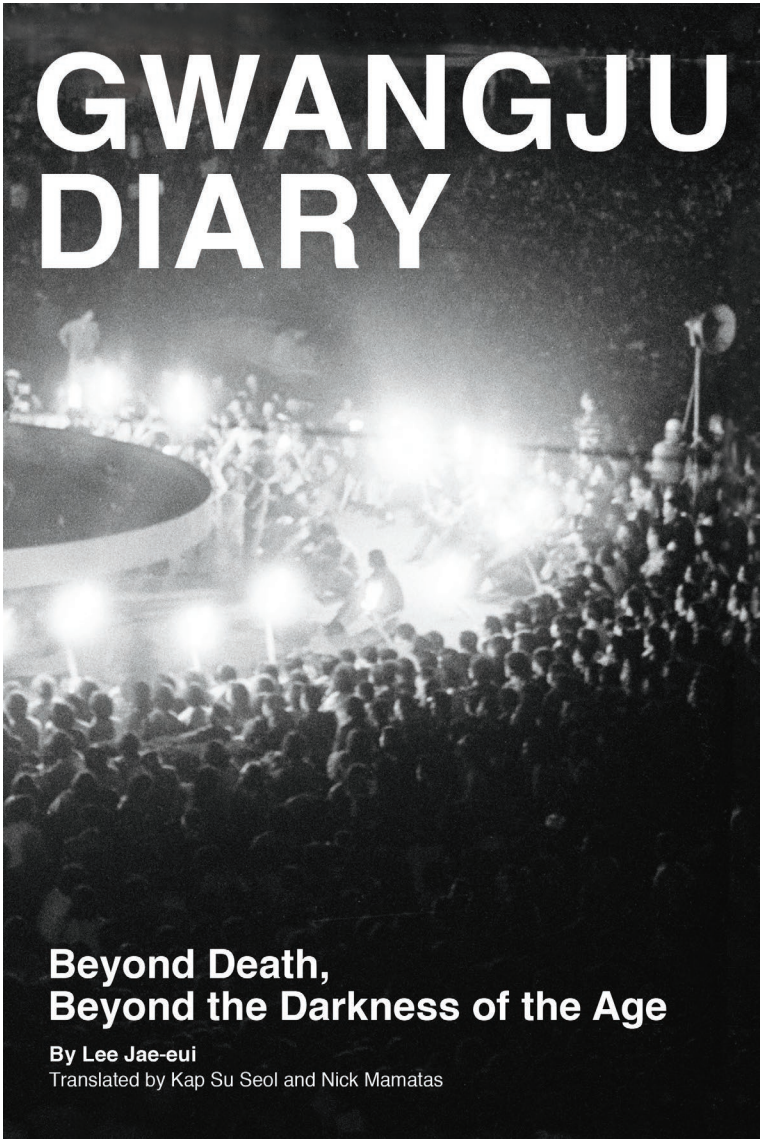
— 서울기록원 소장

- Author: Hwang Sok-yong, Lee Jae-eui, Jun Yongho
- Editor: Gwangju Democracy Foundation
- Publisher: Changbi Publishers, Inc. (Kang Il-woo)
- Publication Date: May 15, 2017

This revised edition published in 2017 consists of three chapters: Surging Waves of History; Gwangju, Gwangju, Gwangju; The End and A New Beginning. Under fifteen subheadings, the book not only recreates the circumstances before the Uprising, and what really happened between May 18 and 27 but also examines issues in the aftermath of the Uprising that needed to be tackled. While first editions have only maps, this revised edition includes photos.

The units of the martial law army are named as an appendix, and a journal entitled ‘Ten Days: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ith Timeline’ further illuminates the events. Some notes have been added, the names of 325 members of the publication committee, references, and maps of historical sites concerning the Gwangju Uprising are also part of this edition. This 603-page book has a large-print version in two volumes.

— Collection of Seoul Metropolitan Archives



- 지은이: 이재의
- 옮긴이: 설갑수, 닉 마마타스
- 펴낸날: 2017년 12월
- 펴낸곳: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에서 영어판 저작권을 확보하여 2017년 재출간했다.
내지 구성은 1999년 UCLA 버전과 거의 같다. 지도 목록, 감사의 글, 역자 노트(설갑수, 닉 마마타스), 영어판 서문(이재의), 소개의 글(브루스 커밍스), 본문으로 되어 있다. 감사의 글과 소개의 글, 그리고 팀 서록의 글은 약간 수정되었다.
앞표지에는 1980년 5월 16일 저녁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햇불 시위로 열린 민주화대성회 장면 사진이, 뒤표지에는 제임스 펜튼의 서평이 실려 있다. ‘광주’ 지명 영문 스펠링이 K에서 G로 바뀌어 있다. 총 163쪽이다.

— 5·18기념재단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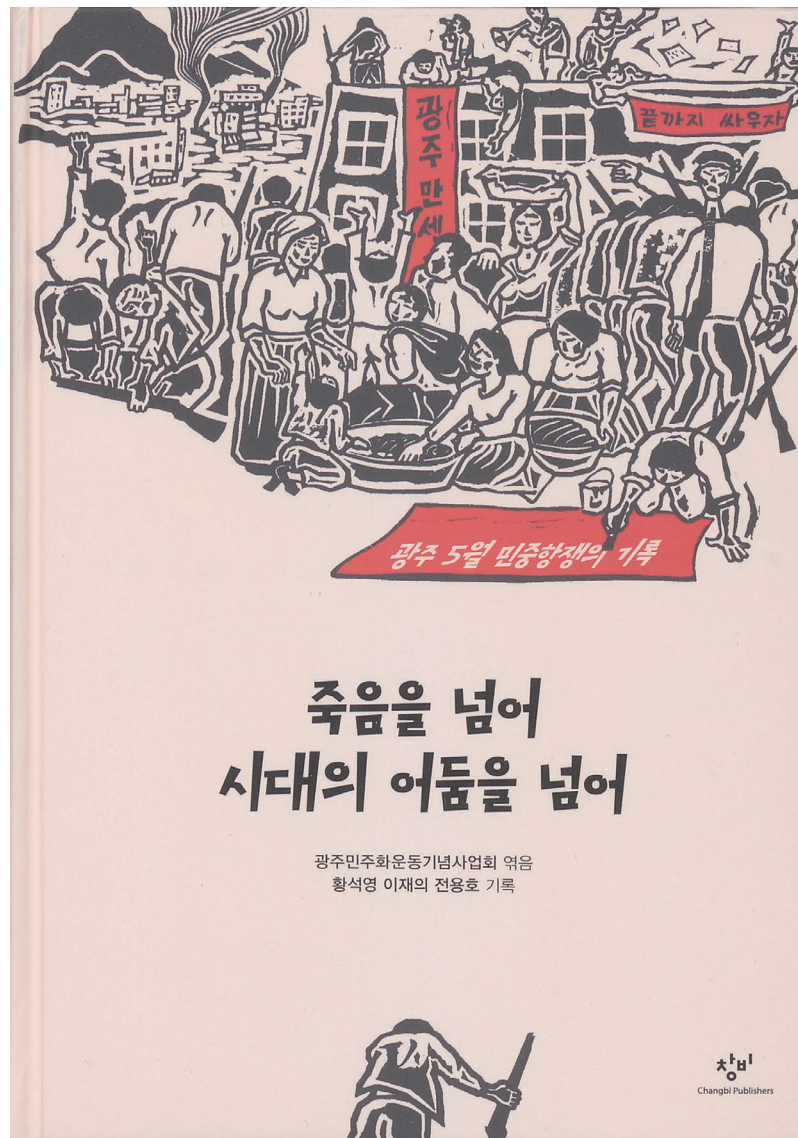
- Author: Lee Jae-eui
- Translator: Seol Kap-su, Nick Mamatas
- Publisher: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 Publication Date: December 2017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which reserves copyright of the English edition of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republished this English edition in 2017.
The inside pages are structured almost identically to the English edition published by UCLA in 1999. This book also includes a list of maps, acknowledgement, translator’s note, the author’s preface to the English edition, and an introduction by Bruce Cumings. The acknowledgement, the introduction, and the essay by Tim Shorrok have all been slightly modified.
The front cover features the scene at the Assembly for Democracy on May 16, 1980 in the square of the Provincial Office. It shows a crowd of people, some holding torches. A review by James Fenton appears on the back cover. The spelling of Kwangju has changed to Gwangju. 163 pages in total.

— Donation from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개정판 양장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2019)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revised edition (hardcover) (2019)



- 지은이: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 엮은이: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펴낸이: 강일우
- 펴낸날: 2019년 5월 15일
- 펴낸곳: (주)창비

홍성담의 1984년 판화 <대동세상-2>를 표지에 사용한 개정판 양장본이다. <대동세상-2>는 원래 단색(흑백) 판화이지만, 양장본 표지에서는 ‘광주만세’ ‘끝까지 싸우자’ 등 글씨가 있는 부분이 붉게 채색되어 있다. 또한 그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인물은 원작에서 ‘광주’를 붓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이라는 『넘어 넘어』의 부제목을 이미 쓴 것으로 바뀌어 있다.

2017년 개정판에서 두 쪽이 추가되어 총 605쪽이다. 725개였던 후주에 두 개가 더해졌고, 간행위원 숫자도 325명에서 701명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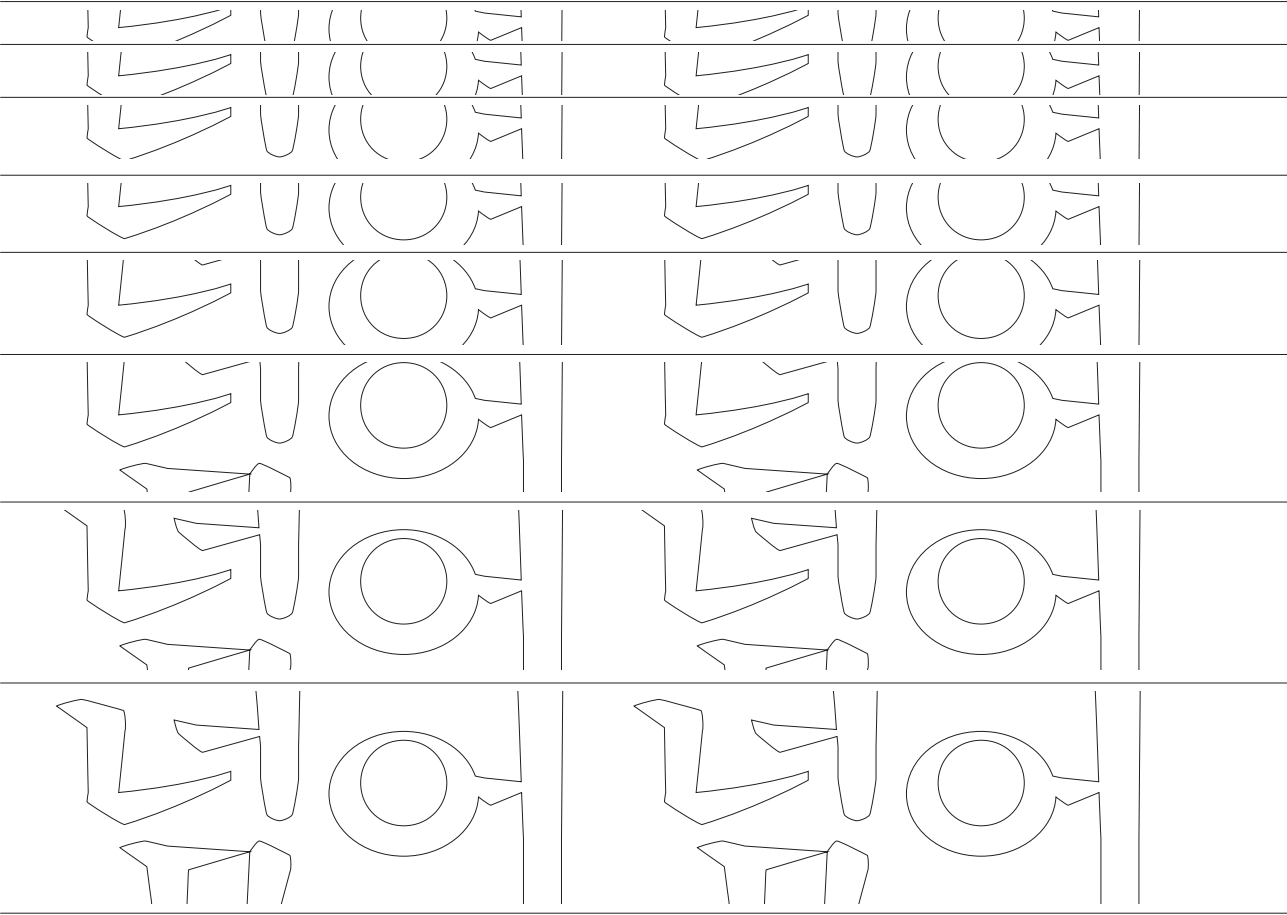
— 서울기록원 소장

- Author: Hwang Sok-yong, Lee Jae-eui, Jun Yongho
- Editor: Gwangju Democracy Foundation
- Publisher: Changbi Publishers, Inc. (Kang Il-woo)
- Publication Date: May 15, 2019

The print work entitled *Daedong Sesang* (*The Union World*) 2 (1984) by the Korean artist Hong Sung-dam appears on the front cover. The original woodblock print is in black and white, but this edition has a new version colored red where the letters read ‘Viva Gwangju’ and ‘Fight to the End’. Also the name of the city ‘Gwangju,’ written in the bottom right in the original print, has been replaced by ‘Records of the May Gwangju People’s Uprising,’ which is the subtitle of the book.

In comparison with the revised edition of 2017, this book has two more pages, making it 605 pages in total, and two additional notes. Also, the publication committee has grown from 325 to 701 members.

— Collection of Seoul Metropolitan Archives



‘넘어 넘어’를 다시, 새롭게 읽는다

— 김명인

문학평론가,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5·18민주화운동이 어느새 40주년을 맞는다. 그때 스물두 살 약관의 대학생이던 나도 어느덧 환갑을 넘겨 정년을 바라보는 초로의 대학교수가 되었다. 40년이면 그만큼 긴 세월이다. 하지만 나는 그 40년이 절대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40년 전의 기억은 내겐 여전히 현재의 것으로 끝없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계엄령이 내려진 서울거리를 달리던 한산한 시내버스 뒷자리에서 “광주에서 폭도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계엄군들이 진압 중”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견잡을 수 없이 오열을 터뜨렸던 1980년 5월 20일 정오는 나에게 여전히 바로 오늘 정오와 같은 실감으로 내 생을 가로지르고 있다.

광주사태이자 광주학살이자 광주민중항쟁이기도 했던 그 사건은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름 붙여져 거대한 국립묘지의 기념탑에 부조되어 있고 매년 정부주관의 기념식이 거행되고 수많은 항쟁주체들과 피해자들이 많건 적건 유공자로서 국가적으로 기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학살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실종자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며, 항쟁의 의미를 폄훼하고 항쟁주체들을 줄기차게 모욕하는 세력들이 백주대낮을 활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때 죽어간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랐던 새 세상은 여전히 도래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태라면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학살이라면 아직 장례는 치러지지 않았고, 항쟁이라면 여전히 시민군들은 총을 내려놓지 못했으며, 운동이라면 아직 그날의 노래는 끝나지 않는 돌림노래처럼 도돌이표 위를 맴돌고 있다. 나는 그때 함께 죽지도, 살아남아 떴떳하지도 못했으나, 그렇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 내 평생의 숙제로 남아있음은 잘 알고 있기에 나의 광주 역시 진혼되지 못했고, 나의 무기는 반납되지 않았으며, 나의 노래 역시 끝나지 않았다.

서울기록원에서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다시 그 광주를 소환한다고 한다. ‘넘어 넘어’는 1985년에 출간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을 말한다. 이 책은 광주에서의 피의 열흘이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신창이의 몸을 다시 일으켜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만들어 낸 역작 다큐멘터리이다. 학살자가 만든 진압의 기록에 대항하여 만든 피학살자이자 항거자들의 항쟁의 기록은 항쟁기간 광주에서 제작되고 배포되었던 「투사회보」를 비롯하여 힌즈페터 등 외국인 기자들의 기록과 영상물, 보도할 수 없었거나 삭제되었던 신문기사들, 기타 유인물이나 보고서의

형태로 가까스로 만들어졌던 산발적인 기록 등으로 많이 존재했지만, 그때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총합하여 광주항쟁의 전체상을 일목요연하게 복원해 내고, 게다가 이를 정식 출판 등록을 갖춘 출판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배포한 기록은 이 『넘어 넘어』가 최초이다. 전남사회운동협의회가 총합한 자료와 기록들을 작가 황석영이 책임정리하고 도서출판 풀빛이 제작 간행한 이 책은 ‘공식 상업출판물’의 형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광주에 관해 떠돌던 온갖 소문과 추측, 심지어 유언비어들의 거대한 산더미를 낱알이 엄정하게 재분류하여 최대한 팩트에 가까운 광주항쟁의 전체상을 복원해 냄으로써 지금까지도 광주항쟁에 관한 최초의 기념비적 기록물로 남게 되었다. 서울기록원이 5·18민주화운동 40년을 기념하며 35년 전 진실과 기억 투쟁의 최정점에 있었던 이 책을 재조명하기로 한 것은 그러므로 매우 뜻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당시 나는 도서출판 풀빛의 편집장으로서 이 책의 간행을 결정하고 실행한 고(故) 나병식 대표와 광주에서 자료꾸러미를 짚어지고 비상하게 상경하여 마무리작업을 했던 작가 황석영 선생을 도와 이 책의 편집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광주를 노래한 문병란 시인의 절창 〈부활의 노래〉한 구절을 따서 이 책의 제목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짓자고 제안하고 책의 장과 절을 나누어 소제목들을 붙이거나 다듬은 것도 나였던 만큼 이 책이 이처럼 재조명되는 것이 내게는 각별한 감회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 황석영 선생이 상경하자마자 철저한 보안 속에서 서울 시내의 모 여관에 ‘자가 격리’된 상태로 몇날 며칠 밤을 새며 마무리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완성된 원고가 을지로의 한 의로운 인쇄업체에 맡겨져 역시 밤을 도운 사진식자 작업과 당시 풀빛 편집진의 교정 작업 끝에 활자화되어 인쇄되고 제본된 뒤, 2만권에 달하는 초판 물량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고(故) 김승훈 신부가 본당신부로 있던 홍제동성당 뒷마당에 천막을 치고 보관했다가 결국 정보당국의 감시망을 피하지 못해 거의 전량이 압수되었던, 하지만 천신만고의 비밀작업 끝에 다시 세상에 내보내질 수 있었던 그 긴박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황석영 선생과 나병식 대표를 비롯하여 참여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 작업은 그저 책 한 권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눈물과 걱정과 부끄러움 없이는 차마 언급할 수 없었던 광주의 기억과 정신을 지속가능한 물질적인 표상으로 복원하는 치열한 투쟁이었다. 나는 지금도 밤새 사식 작업을 하던 여성노동자들이 원고를 앞에 두고 울면서 글자 한 자 한 자를 새겨나갔다는 전산사식 업체 대표의 전언을 잊을 수가 없다.

이 글을 쓰기 위해 35년 만에 그 책을 찬찬히 다시 읽어 보았다. 35년 전 책을 만드는 동안 원고 상태로, 교정 및 교열 과정에서, 그리고 인쇄 제본된 이후 등 세 번을 거듭 읽으면서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소문으로 이미 알고 있었 으면서도 실제로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계엄군의 광주시민들에 대한 끔찍한 만행과 그에 맞선 항쟁주체들의 공포에서 용기에 이르는 극적인 정념의 변천이었다. 나는 몇 번이나 울고 치를 떨면서 그 참극과 참극을 넘는 시민들의 위대한 정념과 행동에 몸서리쳤으며 그때 거기서 함께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저

주하고 자학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광주의 그 사건은 5·18, 광주사태, 광주민중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지만 마음속에서 그 사건은 오랫동안 ‘광주학살’이었고, 조금 점잖게 표현한댔자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온 갑작스런 충격으로서의 광주사태, 그것도 ‘사태(事態)’가 아니라 차라리 ‘사태(沙汰)’였다. 나머지 이름은 후인들이 개념적으로 재구성한 것일 뿐 나는 그 ‘학살’이라는 말이 주는 그 날것의 처참함과 원초적 충격에서 굳이 나를 해방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그 몸살을 앓는 것 같았던 최초의 독서경험이 나의 머리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 끔찍한 분노와 부끄러움의 몸서리로 먼저 기억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

하지만 35년 만에 『넘어 넘어』를 다시 읽고서야 나에게 그 40년 전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열흘간의 사건은 비로소 ‘사태’를 넘어 ‘학살’을 넘어 ‘항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읽히기 시작했다. 실제 사실도 그랬거니와 황석영 선생을 비롯한 기록자들이 더 힘주어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무차별 학살을 포함한 국가폭력의 참혹한 진상보다는 그에 대한 자연 발생적 저항이 점차 반민주, 반민중적 국가폭력에 대한 자각과 조직적 저항으로, 나아가 특정지역을 넘어서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한 시민/민중의 민주주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식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위대한 공동체적 정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제정신(?)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피학살자이자 피해자가 아닌 해방자이자 승리자, 건설자로서 자신들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항쟁’이면서 동시에 항쟁 이상의 능동적인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동안 비록 나 자신을 포함한 이 책을 만든 이들이 ‘민족민중주의’라는 1980년대의 시대정신과 변혁이념에 경도된 나머지 그 사건을 굳이 반민족적 지배집단과 외세에 대항하는 ‘민족민중혁명’의 여정 위에 위치시키려 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어도 좋다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40년이 지나는 동안 군부독재세력이 힘을 잃고, 직선제개헌이 이루어지고 세 차례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중이 지배한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시민에 의한 대의적 지배라는 의미에서의 ‘민주화’는 여전히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현재진행중인 과정이기도 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40년 전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항쟁은 4·19 이후 6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반민주적 지배구조와 문화구조, 심상구조의 청산을 위한 기나긴 도정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에서 굳이 ‘민중항쟁’이 아니고 ‘시민항쟁’이었다 해도 또 ‘광주민주화운동’이라 불린다 해도 그 역사적 의의가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평가 절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이 광주의 기억 속에 단순한 ‘민주화’를 넘어선 더 깊고 더 원대한 인간해방에 대한 염원과 어찌면 유토피아적 희원이 소중한 씨앗으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닌가 싶다. 광주는 내 심층심리 속에서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나에게 끝없이 깨어 일어나라

고 명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모두의 역사적 사건을 내 좁은 트라우마의 쇠창살 속에 가두어 둘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쯏록 서울기록원에서 모처럼 준비한 이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전시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최초의 전면적 기록으로서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고립무원의 고독 속에서도 광주의 시민들이 이어가고 완성시켰던 그 찬연한 항쟁을, 그때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시대의 고전으로 부활하게 되는 계기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친다.

Re-reading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from a Fresh Perspective

— Kim Myoung-in

Literary critic and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Inha University, Korea

This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I was a twenty-two-year old university student at that time and became a professor in my sixties not far off retirement. Forty years is long enough to change many things in one’s life. But I have never felt they were long years. Because what I experienced forty years ago endlessly recurs in my present life. When I heard on the news that “the martial law army is repressing riots causing disturbance in Gwangju,” I was sitting on the back seat of a quiet bus which was driving along the street in Seoul where martial law had been declared. I let out stifled sobs. It was around noon on May 20, 1980. That noon still impacts my life as if it was today.

The event, which is called the Gwangju Incident, the Gwangju Massacre, and the Gwangju People’s Uprising, now has another name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t has been inscribed on a giant memorial tower standing at a national cemetery. Every year the government leads a memorial ceremony, and those involved in the Uprising and the victims are honored and bestowed national merit. On the other hand, the truth of the massacre has not been completely revealed. People who disappeared at that time are still missing and those that constantly distort the meaning and denigrate the protesters are strutting around in broad daylight. The new tomorrow, dreamt of and anticipated by those who died and those who survived, has not yet emerged. If it was an incident, it is still ongoing; if it was a massacre, the funeral has not finished; if it was an uprising, the Citizens’ Army still cannot lay down their guns; if it was a movement, a song from that day lingering on a repeat sign is performed in a ceaseless round. I felt ashamed that I did not die with them and survived, and I knew that I would have a lifelong burden of guilt over the fact that I did not stay with them. Thus, the spirits of my city Gwangju have not yet been laid to rest, my gun has not been surrendered, and my song has not ended.

Th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has summoned the Gwangju through an exhibition entitled 《Telling the Truth: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Here,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is the title of a book published in 1985 and subtitled *Records of the May Gwangju People’s Uprising*. This documentary book is a masterpiece written by survivors from the bloody ten-day confrontation who, despite their traumas, faced the fear

of death to document what had happened. There were a number of documents and materials made by the rebels and victims opposing the false reports of the crackdown circulated by the perpetrator: for instance, the *Militants’ Bulletin* produced and distributed in Gwangju during the Uprising; reports and films by foreign correspondents such as Jürgen Hinzpeter; articles that had been left out of the news and unavailable to the public as well as other piecemeal and sporadic handouts and reports. However,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is the first ever book to encompass all the records and carefully restore the entire scene of the Gwangju Uprising, and the first to be openly distributed by an officially registered publishing company. Hwang Sok-yong took responsibility for editing the records and source materials collected by the South Jeolla Council for Social Movements. The book published by Pulbit Books and officially qualified as a ‘commercial publication,’ firmly and fully re-examined all sorts of rumors, rife with guesswork, and even a huge profusion of scandals about Gwangju. It recounts the whole story sticking closely to the facts and thereby is still acknowledged as the first monumental documentary concerning the Gwangju Uprising. Thus, it is deeply meaningful that Seoul Metropolitan Archives commemorate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by highlighting this book, which led the fight for truth and remembrance thirty-five years ago.

In 1985, as a chief editor of the Pulbit Books, I wa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the book. I assisted the publisher, the late Na Byeongsik, who made a firm decision to publish the book and Hwang Sok-yong the writer who resolutely came all the way from Gwangju to Seoul with a bundle of materials to finish the work. Moreover, I suggested the title of the book could be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a phrase which I found in an excellent poem *A Song of Rebirth* by the Korean poet Moon Byung-ran. I also added subheadings after dividing the full text into chapters. So, the fact that the book is now to be re-examined through this exhibition touches me greatly. As soon as Mr. Hwang arrived in Seoul, he was in an inn night and day to do the final work in quarantine for absolute secrecy. The final version of the manuscript was sent to a righteous printshop where, after going through the stage of phototypesetting and galley proofs by the editorial team over night, and twenty thousand copies of the first edition were printed and bound. We stored them in a tent at the backyard of the Hongje Catholic Church with a help of the late Father Kim Seung-hoon, but failed to escape the surveillance of the authorities, resulting in confiscation of almost all copies. Nonetheless, sometime later after undercover work and all sorts of difficulties, the book came out into the world. Memories of such uneasy and pressing times flash through my mind like a phantasmagoria. To all those involved in this project, including Mr. Na and Mr. Hwang, it was not just a publication project but a fierce fight to restore, in a sustainable and material form, the spirit of Gwangju and the memory that we could not bring up without tears, anger and shame. I still cannot forget the director of the phototypesetting office; he told me that women who worked as typesetters through the night had composed every piece with tears in their e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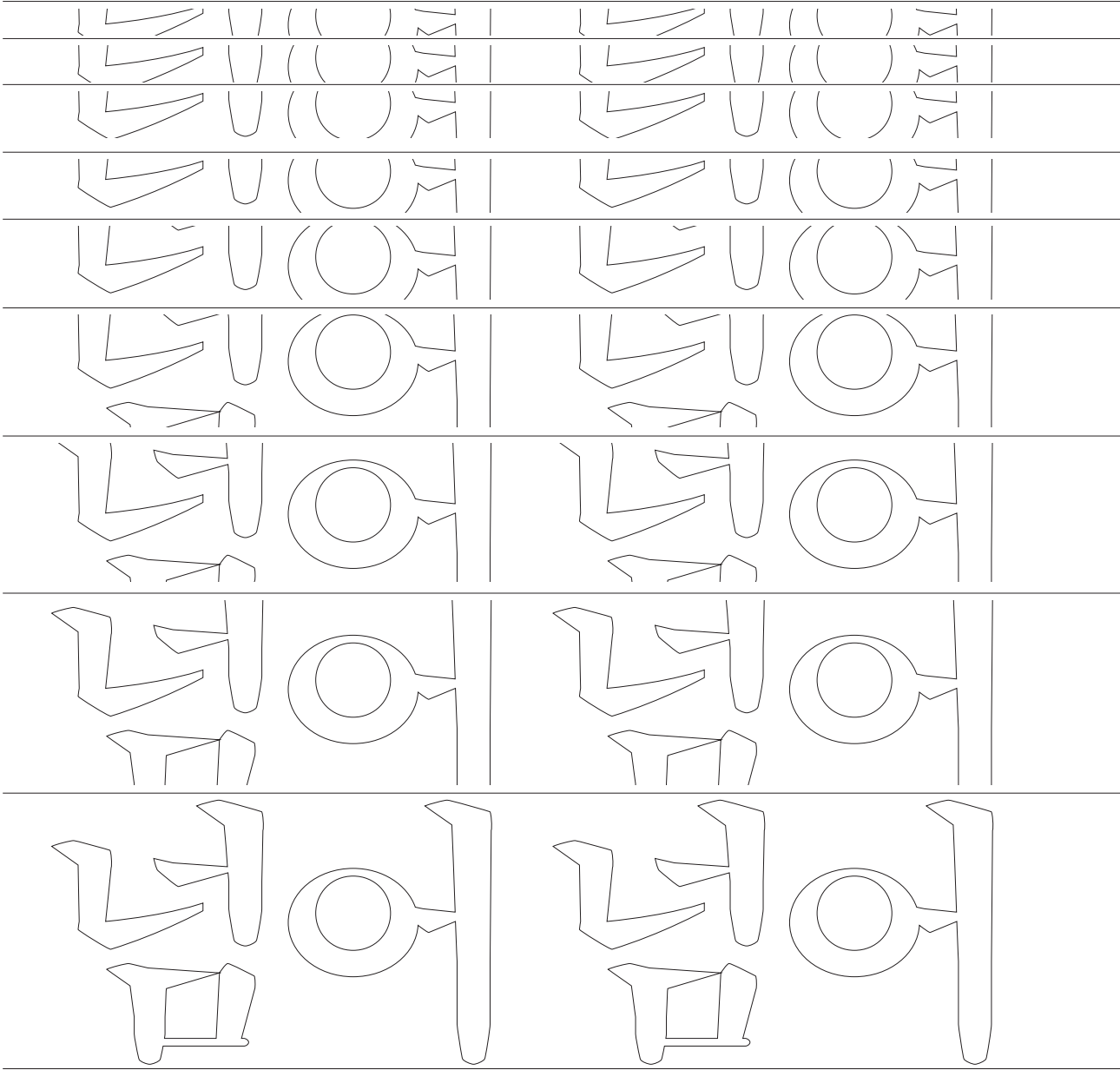
I thoroughly read the book again to write this essay. It has been thirty-five years since I last read it. I read it three times, as a manuscript, in the galley proof stage, and after being printed and bound. I was taken by the extreme brutality of the martial law troops which I knew about but was afraid of facing in reality, as well as by the dramatic changes in those involved - from fear to courage. I cried many times and I was infuriated. I trembled at the tragic events and the citizens’ great passion for justice and action following the tragedy. I cursed and blamed myself for not staying with them. Since then, 10 years, 20, 30 years have passed, and the event has been called various names such as May 18, the Gwangju Incident, the Gwangju People’s Uprising, and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However, in my mind, it was the Gwangju Massacre for a long time and if I were to use a less violent term, it would be the Gwangju Incident. In fact, it was an ‘avalanche’ that one day just hit me rather than an ‘incident.’ To me, these other names are nothing more than conceptual compositions by today’s generation. I did not want to free myself from the gruesomeness and the primeval shock of the rawness that the word ‘massacre’ describes. I believe it was because my first experience in reading the book, when I felt as if I ached all over, was imbued with terrible anger and shame rather than intellectual.

Only after reading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Age* again, did I begin to think of the ten-day long event as more than an ‘incident’ or a ‘massacre,’ and instead think of it as an ‘uprising’ and a ‘democratization movement.’ Finally, I could read the book properly and understand what Hwang Sok-yong and other writers had highlighted. They devoted their attention not to the horrendous injuries or indiscriminate slaughter caused by state violence, but to how the spontaneous protests against the brutality of the military rule had given rise to an awareness of state violence against citizens, democracy and protest. Also, the authors underlined the development of the protests into conscious practices which aimed at establishing democracy for people not just in one region but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as well as the great spirit of community shared by Gwangju citizens. The citizens are neither the massacred nor the victims; they have already transformed themselves into liberators, victors and builders. In this sense it was an ‘uprising’ and at the same time something even more positive.

All of us who made this book were occupied by the spirit of the 1980s, which was known as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and by ideas around reformation, thus we wanted to position the event on a path toward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against an anti-national ruling group as well as foreign forces. However, reading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once again and looking back on that time, I have come to admit that it is not wrong to call this event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Over the last forty years, the military dictatorship has lost their powe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have provided for direct elections, and we have witnessed three peaceful handovers of political power. Now we have a ‘democratic government.’ However, in essence,

in the sense of democracy meaning rule by the people - rule by representatives who are elected by the people - ‘democracy’ is still one of the primary tasks that Korean society has to tackle as an ongoing process. The uprising that took place in Gwangju forty years ago has been at the heart of the long journey to end the system of anti-democratic rule, culture and imagery since the April 19 Revolution in 1960. Thus, even though it may be called a ‘people’s uprising,’ ‘citizen’s revolt’ or the ‘Gwangju Uprising,’ the choice of name should not harm or denigrat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What we ought to do is only to remember that this memory of Gwangju contains invaluable seeds of deeper and greater hope for human freedom and perhaps for a utopian dream beyond ‘democratization.’ Although Gwangju still lies deep inside me as a painful injury and constantly commands me to wake and stand up, I should admit that I can no longer confine this historical event to a narrow cage of my trauma.

In closing, I hope this exhibition will add impetus to the revival of the first ever comprehensive record of the Gwangju Uprising,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as a classic of our time, allowing those who experienced the day to reflect on the glorious uprising achieved by the people of Gwangju alone and unaided, as well as providing younger generations with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it.



5·18을 기억하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

과거에 대한 기억과 성찰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사의 전승은 늘 다음 세대의 몫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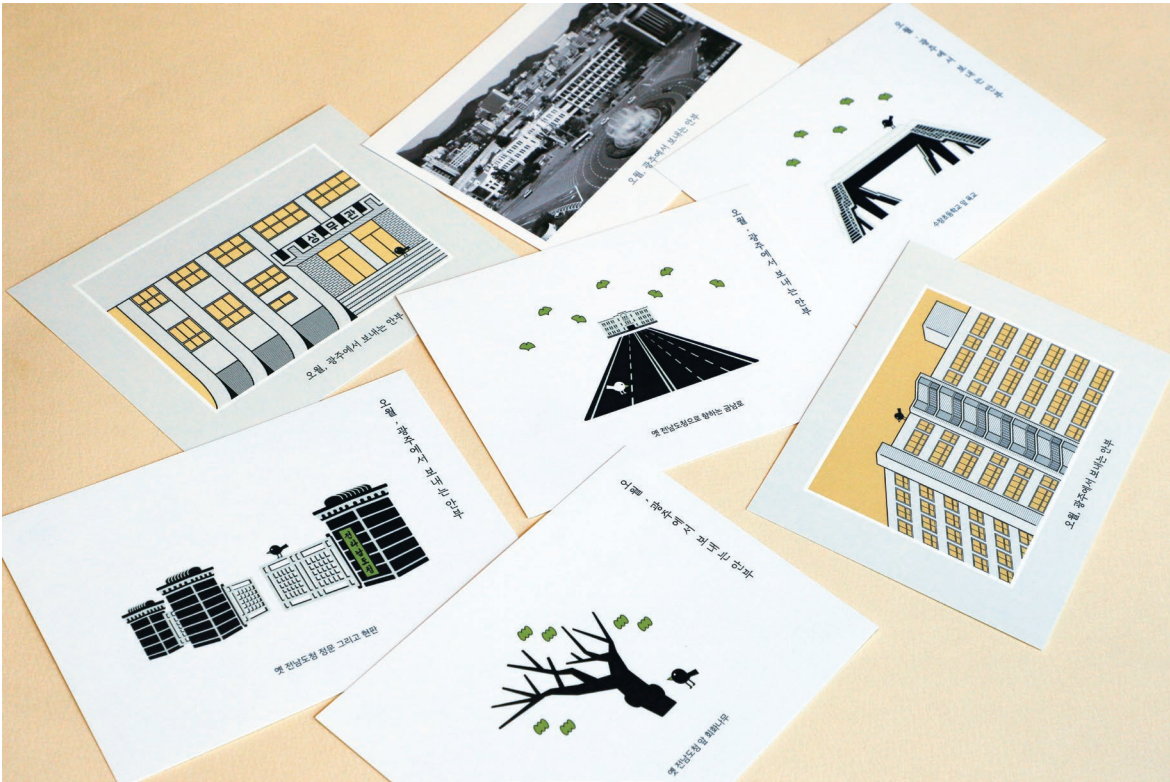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은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증언자가 전하는 기록과 기억으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40년 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다.

Future Generations Speak of the Gwangju Uprising

To examine the present through remembrance and reflection of the past, to endeavor to make a bright future, and to hand down history, always have been, and always will be each generation’s responsibility.

The history of the Gwangju Uprising continues not only with its ‘victims’ but also with records and memories of new witnesses. It is time to listen to young people who use a variety of media and forms to tell of Gwangju in May, 40 years ago.

오월안부프로젝트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 (2017-2020)
May Greetings, *Greetings from May of Gwangju* (2017-2020)



오월안부프로젝트는 ‘당신의 오늘과 오월의 그날’을 잇는다는 모토 아래 엽서와 이미지를 매개로 일상에서 오월 광주를 기억하는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팀이다. 이들의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는 1980년 ‘오월’을 지켜봤던 나무, 길, 육교, 건물 등의 존재들을 엽서 이미지로 불러내어, 엽서를 쓰고 받는 행위와 과정을 통해 일상에서 오월을 기억하게 한다. 2017년 5월부터 시작한 이 엽서 쓰기 프로젝트는 옛 전남도청 별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동네 책방, 극장, 카페 등에 엽서와 우체통을 비치해, 광주 시민과 광주를 찾은 이들이 손쉽게 엽서를 쓰도록 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이야기를 담아 국내 및 해외로 엽서를 보냈고, 친구와 가족에게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들에게 안부를 남겼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오월 영령들과 당시 시민군에게 보내는 인사 등 부칠 수 없는 엽서들이 쌓여 갔고, 그런 엽서들을 모아 전시 《부치지 못한 안부들》을 열기도 했다.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 (2017)



<옛 전남도청 정문 그리고 현판> (2017)



<오월의 봄> (2018)



<5·18민주광장의 상무관> (2019)



<옛 전남도청으로 향하는 금남로> (2018)



<수창초등학교 앞 육교> (2018)



<금남로 전일빌딩> (2019)



<5·18민주광장과 시민들> (2020)

오월안부프로젝트 김지현(기획), 윤연우(그림), 김향득(사진)
 인스타그램 @maygreetings
 이메일 may_greeting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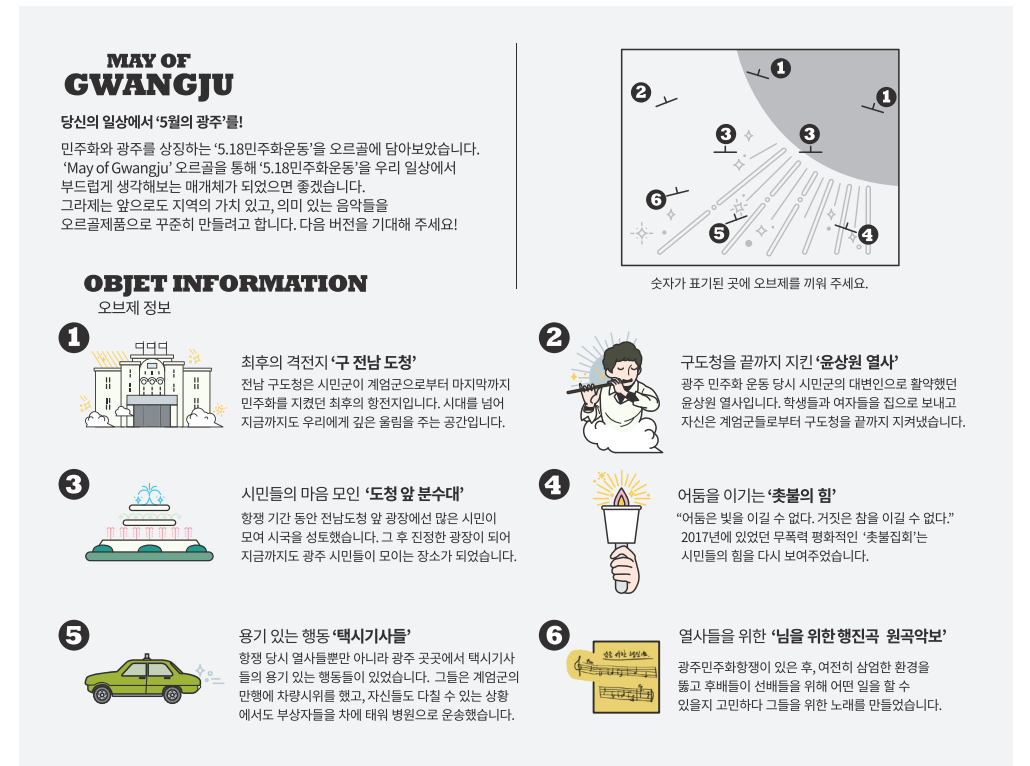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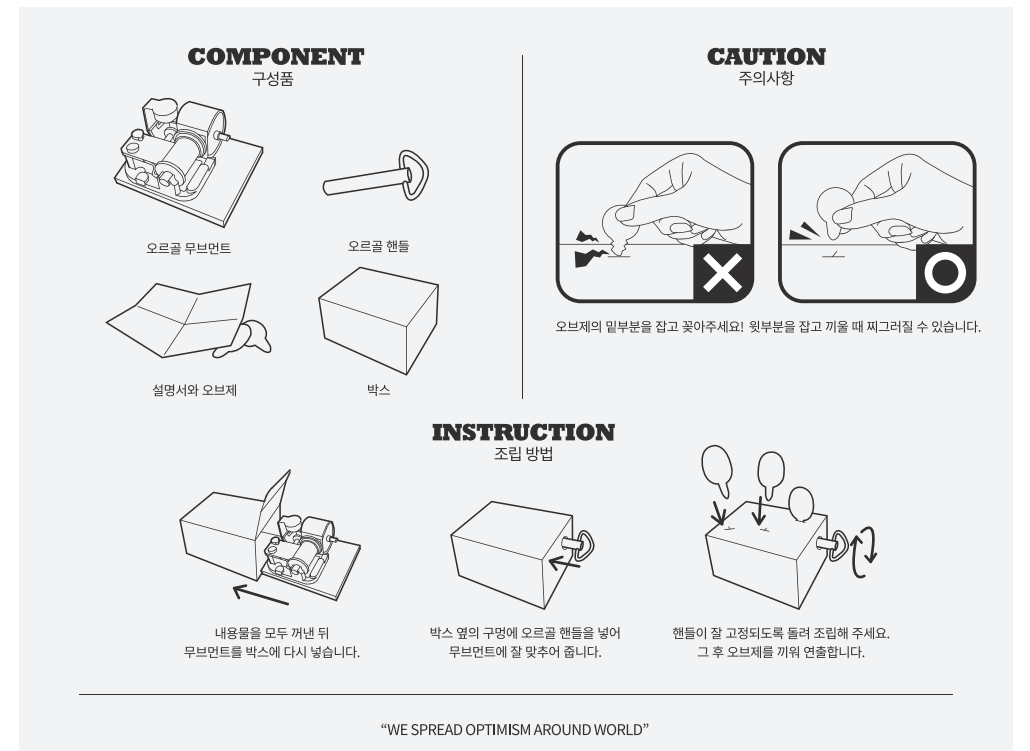
박은현 <‘광주의 오월’ 오르골> (2017-2020)

Park Eunhyun, *May of Gwangju* (2017-2020)



<광주의 오월> 오르골> 프로젝트는, '일상에서 부드러운 방법으로 광주의 오월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5·18과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은현은 오르골을 통해 사람들이 편하고 어렵지 않게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생각해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오르골의 태엽을 감으면 여덟 마디 정도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들을 수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여섯 가지 상징물을 오브제로 만들어, 사용자가 직접 오르골 무브먼트가 담긴 상자 위에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후의 격전지인 옛 전남도청,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킨 윤상원 열사,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도청 앞 분수대,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 준 택시 기사들, '님을 위한 행진곡' 악보, 그리고 오월 정신을 이어받은 2017년 촛불 집회의 상징인 촛불 등 6개의 상징물을 직접 끼울 수 있는 구조이다.



기획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박은현
@graze.official
www.facebook.com/graze.official



<장순희 할머니 '애호박요리'> (2019)



<광주 할머니들이 알려 주는 여름 별미 '설탕국수'> (2019)

<오월식탁>은 5·18민주화운동과 시간적 거리가 있는 후속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기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먹방’과 ‘쿡방’ 형식을 통해 광주 여성들의 오월 이야기를 들려준다. 평범한 시민들이 완성한 숭고함과 경이로움을 알리기 위해, <오월식탁>은 사건의 잔혹함과 폭력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날의 광주에도 우리의 일상처럼 밥을 안치고, 반찬을 만들고, 이웃을 도우며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독립큐레이터팀 장동컬렉티브는 사회·문화 속의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한 예술 실천적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장동컬렉티브는 ‘밥 먹듯이 기억할 수 있는 오월’을 꿈꾸며 요리법과 이야기를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정화숙 어머니 '상추튀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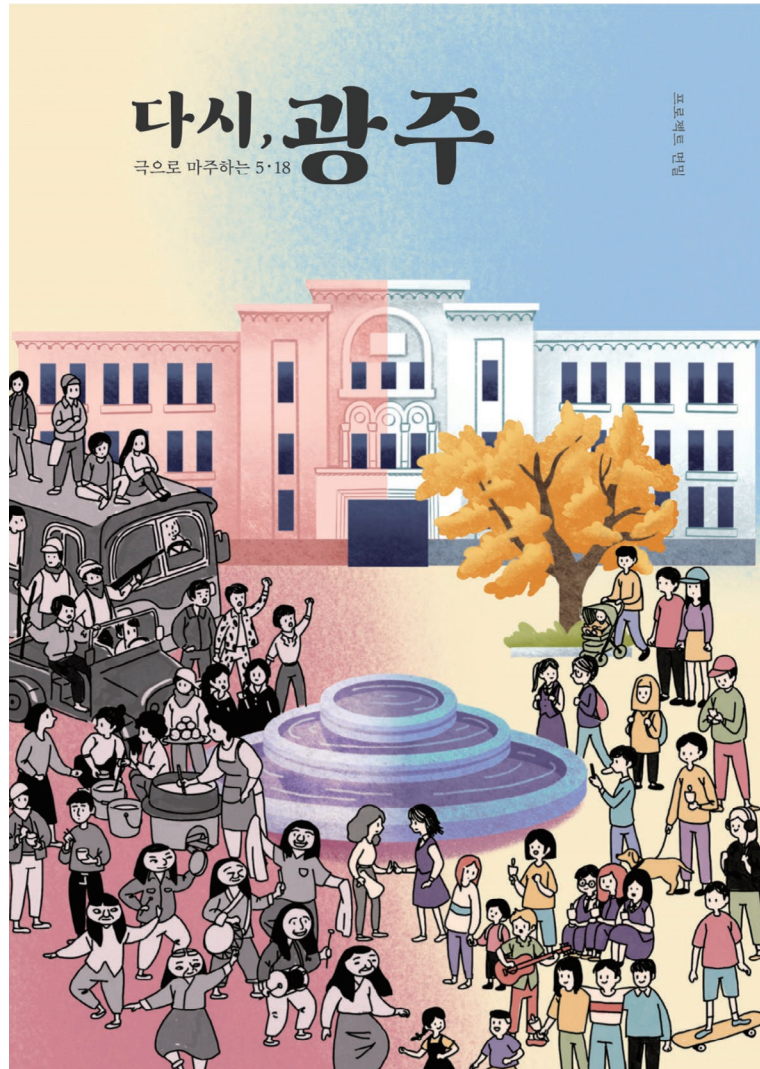


<심순자 할머니 '방아잎전'> (2019)

장동컬렉티브
인스타그램
김소진, 이하영
@jangdong_collective
@5maytable

면밀 <극으로 마주하는 5·18> (2019-2020)

Myeonmil, *Ohweolgeuk: The May 18 Performance* (2019-2020)



『다시, 광주: 극으로 마주하는 5·18』(2019)

두 명의 문화기획자가 만나 결성한 면밀은, ‘오월극’ 아카이브를 통해 광주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오월극’은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공연극을 통칭하는 용어로, 극회 ‘광대’를 시작으로 광주의 많은 극단들이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 민주 열사의 이야기, 소시민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오월 정신’을 이어왔고 지금도 계속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면담은 네 개 극단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했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 『다시, 광주』에 담아냈다. 이 책에는 놀이패 신명, 극단 토박이, 극단 푸른연극마을, 극단 얼·아리의 공연 25편에 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서울기록원 전시에서 각 극단의 오월극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극단 토박이 <잠행> (현 그들은 잠수함을 탔다) (1987)

극단 푸른연극마을 <고백: 얼굴 뒤의 얼굴> (2019)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 (2010)

면밀
인스타그램

이단비, 조수현
@myeonmil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불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은, 인권과 인권법의 침해에 관한 기록이 보존되고 접근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존 기록 안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아는 것을 포함한 ‘알 권리’가 개인의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이며, 국가는 기억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다.

2016년 9월 서울 세계기록총회에서 국제기록회의(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프로그램위원회는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 기본 원칙’이라는 초안 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문서에는 유엔이 명시한 인권과 자유를 바탕으로 기록 관리 전문가들을 위한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보존 기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존 기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정의와 공익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관 및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인권의 옹호와 증진은 아키비스트의 존재 이유이자 기록관 운영의 핵심 원리가 되어가고 있다.

서울기록원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아카이브의 시대적 사명을 위해 기획되었다. 아카이브는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인류를 위한 집단적 기억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과거의 영광만이 아니라 상처와 부끄러움까지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이것은 ‘기억 기관’인 서울기록원에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로 다가서는 디딤돌이다.

1. 기록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인권을 기록한 보존 기록을 보호하는 기록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 인권 보존 기록의 관리가 보존 기록으로서의 무결성과 증거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기록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인권이나 인도주의 법률의 침해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존 기록의 폐기를 방지해야 한다.
3. 기록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그들이 속한 기록 보존 기관의 범위와 사명 안에서 보존 기록을 선별·수집·보유해야 하고, 세계인권선언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 없이 해야 한다.
4.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보존 기록을 평가 결정할 때마다, 평가 대상 보존 기록이 인권에 관한 보상 청구를 지원하거나 또는 식별하게 하는 데, 인권 침해자의 신분 확인을 지원하는 데, 인권 침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의 신원을 밝힐 수 있게 하는 데, 인권 침해로 이끈 사건들을 밝혀낼 수 있게 하는 데, 실종자의 운명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개인들이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어서, 보존 기록이 가진 유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5. 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 법률의 위배와 관련된 보존 기록이 반드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기관은 이러한 보존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과 기타 자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6. 기록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이행기 정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적 기관의 보존 기록이 그 기관의 존속 기간과 종료 이후에도 보호되고 보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에서 생산된 어떠한 보존 기록도 그것을 폐기하기 전에 대중에게 공지해야 한다.

* 국제기록회의 인권 작업단,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국제기록회의 작업 문서), (2016.9.)

The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claims that it is “the state’s duty to preserve archives and other evidence concern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and to facilitate knowledge of those violations” (E/CN.4/2005/102/Add.1). Also, it declares that the right to know is both a personal and collective right and it includes knowing what is archived, and that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preserve mem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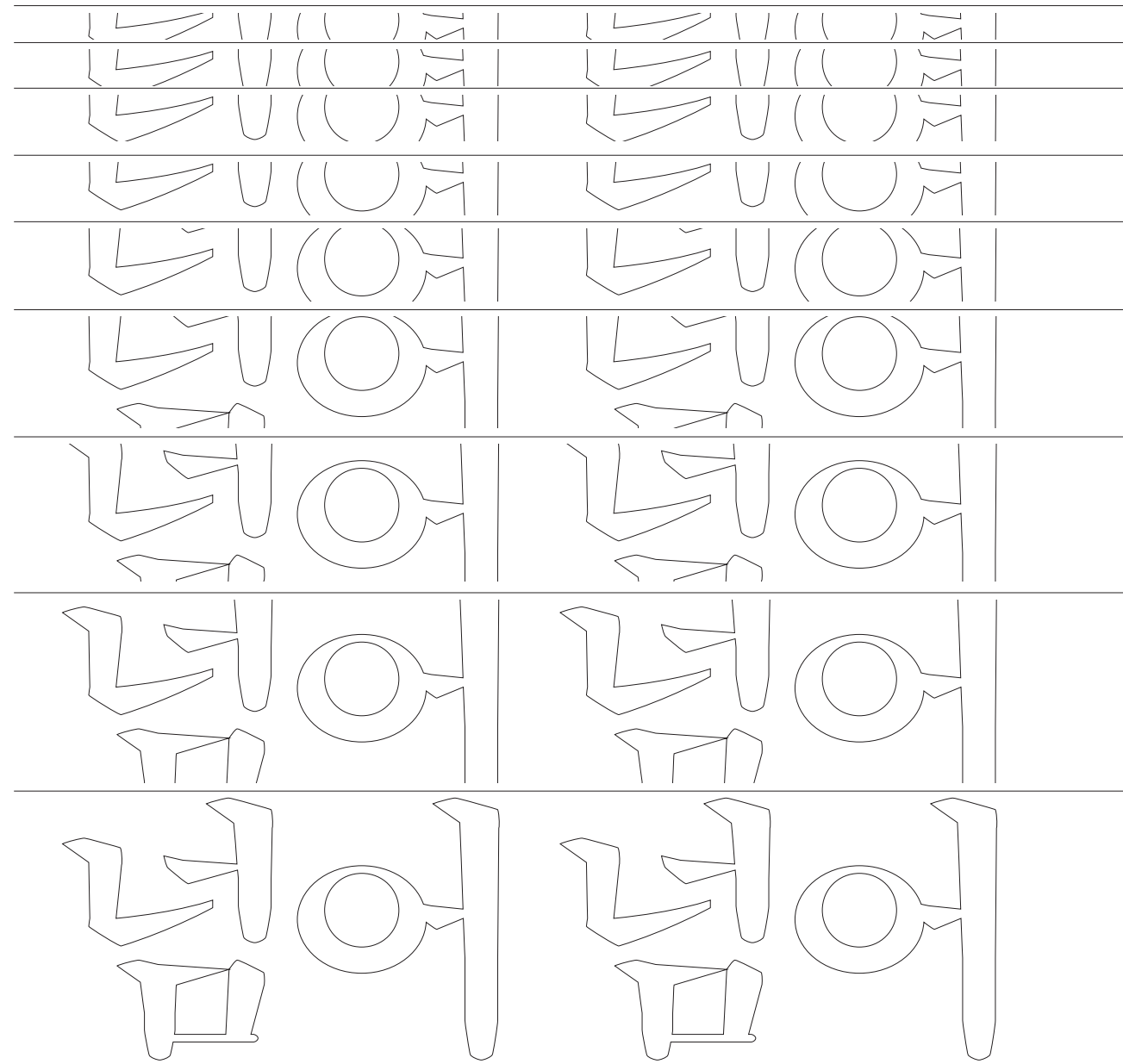
At the Congress in Seoul in September 2016, the Program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 unanimously endorsed the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in Support of Human Rights*. This ICA working document provides archival professionals with clear guidelines, based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claimed by the UN.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have a crucial role to play in providing archival services to all in need of them as well as in cooperating with governmental and other institutions for justice and the public good.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gives proper endorsement to the role of archivists and becomes a core principle of records management.

Commemo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th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presents a special exhibition 《Telling the Truth: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to meet the demands of the age. An archive is a custodian of collective memory, like a museum or a library. Remembering and archiving not only the honor of the past but also the scars and the shame are both a right and a duty of th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as an institution concerned with memory as well as a stepping stone towards the future.

1. Institutions,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should create and maintain recordkeeping regimes that protect archives that document human rights and should act to ensure that the management of those archives preserves the integrity of the archives and their value as evidence.
2. Institutions,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should prevent the destruction of archives that are likely to contain evidence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law.
3.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should select, acquire and retain archives that are within the scope and mandate of their archival institution, without discrimination that is proscrib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4.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should consider in each appraisal decision the utility of that body of archives to support or identify a claim of human rights, to assist in the identification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o permit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who held positions that might have involved them in human rights violations, to clarify the events that led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to help resolve the fate of missing persons, or to enable individuals to seek compensation for pa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5. Governments should ensure that archives concern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are preserved. Governments and private institutions ensure the provision of sufficient funding and other resources for the professional management of these archives.
6. Institutions,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should ensure that the archives of temporary bodies established to assist in transitional justice are protected and preserved, both while the entity exists and after it closes; public notice should be given prior to the disposal of any archives from these bodies.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Human Rights Working Group,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in Support of Human Rights (A working document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September 2016)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다시, 넘어 넘어(2020)

지하에서 쓰이고 유희한 1980년 광주의 기록이 2020년 사람들의 모습과 목소리에 담겨 되살아난다. 광주 및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자신의 글, 타인의 기억, 또는 처음 접하는 역사들 소리 내어 읽는 여러 사람들을 담은 이 영상은, 고립되었던 광주와 서울을 우리에게 환원하는 진실로 불려들이려 하는 시도이다.

감독: 송수민 / 상영 시간: 14분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I·SEOUL·U



Telling the Truth :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Generals of 1980 Gwangju asked us to realize the victims' agonies, asking that they would never know the truth. Without Gwangju, this country would have waited much longer to bring about democracy. One can say that a series of democratic struggles in the 1980s was an attempt of the citizens themselves to discover the truth behind the Gwangju Uprising in May 1980. The victims led the way, and then a large number of conscientious and righteous people expressed support for and solidarity with them, promising to be righteous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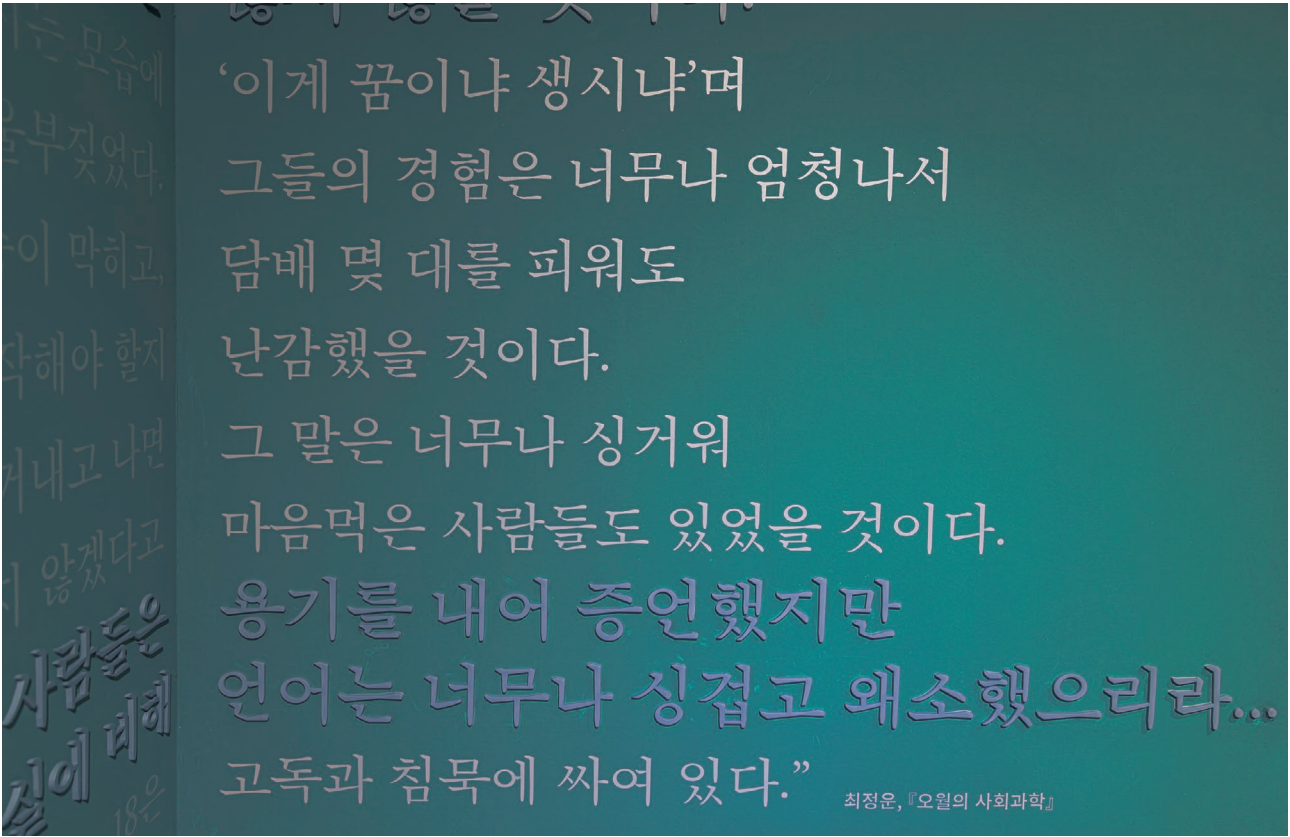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to reform the public of the truth about Gwangju. One has been provided testimony to their painful past and the way they collected but also produced evidence. The report published in 1981, is granted a special status as the first fruit of citizens' efforts. We thought solving a puzzle with scattered pieces, and these fragments of truth have eventually been gathered in a book. This has been a long process of disclosing the real truth as 'alternatives' (alternatives). It was also a consequence showing by citizens who effectively exercised their right to know the truth.

1980년 광주를 둘러싼 기억 재구성 프로젝트
Special Exhibiti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2020. 5. 18. — 2021. 3. 28.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1980년 광주와 기억은, 독재 정권에 맞서 마침내 폭발한 1987년 6월 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광주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아마 더 늦게 찾아왔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시민들 스스로 1980년 5월 광주 항쟁의 진실을 찾아가는 오디세이였다고도 할 수 있다. 광주의 피해자들이 먼저 일어났고, 이내 전국의 수많은 양심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자와 연대해 '당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5·18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여 증언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985년에 출판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그러한 노력의 첫 번째 성과로서 특별한 위상을 가진다. 마치 흩어진 그림 조각을 맞춰 퍼즐을 완성해 나가듯이 이름 없는 시민들은 각자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그날의 일을 함께 나누었고, 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모여 마침내 「넘어 넘어」가 세상에 나왔다. 이는 국가가 규정한 과정이자, 진실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을 시민들 자신의 알 권리로 만들어 낸 용기의 나눔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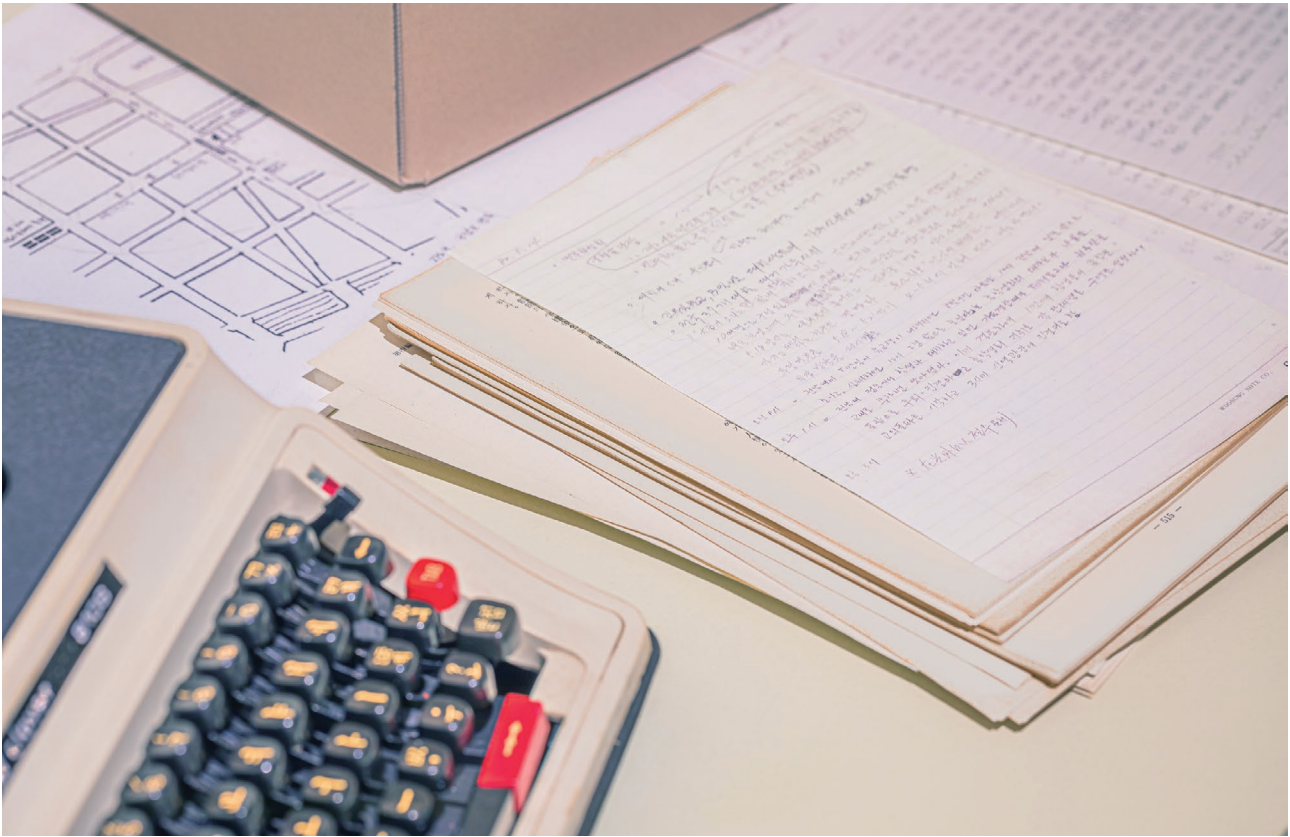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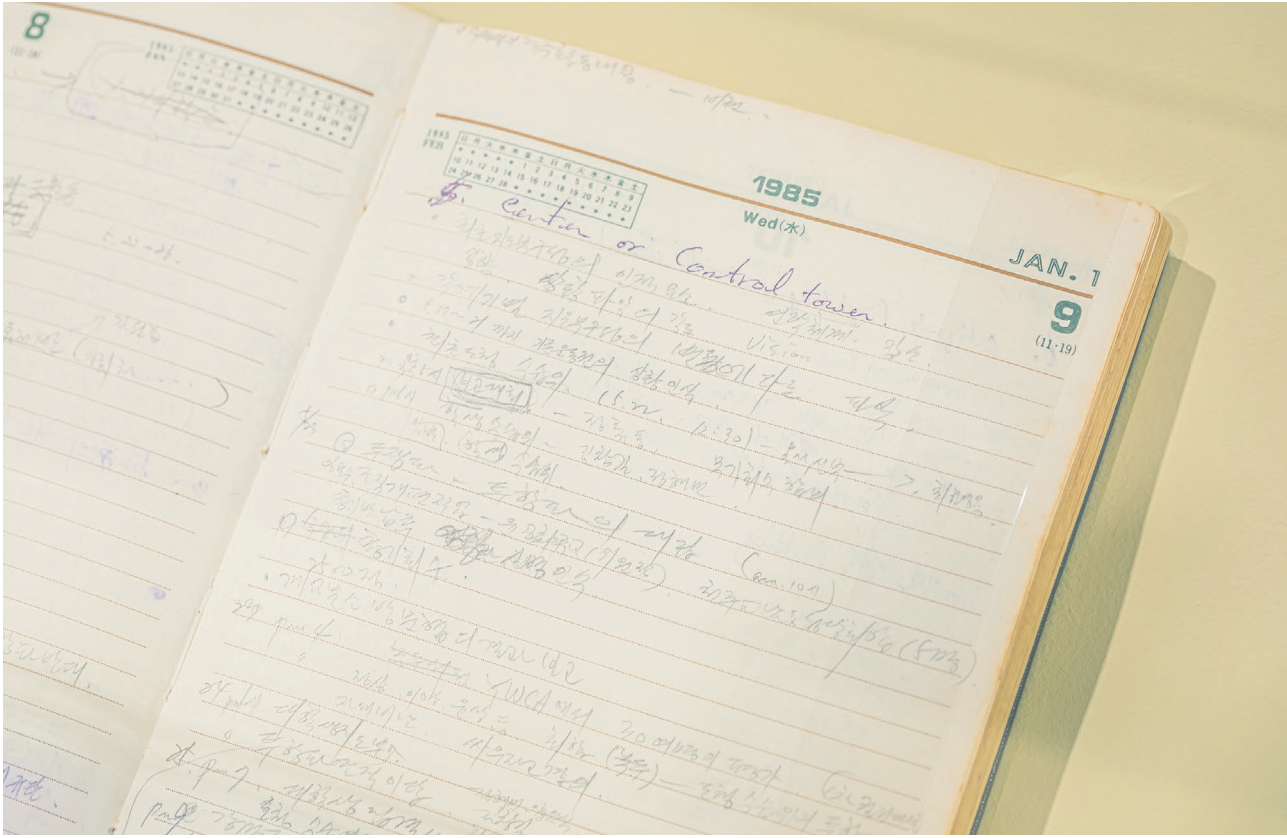
























기간 2020년 5월 18일 - 2021년 3월 28일	전시 제작 및 설치 피앤알 디자인 녹담 피앤애드	5·18을 기억하는 미래 세대 오월안부프로젝트 김지현 윤연우 김향득 박은현 장동콜렉티브 김소진 이하영 면밀 이단비 조수현
장소 서울기록원	사진 타로나픽쳐스 (노원용)	
전시 총괄 조영삼	영상 제작 <다시, 넘어 넘어> 설수안 천유철 인터뷰 고아름 박민수 박상은	인터뷰 이재의 조양훈 전용호
전시 운영 원종관 고아름 최혜민		
전시 기획 문호경	〈다시, 넘어 넘어〉 낭독 문영환 문조이 민정원 박성경 이재의 전미리 전용호 정용화 조진성 최찬혁 한명례 한보람 허인석 황석영 황예슬 팀 서록	디지털 복제 문화유산기술연구소
전시 원고 정문영 문호경		번역 손세희
도록 원고 조영삼 김명인 정문영 문호경		인쇄 서울문화인쇄
전시 디자인 이지원 한보람 황희은		홍보 샘커뮤니케이션
공간 디자인 디자인 아로공간		자료 협조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정책방송원(KTV) 양영미 이재의 전용호
공간 그래픽·도록 디자인 아키타입		
문화상품 디자인 스튜디오 보람		촬영 협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베토벤 음악감상실 양동시장

DATE May 18, 2020 - March 28, 2021	PHOTOGRAPH Tarona Pictures (ROW Won Yong)	INTERVIEWEES LEE Jae Eui CHO Yang Hoon JUN Yong Ho
VENU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FILMING <Reading Out the Truth> SEOL Su An CHEON Yu Cheol Interview KO A Reum PARK Min Su PARK Sang Eun	DIGITAL REPRODUC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for - Cultural Heritage
EXHIBITION DIRECTOR ZOH Young Sam		TRANSLATION SHON Sei Hee
EXHIBITION MANAGEMENT WON Jong Gwan KO A Reum CHOI Hye Min	<Reading Out the Truth> READERS MOON Young Hwan MOON Joy MIN Jeong Won PARK Sung Kyung LEE Jae Eui JEON Mi Ri JUN Yong Ho CHUNG Yong Hwa JO Jin Seong CHOI Chan Hyeok HAN Myeong Rye HAN Bo Ram HUR In Seok HWANG Sok Yong HWANG Ye Seul Tim SHORROCK	CATALOG PRINTING Seoul Munhwa Printing
EXHIBITION CURATOR MOON Ho Kyung		PROMOTION Saem Communication
EXHIBITION TEXT JEONG Moon Young MOON Ho Kyung		MATERIAL COORDINATION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The May 18 Archiv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The May 18 Institute Korea Democracy Foundation Public Policy Broadcasting Service - Korea TV YANG Young Mi LEE Jae Eui JUN Yong Ho
CATALOG TEXT ZOH Young Sam KIM Myoung In JEONG Moon Young MOON Ho Kyung		
EXHIBITION DESIGN LEE Ji Won HAN Bo Ram HWANG Hoe Eun	FUTURE GENERATIONS SPEAK OF THE GWANGJU UPRISING May Greetings KIM Ji Hyun YOON Yeon Woo KIM Hyang Deuk PARK Eun Hyun Jangdong Collective KIM So Jin LEE Ha Young Myeonmil LEE Dan Bi CHO Soo Hyun	FILMING COORDINATION The May 18 Archives Classical Music Hall Beethoven Yangdong Market
SPACE DESIGN Design Arogonggan		
SPACE GRAPHIC & CATALOG DESIGN archetypes		
SOUVENIR DESIGN Studio Boram		
PRODUCTION & INSTALLATION PNR Design Nokdam P and AD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Special Exhibiti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Telling the Truth: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2020.5.18. - 2021.3.28.

발행처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발행일

2020년 5월 18일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10-01

ISBN

979-11-6599-025-1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서울기록원

문의

02-350-5625, 5640

<https://archives.seoul.go.kr>

이 책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및 도판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서울기록원, 작가, 디자이너 및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으므로 허가 없이 무단 복사, 전재, 변형, 송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 문의는 서울기록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0, 서울기록원

All materials contained herein cannot be reproduced, changed, modified and transmitted in any form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Seoul Metropolitan Archives, participating writers and artists, designers and material owner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Seoul Metropolitan Archives.

© 2020, Seoul Metropolitan Archives



Telling the Truth
: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